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3

2015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15)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2015
p. ; cm. --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3)

ISBN 979-11-5687-192-7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 (세트)

도서관[圖書館]

020-KDC6
020-DDC23 CIP2015030045

2015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목 차

현 장 사 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

도서관 영역의 확장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의 구현
: 3L(Loyola Little Library) 설치 및 운영 사례 ····· 3
정재영 · 김은성 · 배철호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우 수 상

공공도서관, 학교와의 경계를 넘나들다
: 현장사서 중심의 업무협력 네트워크 모델 제시 ····· 33
안진희 (명주교육도서관), 전지민(강릉교육지원청), 윤수정(동해교육지원청)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공공도서관과 지역거점 기업연계를 통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디자인 모형 제시
: 수봉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 61
강성준 (인천광역시수봉도서관)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 사례
: DGIST 학술정보관을 중심으로 ····· 89
김경아 · 손소영 (DGIST 학술정보관)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한 도서관 현장 사례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도서관 ····· 121
김소람 · 김승민(제천기적의도서관)

논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 수 상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서의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개념 분석
····· 157
홍소람 · 강혜라(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해리(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어린이서비스 모델 연구 ····· 191
김예빈 · 김지아 · 박수진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해외 의학도서관 CHI 서비스 사례를 통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발전방안 연구
····· 227
박희원 · 이은서 · 고하림(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현 장
사 례

현장사례

최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도서관 영역의 확장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의 구현

: 3L(Loyola Little Library) 설치 및 운영 사례

정재영 · 김은성 · 배철호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목 차

Ⅰ. **서 론**

Ⅱ. **사업의 목적 및 운영방법**

1. 기획의 목적
2. 운영방법
3. 진행 로드맵

Ⅲ. **단계별 사업 진행 과정**

1. 기획 및 구상
2. TFT 구성 및 역할 분담
3. 자료조사 및 예산확보
4. 부스 제작 및 도서 확보
5. 네이밍
6. 설치작업
7. 오픈 기념행사
8. 홍보

Ⅳ. **성과 및 제언**

Ⅴ. **부 록** : 3L **홍보자료**

개 요

최근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이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을 환원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식과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간과되어 왔던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 서강대학교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Project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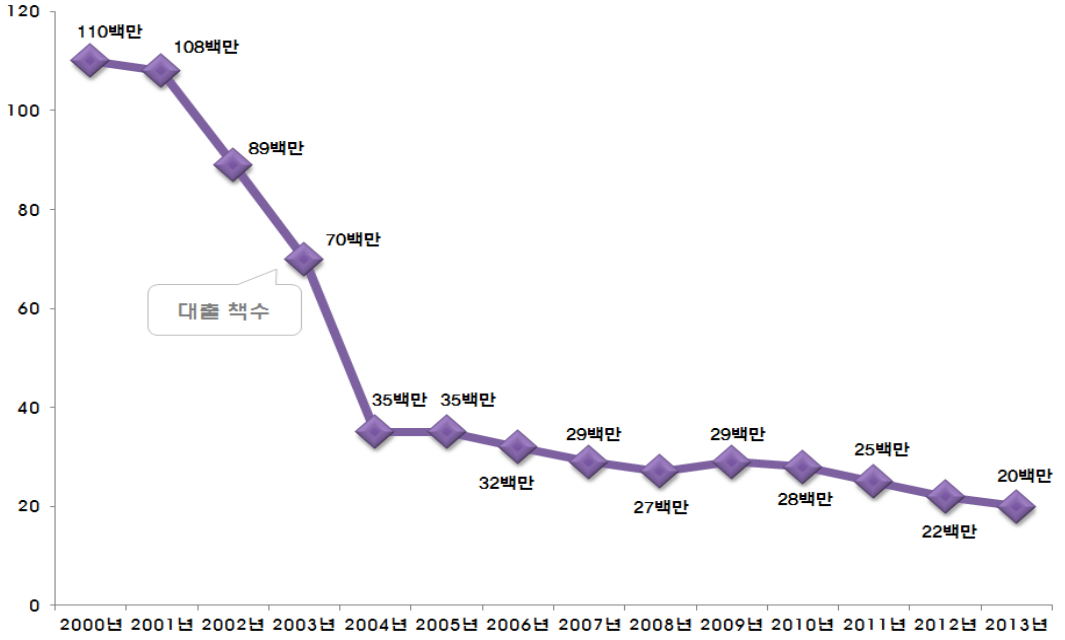
- ► 목　적 :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대학문화의 지역사회 공유방안 마련
- ► 프로젝트명 : 3L(Loyola Little Library) 설치 및 운영
- ► 내　용 : 캠퍼스 곳곳에 도서함을 설치해 교내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의 정취를 느끼도록 한다.
- ► 이용방법 : 1. 도서함에 비치된 도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꺼내보고 빌려갈 수 있도록 한다.
  2. 기증을 원할 경우 도서함에 비치된 스티커에 정보를 기재한 후 도서함에 넣어둔다.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교내·외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였으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유와 연계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과 대학도서관이 대학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 서 론

최근 대학도서관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서관 이용 및 독서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노트북의 사용, 그리고 NAVER, Google 등 통합 검색엔진의 활용을 통해 손쉽게 정보의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도서관의 이용과 독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 1년 평균 독서율이 10권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1)]와 [그림 1]의 대학도서관 대출권수의 감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서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대학도서관 도서대출 변화 추이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00년-2013년.

1)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308> [인용 2015. 6. 23].

이와 함께 대학의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연구[2)]에 따르면 조사대상 122개 대학도서관 중 109개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서만 개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독서인구의 감소문제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강대학교도서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4년 국내 최초로 '개가식' 도서관을 운영했던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이 최초의 '개방형' 도서관을 지향하며 시도한 3L(Loyola Little Library, 이하 3L) 설치 프로젝트를 정리한 것이다. 본고를 통해, 교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형' 대학도서관으로의 시도가 어떤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과정을 통해 자리매김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글의 전개는 추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도서관들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행 순으로 구성하였다.

Ⅱ 사업의 목적 및 운영방법

1. 기획의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지역사회의 자연스러운 연계, 즉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자연스러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2) 김태경 등,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도서관연구소 연구보고서 12),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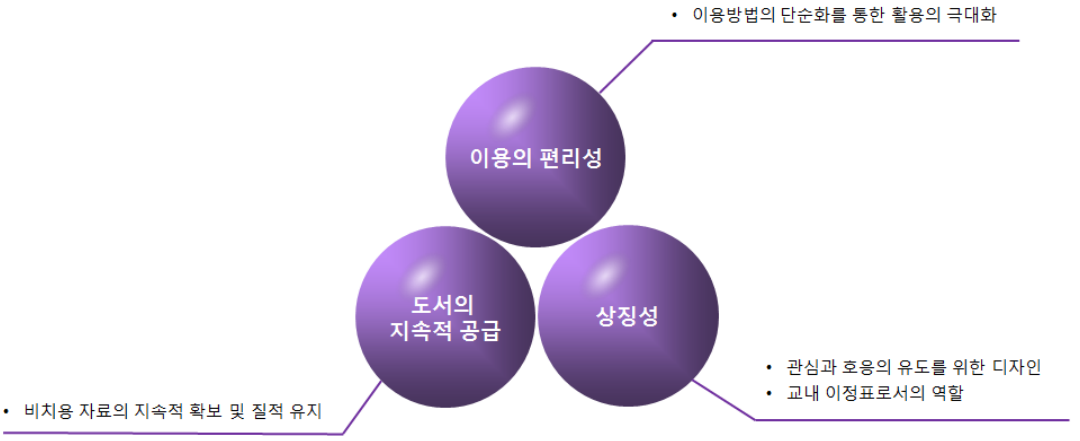
셋째, 디지털 매체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에 책과 독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자연스러운 책과의 만남을 제공함으로써 독서 및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내 곳곳에서 도서관에 대한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캠퍼스 전체를 도서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기본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2] 3L(Loyola Little Library) 구상을 위한 기본 틀



첫째, 이용방법을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한다.

둘째, 비치되는 자료의 지속적 확보와 질적 유지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교내 및 지역사회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2. 운영방법

첫째, 3L용으로 기증한 책은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지 않고 장서인만 찍어 비치한다. (책의 서지사항과 기증자 인적사항은 별도 기록 및 관리)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꺼내 보고 빌려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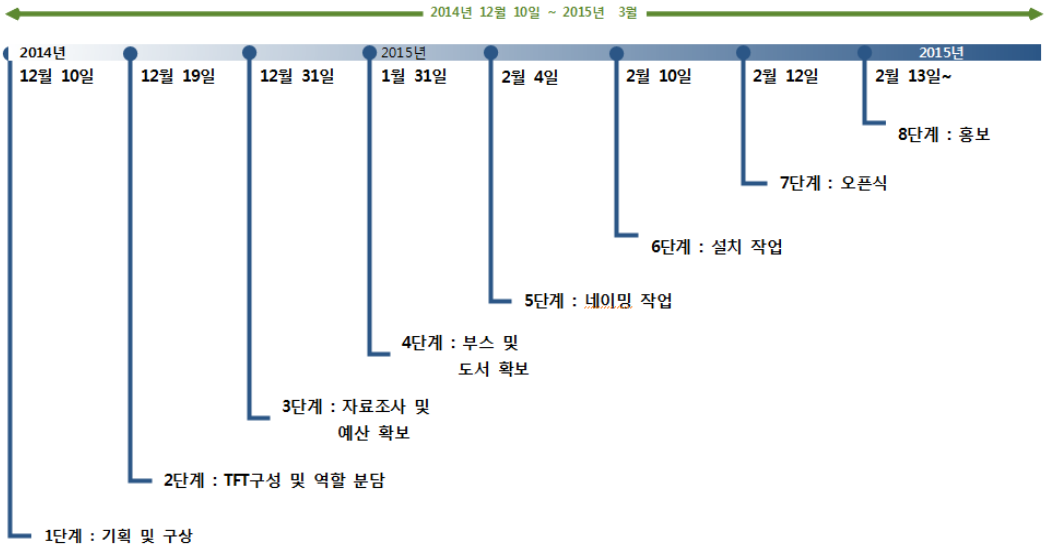
셋째, 기증을 원하는 경우 3L 도서함에 비치된 스티커에 정보를 기재하여 도서에 부착한 후 넣어둔다.

넷째, 매일 1회 도서함 관리자가 책의 보관 상태 및 기증도서 비치여부를 체크한다.

3. 진행 로드맵

3L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틀과 운영방법이 결정됨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그림 3] 3L사업을 위한 단계별 로드멥



Ⅲ 단계별 사업 진행 과정

1. 기획 및 구상

도서관의 중·장기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술정보기획팀'을 주축으로 2014년 1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계획 및 구상 단계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1학기(2015년 3월 1일) 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겨울방학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였다.

가. 실효성 검토

도서관이 아닌 교내 곳곳에 설치함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과 이용자들의 호응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내부회의 및 이용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교내 매체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참고가 될 만한 국내 및 국외 유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또한 병행하였다.[3)]

검토결과 대학 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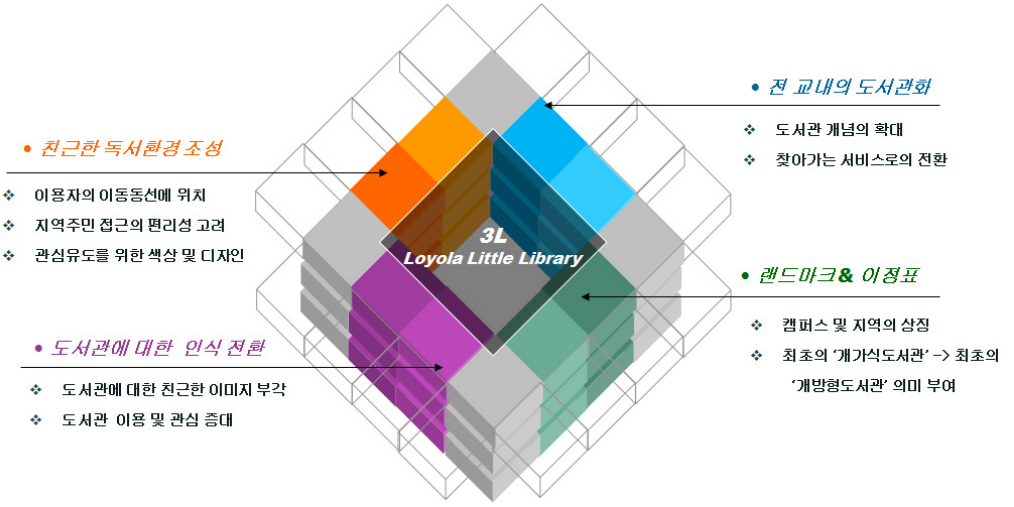
나. 달성 목표 확정

이상의 사전 조율 및 검토 과정을 통해 3L의 최종 목표를 다음 [그림 4]와 같이 확정하였다.

---

3) Little Free Library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809.html> [인용 2015. 12.23].

[그림 4] 3L 설치 목적 및 활용 방안



○ 친근한 독서환경의 조성
-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
- 친근한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관심유도

○ 전체 교정의 도서관화
- 도서관의 개념을 중앙도서관에서 교내 전체로 확대
- 이용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

○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환
- 도서관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 탈피
- 친근한 이미지 부각
- 독서에 대한 관심을 도서관에 대한 이용으로 연결

○ 랜드마크 및 이정표 기능
- 캠퍼스 및 지역의 상징화
- 국내 최초의 '개가식' 도서관이라는 상징 활용 -〉 최초의 '개방형' 도서관 지향

2. TFT 구성 및 역할 분담

가. 구성인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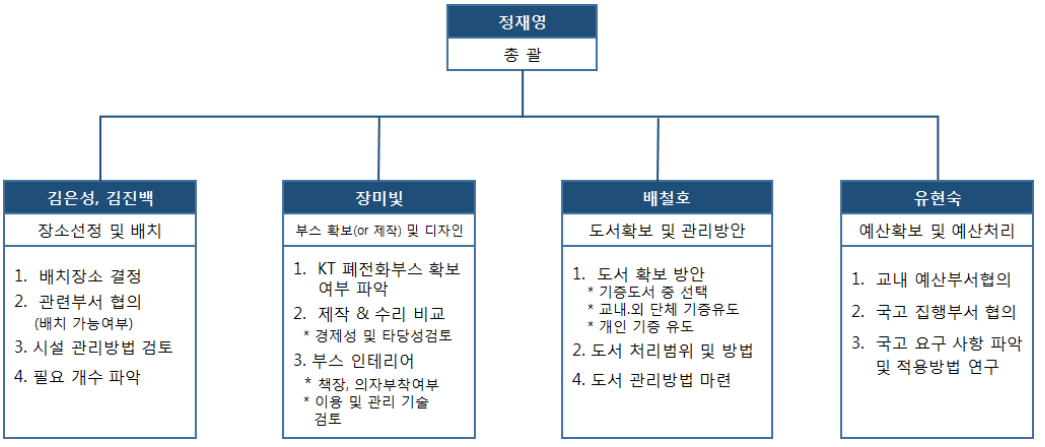
○ 사업은 학술정보기획팀이 주관하고, 각각의 영역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별로 1명씩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술정보기획팀 단독 프로젝트로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 단기프로젝트라는 특성상 팀 내부 인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추진력이 있다.
- 프로젝트 특성상 '예산확보'와 '사업기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타 팀들이 11월에 이미 겨울방학을 이용해 처리해야할 업무를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업무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나. TFT 조직도 및 역할

○ TFT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3L TFT 구성도



3. 자료조사 및 예산확보

가. KT 폐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1) 폐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도서관 운영 사례 조사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2&aid=0000037926

2) 기증 가능성 타진

○ 현재 추가 철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계획이 마련되면 연락 주겠다는 통보 받음

이정우 팀장 (KTOLP 18, 010-3010-****, jungwoo****@kt.com)

나. 부스 제작 방안 검토

1) 스마트부스 114

○ 연락처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672-1
(Tel : 032-567-****)

○ 개당 제작 가격 : 2,500,000원

2) (주)세영

○ 개당 제작 가격 : 3,000,000원

3) (주)덕원

○ 연락처 : 덕원, 정창윤 (010-5592-****)
○ 재　질 : 스텐레스 및 불소도장(앞면 강화유리)
○ 크　기 : 400 × 1,870
○ 가　격 : 개당 1,000,000원

다. 예산확보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내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해 추경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2차로 LINC사업단 및 ACE사업단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고지원사업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고, 해당 사업을 추가로 넣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교내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4. 부스 제작 및 도서 확보

가. 부스 제작 기본 사항

○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고급스럽고 눈에 띄게 제작
○ 비 피해 및 부식방지
  - 전정 빗물각도 유지
  - 유리문설치(개폐형)
○ 나무색을 유지하거나 눈에 뜨는 색으로 통일
○ 지지대 두께 최소 5cm 이상
○ 하단부 콘크리트 마감

나. 부스 제작 의뢰

○ 관련부서 제작 협조의뢰

수신자	관재시설팀장
참조자	이인희 차장님, 박상연 과장님
제 목	도서함 제작 요청 건

1. 항상 도서관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서관에서는 서강구성원이 어디서든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교외 5곳을 선정하여 도서함의 비치·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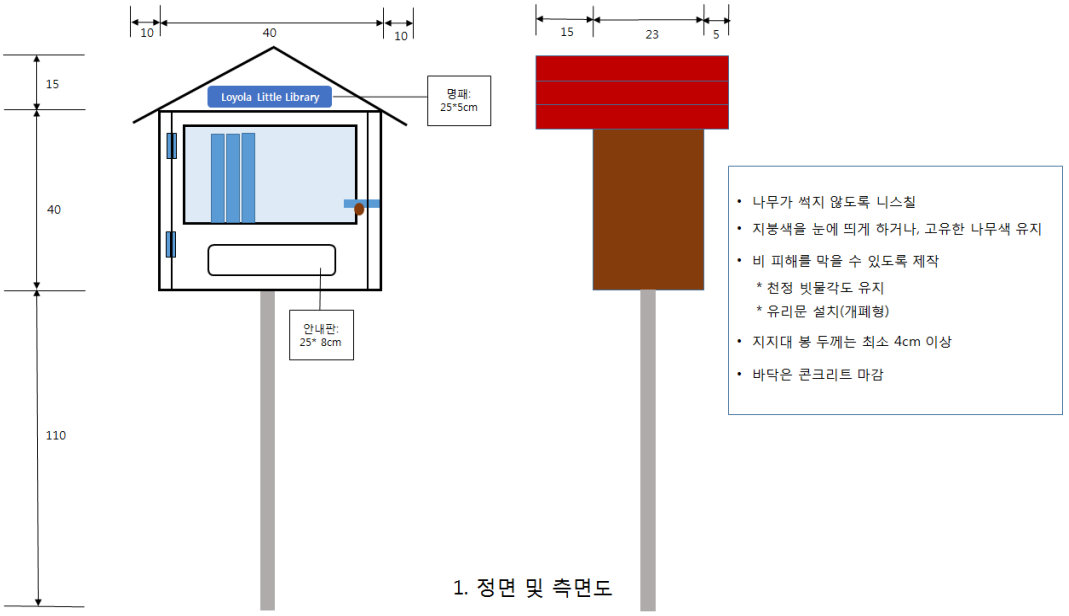
3. 이에 도서함 제작을 아래와 같이 요청을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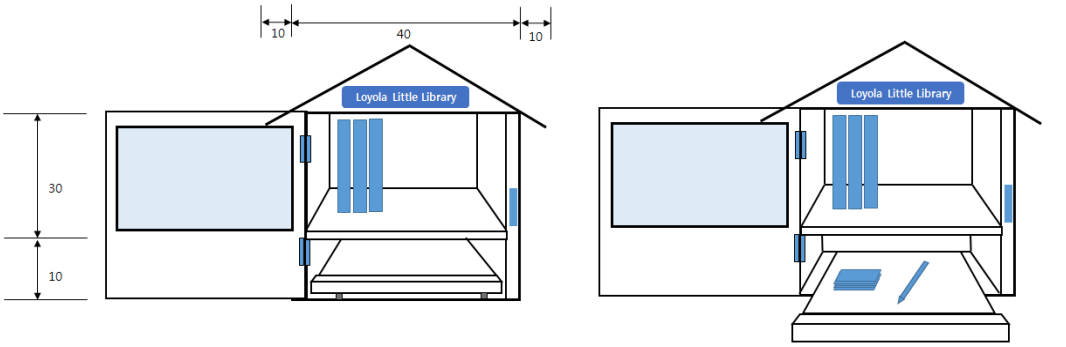
- 규격: 첨부문서 참조
- 수량: 5개

4. 첨부서류
1) 제작요청서 1부. 끝.

○ 제작 상세 요구 사항



1. 정면 및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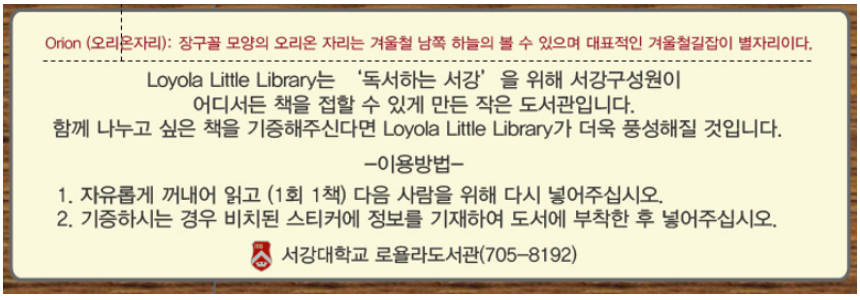


- 위쪽 선반- 책 비치, 아래 쪽 선반- 소형 물품 (필기구, 라벨지 등) 비치
- 아래 쪽 선반은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레일형 혹은 서랍 형식

2. 내부상세도

[명 패]

[이용안내판]



다. 부스 제작 과정

라. 도서 확보

1) 도서 확보 방안

○ 기존 도서관 장서와 별개로 운영
○ 학술도서 및 전공서적 지양 – 설치 위치 및 목적에 맞게 교양서적 및 소설 등 비치
○ 등록 제외 기증자료 활용 (수서정리팀)
○ 개인 또는 기관 등에 기증 유도

[그림 6] 3L 도서 확보 방안

* 개인 기증도서 현황 (2015년 7월 31일 현재) :

기증자	기증권수
우찬제	215
허병두	87
정보봉사팀	49
유형식	13
박정영	5
전미경	5
이상훈	2
홍지성	2
김길선	1
류지현	1
박연주	1
신용식	1
불명	42
총합	424

2) 도서처리방안

○ 3L 한 곳당 약 15권 내외의 자료 비치 - 1차로 5곳 약 100여 권 필요
○ 등록 및 정리 절차 생략, 일련번호만 부여하여 리스트 작성
○ 로욜라도서관 장서와 구분 가능한 라벨 부착

3) 운영 및 관리방안

○ 자유로운 자료 이용과 자료 기증을 통하여 이용자들 스스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운영

○ 자료 기증을 위한 라벨 준비(3L 장서 표시 및 기증자 메시지) – 자신의 책을 가져와 직접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자료 기증

○ 1일 1회 순찰을 통한 도서 상태 점검 및 관리

○ 매월 1회 비치된 도서 수 확인 및 통계 작성

○ 기증의뢰 편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도서관장 우찬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가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이지만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취업'이 절대 유일한 목표가 되어 대학이 점차 직업훈련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 세대에게 '독서'란 사치인 것이지요. 독서를 통해 현인들의 지혜를 만나고 삶의 본질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했던 세대로서 많은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출판 업계에 종사하시는 귀사 또한 독서와 책의 가치를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서강대 로욜라도서관은 독서 본연의 즐거움과 가치를 일깨우려 작은 움직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바로 서강대학교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물로서의 도서관이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누구나 책을 접하고 공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LFL(Little Free Library)의 모습입니다. 현재 65개국에서 1만 5,000여 개의 LFL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에 마련된 책을 자유롭게 대출, 반납, 기증을 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본 도서관은 다가오는 신학기에 맞추어 '작은도서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서하는 대학,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저희의 움직임에 귀사가 가치를 공유하고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독서에 도움이 될만한 서적이 있다면 '작은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해 기증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순한 양처럼 온화함과 평온함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5. 네이밍

가. 네이밍(1)

이름은 사업의 의도와 목적을 함축해서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위한 TFT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네이밍(안)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총 6개의 안 중 (2안)이 최종 선정되었다.

○ 의미 부여
- 단순한 시설이 아닌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부여
- 도서관 이미지 및 설치 목적 투영
- 쉽게 부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명칭 구상

○ 현 도서관 이름(Loyola Library)과의 연계
- 중앙도서관 이름과 관련이 있도록 명명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

네이밍(안)

1안) Open library
교내 곳곳으로 이동된 개방된 또하나의 도서관이라는 점을 부각

2안) Loyola Little Library(3L) **※ 최종 선정 (2015년 1월)**
중앙도서관의 고유명인 Loyola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 작은 형태의 도서관임을 암시하고 첫글자의 통일로 3L이라는 약명을 활용할 수 있음

3안) 지식의 섬
중앙도서관을 본토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나의 작은 섬들로 이미지화함

4안) Loyola Cloud

5안) 작은 도서관
쉽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의 형태 중 하나로 이름만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6안) Mini Library
5안)과 같이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미로 고안됨

나. 네이밍(2)

○ Loyola Little Library로 결정된 이후 각 위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Loyola Little Library(3L) + 별자리

○ 도서관이 우주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동도서관은 하나의 별자리로 형상화함

○ 도서관의 위치를 북극성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3L 위치와 방향에 맞는 별자리를 선택

번호	부스 명칭	도서함 안내판 설명
1	Cassiopeia	Cassiopeia (카시오페이아자리): 더블유자의 별꼴로 북반구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 별자리이다.
2	Leo	Leo (사자자리): 물음표 꼴의 사자자리는 봄 무렵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봄철 길잡이 별자리이다.
3	Lyra	Lyra (거문고자리): 직녀별이라 불리는 베가가 1등성인 거문고 자리는 여름철길잡이 별자리이다.
4	Pegasus	Pegasus (페가수스자리):거대한 사각형 꼴로 보여지는 페가수스는 대표적인 가을철 길잡이 별자리이다.
5	Orion	Orion (오리온자리): 장구꼴 모양의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겨울철길잡이 별자리이다.

6. 설치작업

가. 장소 선정

○ 1차 후보지 선정

- 휴식 및 휴게 장소로 적절한 곳
- 이용자의 동선에 위치하거나 이용자가 많은 곳

○ 후보지로 8곳 선정

- 이용 가능성 및 위치 간 균형 고려

○ 최종 5곳을 선정하고 추후 상황을 분석한 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

- 후보지 중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림 7]과 같이 대학교정의 균형을 고려해 설치장소 선정

[그림 7] 3L 설치 장소

나. 교내 관련부서 협조요청

○ 교내 설치에 따른 허가 : 인사총무팀

○ 설치 작업(땅파기 / 시멘트 기초작업 / 기둥 및 벽돌 고정작업 등) : 관재시설팀

다. 설치 작업

금호경영관 앞

베르크만스 우정관 앞

대운동장 앞

메리홀 앞

곤자가플라자(GP) 앞

7. 오픈 기념행사

가.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귀빈을 모실 수 있는 방법 고안

○ 별도의 식을 거행하기보다 '졸업식'과 '입학식' 시즌임을 감안해 졸업식이 끝나고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VIP가 이동하는 동선과 시간을 고려해 행사장소 및 시간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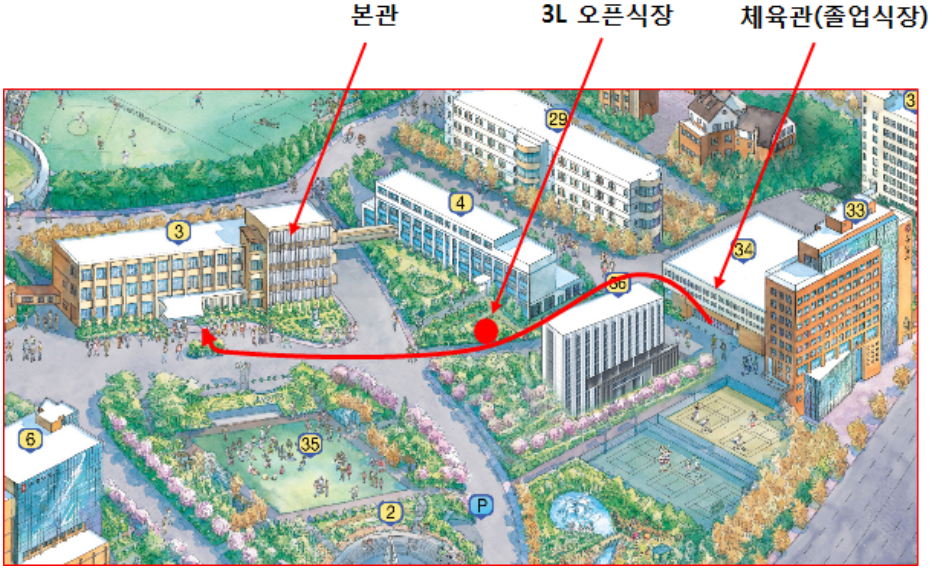
○ 시 간 : 2014년 2월 12일(목), 3시 20분~ (☞ 졸업식 2시-3시 30분 예정)

○ 장 소 : 베르크만스 우정관 앞 3L

○ 참석자 : * 총장, 이사장, 부총장, 동문회장, 총학생회장,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약 15명

* 도서관 직원 및 학생, 지역주민 약 20명

[그림 8] 졸업식 행사 후 이동경로 및 3L 오픈식 장소



나. 식 순

○ 날씨(영하 2도, 바람)와 행사장소가 야외라는 점을 감안해 간단하고 임펙트 있게 구성

○ 교목처장님 '축성기도'

3L 오픈식 장면 : 커튼제거. 1

3L 오픈식 장면 : 커튼제거. 2

3L 오픈식 장면 : 책기증 행사

3L 오픈식 장면 : 축성식

3L 오픈식 장면 : 기념촬영

3L 오픈식 장면 : 책비치 후 3L의 모습

8. 홍보

가.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

○ 서강대학교 주변 3개동(신수동, 대흥동, 염리동) 주민센터와 연계 및 홍보

[그림 9] 서강대학교 주변 지도

- 신수동 주민센터
  * 담당자 :행정민원팀장 : 윤*경(Tel : 02-3153-****)
- 대흥동 주민센터
  * 담당자 :행정민원팀장 : 이*석(Tel : 02- 3153-****)
- 염리동 주민센터
  * 담당자 :행정민원팀장 : 양*성(Tel : 02- 3153-****)

[그림 10] 게시판 및 홈페이지 홍보(대흥동 / 염리동 / 신수동)

○ 마포지역 신문 [마포신문] 3L 취재 요청

* 이*언 편집국장 외 기자 1명

나. 교내 이용자를 위한 홍보

○ 「서강학보」에 홍보기사 게재

○ 「학처장회의」에 홍보 브로셔 전달

○ 「도서관 홈페이지」 및 「웹진」에 3L 설치 취지 및 이용 방법 공지

○ 신입생을 위한 홍보자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에 3L 소개

Ⅳ 성과 및 제언

‘3L’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대학의 문화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11], [그림 12], 그리고 [그림 13]과 같이 서강대학교 구성원과 주변 지역사회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서강학보에 소개된 3L관련 기사

작은 도서관에서 큰 지식 얻어가세요 본교 로욜라 도서관에서 ‘Loyola Little Library’를 설치했다. 이는 원하는 학우들 누구나 책을 자유롭게 꺼내 읽을 수 있는 도서함이다. 현재 곤자가 광장, 대운동장, 메리홀, 베르크만스 우정원, 토마스모어관 주위에 마련돼 있으며 향후 교내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황지성 기자 jssong0125@

서강학보 15. 3. 2

[그림 12] 서강 Weekly에 소개된 3L 관련 기사

서강소식 Weekly
서강소식 WEEKLY는 서강에서 매주 발행하는 공식 온라인 뉴스레터입니다.
2015년 3월 3일

로욜라 리틀 라이브러리 개관

1974년 한국 최초의 '개가식'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한 본교 로욜라도서관이 이제는 '개방형' 도서관의 지평을 새롭게 열고 있다. 2월 12일(목) 베르크만스 우정원에 설치된 3L Lyra(거문고자리) 도서함 앞에서 '개방형'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도서관인 로욜라 리틀 라이브러리(Loyola Little Library, 이하 3L) 개관식이 열렸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정택 이사장, 유기풍 총장, 우찬제 도서관장 등 보직교수들과 재학생 대표 김민건(기계 12) 학생회장이 참석하였다.

3L은 '독서하는 서강'을 목표로, 로욜라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교내 곳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도서함 속의 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도서는 도서함에 넣는 것만으로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다.

도서함은 교내 총 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도서함에는 고유의 별자리 명칭이 있다. 3L을 통해 본교 곳곳에서 로욜라도서관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길잡이별자리'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도서함명	명칭 설명	위치
Cassiopeia	카시오페아 – 더블유자 모양으로 북극성을 찾을 수 있는 길잡이 별자리	곤자가 광장 앞
Leo	사자자리 – 거꾸로 놓은 물음표 모양의 봄철 길잡이 별자리	대운동장 앞
Lyra	거문고자리 – 직녀성이라 불리는 베가를 포함한 여름철 길잡이 별자리	베르크만스 우정원 앞
Pegasus	페가수스 –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대표적인 가을철 길잡이 별자리	토마스모어관 맡은편
Orion	오리온자리 – 장구모양의 겨울철 남쪽 하늘의 겨울 길잡이 별자리	메리홀 옆

도서함을 찾은 학생들은 "개강하고 오랜만에 학교에 왔더니 학교 전체가 도서관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도서함에서 '정치는 왜 배신하는가'를 빌린 진수민(정외 13) 학생은 "그동안 로욜라 도서관까지 가기 힘들어서 책을 멀리해 왔는데, 이제는 책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책을 많이 읽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글 | 김수완 (학생기자, 국문 13) swank2357@sogang.ac.kr
사진 | 로욜라도서관, 발전홍보팀 제공

[그림 13] 마포신문에 게재된 3L 관련 기사

8 | 창간 25주년 종합(Summarizing)

서강대 야외 로욜라작은도서관 인기

학교 곳곳에 개방형도서함 설치해 책읽는 분위기

학생들 뿐만아니라 학교 찾는 지역주민들도 공유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가 학교 곳곳에 개방형도서관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서강대를 찾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강대는 금년 1월부터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토머스모어관앞과 베르크만스우정관앞, 메리홀앞, 대운동장앞, 곤자가광장앞 등 벤치와 쉼터가 있는 교내 5곳에 도서함을 설치하고 교양서적 및 인문학, 시집 등을 비치했다.

서강대 학생들은 물론 서강대를 찾는 운동객, 유모차를 끌고 산책나오는 젊은 주부, 매일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는 메리홀(공연장) 입장객 등 서강대를 방문한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야외 도서함에서 책을 꺼내 읽고 또 집에 있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어 이젠 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아주 자연스런 풍경이 되버렸다.

물론 누구나 도서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하다보니 가끔 책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강대측에서는 이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정재영서강대도서관 학술정보기획팀장(문헌정보학박사)은 "읽지 않고 구석에 박혀있는 것보다 책을 가져가는 것 또한 책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며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접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설사 분실하더라도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개방형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책을 가져가는 이도 있지만 반대로 소리소문없이 책을 기증하는 이도 지금까지 40여명이나 된다고 학교측 관계자는 설명한다. 다른사람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할 경우 스티커에 정보를 기재하여 도서에 부착한 뒤 도서함에 넣도록 했지만 도서기증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기증하고 있다고 한다.

서강대학교 내 5곳에 설치된 도서함은 고유의 별자리 명칭을 달았다. 3L(Loyola Little LIBRARY)을 통해 서강대학교 곳곳에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길잡이별자리로 이름을 붙였다는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로욜라작은도서관(3D)는 교내 이용자는 물론 서강대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대학캠퍼스 곳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도서관이며 자유롭게 꺼내어 읽고 넣어두는 무인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예산이 거의 확보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내 관련부서의 협조만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과, 계획과 로드맵 작성 그리고 철저한 분업으로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단기간(3개월)에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추후 도서관 사업의 실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정 곳곳에 설치된 3L 주변에서 독서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을 볼 때 3L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서비스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즉,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홍보와 도서공급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도서관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 프로젝트와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학의 문화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성 확인
○ '독서'를 통한 건전한 대학중심의 지역사회 문화 조성
○ 대학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공유

나. 이용자의 독서 및 도서관에 대한 관심 증대
○ 이용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시설 창출
○ 독서에 대한 관심 및 생활화
○ 책에 대한 관심을 도서관 이용으로 연계 가능성 확인

다. 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화' 구현
○ 도서관의 의미를 투영한 '상징' 확보
○ 도서관의 의미를 교내 전체로 확대

라. 도서관 서비스 및 사업 기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도서관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 가능성 확인
○ 도서관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추구
○ 최적화된 기획 및 예산 산출로 비용 최소화
○ 관계부처와의 협력만으로 수행된 프로젝트 선사례 확보

V 부 록 : 3L 홍보자료

3L: Loyola Little Library

A. 취지 및 목적

1974년 한국 최초의 '개가식'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한 서강대학교가 이제는 캠퍼스 전역으로 확대한 '개방형' 도서관의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3L(Loyola Little Library)은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자연스러운 연계 및 대학문화의 지역사회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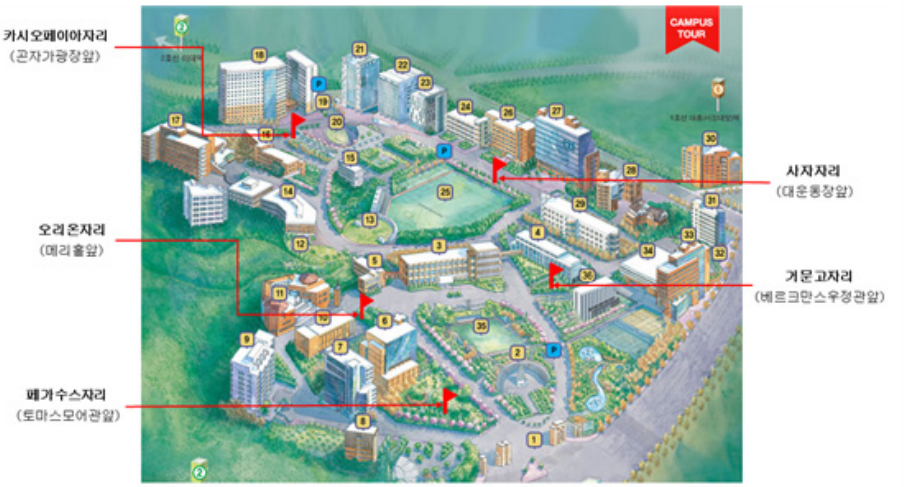
3L은 교내이용자는 물론 서강대학교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대학캠퍼스 곳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도서관이며 도서함 속 책을 자유롭게 꺼내어 읽고 넣어두는 무인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 이용 방법

1. 3L의 책 (1회 1책)을 자유롭게 꺼내 읽은 뒤 다시 넣어둔다.
2. 다른 사람을 위해 도서 기증을 원할 경우 비치된 스티커에 정보를 기재하여 도서에 부착한 뒤 도서함에 넣는다.

C. 명칭 및 위치

도서함은 아래와 같이 교내 총 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도서함에는 고유의 별자리 명칭이 있습니다. 3L을 통해 서강대학교 곳곳에서 도서관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길잡이별자리' 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장사례

우 수 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공도서관, 학교와의 경계를 넘나들다

: 현장사서 중심의 업무협력 네트워크 모델 제시

안진희, 전지민, 윤수정

(명주교육도서관, 강릉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업무협력 네트워크 사례**

1. 공공도서관+학교+학교도서관지원센터 융합 프로젝트
   가. 감성독서 프로젝트
   나. 독서토론캠프
   다.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2.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공동프로젝트
   가. 독서런닝맨
   나. 추천도서목록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공동프로젝트

Ⅲ. **맺음말**

※ 2014년 1월부터 6월 까지 동해 강릉 지역 7급 사서들의 자발적 협력사업 사례로 현재 3명의 구성원은 2015년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근무처가 바뀌었다.

개 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서는 자료정리부터 행사기획, 참고봉사 등 1인 다역을 소화해야 한다. 직업적 사명감에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희생 아닌 희생을 감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은 몇 년 째 늘지 않고 있기에 각종 단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신청해야 하고, 기존 예산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늘 조바심을 낸다. 해도 해도 줄지 않는 업무량을 보며 심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의 선후배 사서들과 서로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한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공유하면 어떨까?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지만 혼자하기에 벅찬 업무를 같이 협력하여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조그마한 마음이 협력사업의 시작점이 되었다.

현장사서들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첫 번째 모델이 공공도서관+학교+교육청의 융합 프로젝트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다. 평소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교육청과 공공도서관에서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학교도서관지원업무로 친분을 쌓은 사서교사, 교과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문학을 기반으로 한 교과연계수업이 포함된 감성독서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 번 손을 잡고 신나는 경험을 해본 선생님들은 청소년독서토론캠프, 지역연합 토론동아리, 독서토론대회까지 이어졌고 참여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선생님들은 학생 관리 및 인솔, 프로그램 지원을 맡고, 공공도서관은 장소와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교육청은 두 기관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교사들에게도 사서들에게도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두 번째 모델은 공공도서관+교육청의 프로젝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체화된 도서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숙련된 사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릉, 동해권의 4개 기관, 사서 6명이 참여하는 독서런닝맨 사업을 기획해 보았다. 예능 프로그램의 모티브를 통해 자료실별 특징을 살려

하나의 청구기호를 완성하여 해당도서를 찾아내는 최종미션은 지루한 교실과 칠판을 벗어났지만 분명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용 수업이었다.

그에 더해 지역의 사서들이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목록을 배부했으며, 공공도서관들은 목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목록을 들고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도서 대여는 물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독후활동과 방학 중 과제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적인 추천도서목록 배포 사업과 확연한 차별성을 두었다.

세 번째 모델은 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간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새 학기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는 도서관 이용법과 그에 대한 교육자료 문의가 쇄도한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자료가 넘쳐나는 인터넷 상에서도 학교의 요구에 딱 맞은 적당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하여 사서들은 분류, 청구기호, 서가배열 등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서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도교육청의 미디어팀, 애니고등학교 등과 연계를 시도해보았지만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결국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굳이 사례에 포함한 이유는 1,800만원의 콘텐츠 비용을 17개 지역청에서 100만원~150만원씩 부담하는 제작방식의 유연성을 소개하고자 함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펼쳐놓는 것이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이 남긴 말이다. 많은 아이디어를 펼쳐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며 크게 공감하게 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성과가 컸고, 게다가 운영하는 사서들 스스로가 힘들기는커녕 즐겁고 신나기까지 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느라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는 늘 뜨겁다. 도서관은 그 뜨거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수년간 책으로 중무장한 사서들이 즐비한 도서관이 “교육”의 변화에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할 때가 온 것이다.

Ⅰ 추진배경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3월 5권역(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교육문화관 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17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사서 17명이 지역교육청에 1명씩 배치되었고 사서들은 조직개편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지역교육청의 사서 배치는 신규임용 이후 도서관에만 근무했던 사서들에게 엄청난 변화였고, 위기였다. 도서관들은 당장 3명의 사서(관장포함) 중 7급 사서 1명을 내놓아야 했고 많은 사업을 접거나 사서 한 사람 몫의 업무를 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행사가 끊이지 않는 도서관 업무를 실무사서 1명으로 감당하기에는 업무과중에 심리적인 부담 또한 컸다. 교육청으로 배치된 사서들 역시 낯선 업무환경과 기댈 곳 없는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며 사서 혼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기에 사서들은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역 내 도서관, 문화관, 교육청에 소속된 사서들은 지역 소모임을 통한 아이디어 및 자료공유가 곧 기관별 사업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찾아오는 이용자에 국한되었던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학교로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정말 어렵다. 유아 및 아동기 동안 왕성하게 도서관을 드나들던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에 발걸음을 끊는다.

교육청 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매개로 한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결합은 사서와 교사가 함께 융합 독서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도서관과 교육청, 학교 모두가 참여 주체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기존의 도서관이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가 찾아가는 독서교실, 도서관 이용법, 순회문고 등 일방통행 식 지원이었다면 학교와 결합된 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등 교사와 사서의 협업형태로 사서가 수업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의 변화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 프로젝트의 성과는 기대이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서들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스스로의 변화를 감지한 사서들은 인근지

역 도서관과 교육청의 사서들이 업무네트워크를 구축해보자고 제안했고, 기획 단계부터 진행 및 예산까지 모든 단계에 3-4 기관의 사서가 한 명씩 참여했다. 학교를 타겟으로 한 사업방향은 기존의 지역주민에 더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를 사업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졌으며, 여타 평생학습기관과는 차별화된 지역 내 독서문화를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기존에도 사서협의회나 도서관연구회 동아리 형식의 모임이 있기는 했지만 업무외적으로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원거리 사서들이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1년에 한 두 차례 모임을 갖는 형식과는 추진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성과가 크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하겠다. 한 두 차례의 사업연계 모델은 어느 도서관이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기에 급기야 강원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도 되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 모든 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적은 예산투자로 기관담당자의 역할 부담이 적은 데다 투자 대비 수준 높은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파급력 또한 수십 배에 달하여 기대이상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전 세계가 융합을 외치고 학술분야에서도 융합학문이 대세로 떠오르는 2015년 현재, 공공도서관에도 융합의 파도가 서서히 일렁이고 있는 셈이다.

Ⅱ 업무협력 네트워크 사례

1. 공공도서관+학교+학교도서관지원센터 융합 프로젝트

가. 감성독서 프로젝트

○ 운영목적 및 추진배경

-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독서활동이 어려운 현실과 문화예술이 통합된 청소년 체험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에 더해 최근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이용률이 급감하였다. 독서소외계층으로 손꼽히는 청소년들에게 한 권의

책, 한 권의 문학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맞닿아있는지를 보여주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또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안목을 키워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형 인재 육성의 거대한 과제를 달성하며 학교와 교사들에게 독서교육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어필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

○ 운영대상 : 동해시 관내 고등학생 25명

○ 운영기간 : 2014년 6월~9월(주1회 12차시, 매주 목요일 19:30~ 21:30)

○ 운영장소 : 동해교육도서관

○ 운영지원단 : 동해교육도서관 사서 3명, 동해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서 1명, 교과교사 5명(국어, 수학, 지리, 미술, 사서)

○ 운영방법

- 개별신청 및 학교 추천을 통해 연합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
- 주 1회 공공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수업 12차시 진행
- 사서와 교사들이 함께하는 팀티칭 프로그램 개발
- 교과연계수업, 독서런닝맨, 모둠별 PPT제작・발표, 문학기행, 에세이 북 만들기 등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 프로젝트의 전 과정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장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발급(생활기록부 등재)

○ 운영지원단 참여주체별 역할

<table>
<tr><th>공공도서관
(사서3명)</th><th>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서 1명)</th><th>학교
(교사 5명)</th></tr>
<tr><td colspan="2">운영지원단 참여주체별 역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주제도서 선정 및 요약자료 작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사진촬영 및 동영상 편집
운영결과보고 및 콘텐츠 제작</td><td rowspan="2">참가학생 선발
교과연계 프로젝트 주제 선정
통합교과연구를 통한 팀티칭
교과별 연계수업
(국어, 수학, 지리, 미술, 사서)
에세이 북 제작지도
체험프로그램 학생 인솔</td></tr>
<tr><td>교수학습자료 제공 및
교과별 연계자료 개발, 제공
(도서, 전자자료, 간행물, 지도 등)</td><td>운영단 구성 및 회의주관
학교-도서관간
공문수발 및 예산지원</td></tr>
</table>

○ 세부 운영일정

운영일	운영내용		연계교과	비고
1차시 6.12(목)	도서관 활용능력 습득	오리엔테이션 - 독서런닝맨 (도서관 알기, 친구들과 친해지기)	정보 활용능력	5종의 문학자료 선정 및 요약본, 전국지도, 배경지역별 관광안내도, 수학관련도서, 환경관련도서, 사회(공정무역) 관련도서, 인터넷 자료, 여행안내도서 등 각종 전자자료 독서런닝맨, 문학기행 등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제작
2차시 6.19(목)	문학과 함께하는 공정여행 프로젝트 학습	문학 속 배경의 의미와 역할 우리말 겨루기를 통한 팀별 문학작품 선정	국어	
3차시 6.26(목)		문학 속 배경지의 지리적 특성 이해, 경로 등 지식습득을 통한 여행코스 계획 구체화	지리	
4차시 7.17(목)		모둠별 여행코스에 따른 탄소배출량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계산	수학	
5차시 7.24(목)		여행코스 구체화 논의 및 자료 찾기	Team-teaching	
6차시 8.7(목)		관광안내지도, 인터넷을 토대로 모둠별 PPT 제작	Team-teaching	
7차시 8.14(목)		PPT발표 및 평가 최종 여행지 선정	Team-teaching	
8차시 8.21(목)		여행 준비사항 안내 및 에세이 북 제작을 위한 조 편성	미술	
9차시 8.23-24		1박 2일 문학기행(경주)	Team-teaching	
10차시 9.4(목)	에세이북 제작	에세이 북 제작 및 편집 계획	사서, 미술	
11차시 9.11(목)		조별 과제 수행 (사진부, 그림부, 글쓰기부, 편집부)	Team-teaching	
12차시 10.23(목)		설문지 작성, 프로젝트 평가 및 마무리 「다시 천년 뒤에」 도서 배부	사서	

○ 운영내용

① 프로젝트 연계도서

팀명	서명	저자	출판사	배경지
미피	하늘에 새긴 이름 하나	이현미	문학과지성사	경남 남해군
소윤이네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정유정	비룡소	광주광역시
핑크레이디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 비	충북 청주시
청일점	마지막 왕자	강숙인	푸른책들	경북 경주시
허니콤보	창경궁 동무	배유안	생각과느낌	서울특별시

② 독서런닝맨 : 각 자료실 및 자료접근 방법, 연계도서를 내용으로 미션수행 과정을 꾸미고 우승팀 학생들의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에 50만원 상당의 도서기증

독서런닝맨

포스트별 미션지

③ 교과연계 프로젝트수업

- 연계도서를 바탕으로 한 국어, 지리, 수학, 미술교과 연계 수업 실시
- 국어 : 연계문학 속 배경의 의미와 역할, 게임을 통한 팀별 문학작품 선정
- 지리 : 문학이 탄생한 배경지의 지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특산품, 교통발달에 따른 도시의 발달과정, 지도 보는 방법 등
- 수학 : 여행경로에 따른 탄소배출량과 여행비용 계산,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

문학과 함께하는 공정여행 프로젝트 학습

디지털자료실을 활용한 정보 수집 및 자료제작

④ 문학기행 : 모둠별 PPT를 제작 및 발표하여 탐방지 선정

- 주　　제 : 신라의 마지막 왕자를 따라 걷는 문학기행
- 관련도서 : 마지막 왕자 / 강숙인
- 탐 방 지 : 경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첨성대

천마총

테디베어 박물관

⑤ 미술 : 에세이 북 제작에 따른 편집계획, 조 편성(글쓰기, 그림, 사진, 편집)

배경소품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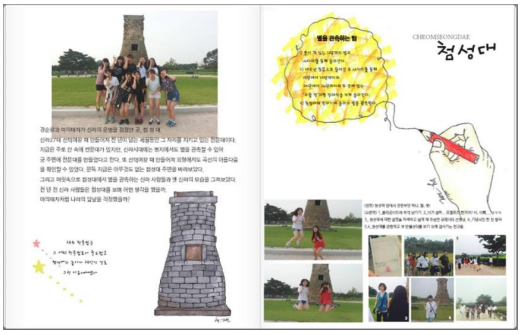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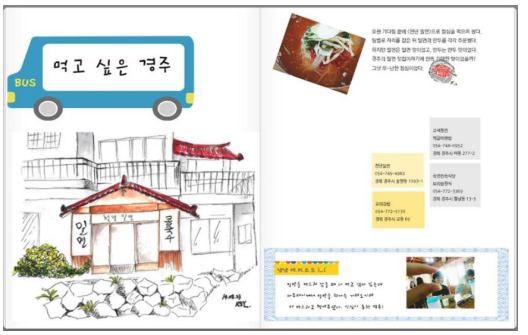
⑥ 사서교사 : 에세이 북 제작에 따른 책의 컨셉, 프롤로그, 에필로그, 목차 등 책의 구성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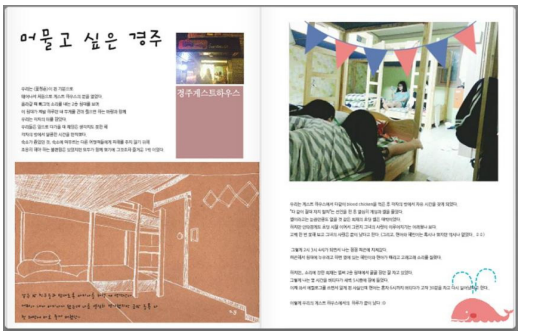
에세이북 만들기 안내

책의 구성 및 컨셉 정하기

⑦ 에세이북







○ 운영평가

- 공공도서관, 학교, 교육청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학교와 도서관 모두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독서와 교과의 연계방향을 희미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으며, 그 접근방법이 학생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다. 매 차시마다 자료실에서 참고자료를 미리 빌려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책상 위에 다양한 참고자료를 올려놓고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운영지원단 모두가 교사와 사서 모두에게 처음 시도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였기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며,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오롯이 학생들의 글과 사진, 그림, 편집으로 탄생한 한 권의 책은 운영지원단과 학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는 200%였다. 참가 학생들의 설문에 따르면 친구들과의 1박 1일 여행과 독서 런닝맨, PPT 제작 등 조별임무 수행과정 등 체험활동이 즐거웠다는 의

견이 많았으며, 그와 더불어 고리타분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과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독서토론캠프

독서행사를 진행하는 사서들은 모두 지속력이 있게 도서관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들은 행사 당일에만 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일회성 고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청소년들을 계속적으로 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우선, 책이 기본이 되는 독서토론을 주제로 잡고 2월은 독서토론캠프를, 3월~5월은 토론동아리, 5월은 독서토론대회 주관, 7월은 전국독서토론대회 참가로 연간 일정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독서토론캠프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다.

○ 운영대상 : 동해시 관내 중·고등학생 37명(중등 18명/고등 19명)
○ 운영장소 :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 운영지원단 : 동해교육도서관 사서 3명, 동해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서 1명, 교사 2명, (사)전국독서새물결 강사(4명)

○ 토론주제 및 토론도서

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주제	진로	디지털
토론 주제	진로 선택 시 안정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행복
토론 도서	〈행복한 진로학교〉 /박원순/시사인북 〈십대를 위한 직업콘서트〉/이랑/꿈결	〈스마트한 바보들〉/이진천/진한엠앤비 〈웰컴 투 디지털 월드〉 /믈라이브 기퍼드/중앙 M&B

○ 운영방법
- 독서토론의 다양한 모델 제시가 가능한 전국독서새물결 모임의 강사 섭외
- 원활한 캠프 운영을 위하여 토론도서 사전 배부
- 학생들이 참가에 불편함이 없는 인근의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 2일로 진행

○ 운영일정

시간		프로그램
1일차	12:30~13:00	등록 및 방 배정, 짐 풀기
	13:00~13:30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13:30~16:00	독서토론 특강
	16:00~18:00	이야기 식 독서토론(중등, 고등 각 2개조 편성)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교차질의 식 독서토론 안내 및 조 편성
	20:00~22:00	교차질의 식 독서토론 실습 후 상호평가
	22:00~	자유 시간 및 취침
2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안
	08:00~09:00	아침식사
	09:00~10:30	교차질의 식 독서토론 예선전 (중등/고등)
	10:30~12:00	교차질의 식 독서토론 결승전 (중등/고등)
	12:00	퇴소

○ 참가자 특전

- 참가학생들에게 교육장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발급(생활기록부 등재)
- 제1회 동해시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참가 자격 부여
- 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운영평가

- 독서토론의 이론 설명부터 실전까지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 상 1박 2일로 진행하였던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각기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 청소년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독서토론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방법을 인지한 후 실제로 토론에 임해본 결과 매우 흥미로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 캠프 2일차에 운영 예정이었던 독서토론 예·결승전을 위해 전날 밤을 새워 자료를 조사하고 책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등 적극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결과를 보여주어 운영단을 놀라게 하였다.

○ 관련사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

캠프 참가학생들에게는 책 선물을!

다.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캠프를 마치고 독서토론에 매력을 느낀 청소년들이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참가자들을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구성하고 총6회의 동아리활동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회차별로 주제와 도서를 선정하고, 교사가 토론을 진행하며, 사서는 책, 신문, 인터넷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고조되어 갈 무렵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캠프와 동아리에 참여하였던 학생들뿐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까지 함께 하였다. 모집결과 총 7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독서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운영대상 : 동해시 관내 중·고등학생 74명(중등 26명/고등 48명)

○ 운영지원단 : 동해교육도서관 사서 3명, 동해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서 1명, 강릉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서 1명, 교사 2명

○ 기본방향

- 대회진행방식은 이야기 식 독서토론(개인전), 팀 대항 독서토론(단체전)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선정된 도서를 사전에 안내하고 독서토론전문가의 진행 하에 독서토론 대회를 개최한다.
- 대회를 통하여 최종 수상자는 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토론주제 : 〈소비〉

– 세부논제 : 중등(청소년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하다)/ 고등(소비는 미덕이다)

○ 토론도서

– 이야기 식(개인전) 대상도서

구분	도 서 명	출판사	저자
중등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아이세움	마이클 샌델, 신현주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	미래인	안트예 스칠라트
고등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	이경	정지우
	징비록	서해문집	유성룡

– 팀대항 식(단체전) 대상도서

구분	도 서 명	출판사	저자
중등	윤리적 소비	메디치미디어	박지희, 김유진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뜨인돌	박지혜
고등	소비를 그만두다	더숲	히라카와 가쓰미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마틴 린드스트롬

○ 대회진행방법

구분	이야기 식(개인전)	팀 대항(단체전)
진행시간	60분	30분
진행방법	10명 내외 모둠별 토론	모둠별 리그, 토너먼트 형태
토론방법	이야기 식 독서토론	교차질의 식 독서토론
진행 및 심사	진행자 1명, 심사위원 2명	진행자 1명, 심사위원 2명
심사기준	– 배경지식 관련 내용 : 20점 – 대상 도서 관련 내용 : 30점 – 대상 도서와 관련한 인간 삶이나 사회 관련 내용 : 30점 – 토론 태도 : 20점	– 대상 도서 활용력(9점) – 논제 해결력(18점) – 발표력(9점)

○ 참여주체별 역할

<table>
<tr><th>공공도서관</th><th>교육청</th><th>학교</th></tr>
<tr><td colspan="2">사업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운영도서 제공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td><td rowspan="2">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주제선정, 학생인솔, 진행)
학생 대상 홍보 및
참가학생 선발
토론대회 심사지원</td></tr>
<tr><td>동아리 및 대회 장소 제공
교육도서관장상 및 상품</td><td>체험활동 확인서 작성
운영단 구성 및 회의 주관
학교-도서관 간
공문 수발 및 예산지원
교육장상 및 상품</td></tr>
</table>

○ 운영평가

- 캠프 참가 학생들의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과 토론대회에 참가하였다.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전국독서새물결 강사진은 토론대회의 질적 수준이 캠프 당시 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였고, 이는 동아리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독서토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거나, 교사와 사서가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였다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을 것이라 단언한다.
-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시간에 한계가 있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청에서의 확인서 발급, 관심 있는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인솔이 동아리 활동에 큰 역할이 되었다.

○ 관련사진

운영지원단 협의회

토론대회

열심히 토론에 임하는 학생들

운영지원단과 참여 학생들

※ 독서토론캠프, 대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TgAZjt3SE0o

2.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공동프로젝트

가. 독서런닝맨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 그런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면 그들의 흥미를 끌 만한 트렌디한 컨텐츠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기 TV 예능에서 제목을 따온 '독서 런닝맨'은 도서관 이용법과 자료 활용법을 체험을 통해 익히는 '체험형 도서관 이용법' 수업이다. 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도서관 이용법 수업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고려하여 기획해 보았다.

또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기획단계 협의회에서 알맞은 수업방향 설정과 필수적인 몇 가지 기준 확립을 선행했다.

첫째, 교육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즐거울 것

둘째, 도서관 이용법과 자료 활용법을 직접 체험하며 익힐 것

셋째, 청소년들의 독서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트렌디한 컨텐츠를 적절히 섞을 것

○ 운영대상 : 중, 고등학생

○ 참여기관

- 강릉교육문화관, 강릉교육지원청, 동해교육도서관, 동해교육지원청

○ 공동기획 및 운영 : 참여기관 사서 6명

○ 운영장소 : 강릉교육문화관 / 동해교육도서관

○ 운영방법

-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전체적인 컨셉과 각 장소별 미션 설정
- 각 도서관의 자료실별 특징을 살린 장소별 미션 설정

순번	미 션	내 용	비 고
1	오리엔테이션	참가자에게 행사 참여 방법 설명	
2	그림책 함께 읽기	동화 구연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함께 듣기	
3	단계별 미션장소 찾아가기	지도와 힌트만으로 팀원끼리 장소 찾기	도서관 자료실별 특징 알기
4	단계별 미션 수행 (5단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미션 수행 (단계별 소요시간 15분 이내)	미션 수행 과정에 따라 스티커 차등 지급 (단계별 최대 10개)
5	마무리	모든 수행 마친 후 결과발표 최종 미션 수행팀 우승 팀별 스티커 수에 따라 우정상 수여 *동률일 경우 독서퀴즈로 결정	우승팀/우정상 선정

○ 단계별 미션 운영방법

- 최종답지를 채우기 위한 문제 획득 시 주어지는 미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한 장면을 모티브로 진행
- 각 단계별 미션 운영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동화 속 장면에 알맞은 등장인물 컨셉으로 진행
- 각 단계의 문제를 풀고 난 후 그 답을 최종답지에 알맞게 조합하여 집어넣어야 최종미션 수행 가능
- 포스트 이동 시 시계토끼를 잡으면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 제공

순번	포스트	미 션	강 사	비 고
1	디지털자료실	분류기호 숫자 찾기	장O연	도도새
2	어린이자료실	소수점 아래 분류기호	안O희	나비
3	문화활동실	저자기호 숫자	전O영	줄무늬 고양이
4	문헌정보과 사무실	책 제목 힌트	최O자	모자장수
5	다목적실	책 제목 자음 제시	전O민	하트여왕
6	종합자료실	지정도서 속의 특정 페이지 속 문장을 휴대폰으로 찍어 사진 전송	윤O정	최종미션
7	도서관 내	장소 힌트	학생 도우미	시계토끼

○ 운영평가

- 행사 이름과 컨셉, 규모에 차이는 있겠지만 체험형 도서관이용법 수업은 여러 해 동안 도서관에서 시도해 왔었다. 그 동안의 도서관이용법 수업 후 결과보고에서 느꼈던 것은 수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기획자 외에 진행할 숙련된 도서관 및 도서 전문가가 여럿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 이 프로그램의 가장 고무적인 평가는 여러 사서들이 그동안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했던 도서관이용법 수업의 노하우를 종합하여 기획과 운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기관이 함께 운영하였기에 예산절감 효과에 더불어 인적자원 활용도가 뛰어났으며,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확연히 높아졌다.
- 또 여러 사서들의 참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학습해결 능력과 도서관 각 자료실의 역할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재미있는 컨셉 설정과 진행은 청소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친숙한 공간으로서 도서관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 관련사진

나. 추천도서목록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역시 '책'이다. 도서관 사업의 궁극적 목표 또한 '책'을 중심으로 한 읽는 행위 자체다.

이런 가치를 지닌 책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렇기에 적지 않은 부담도 따른다. 이런 부담을 줄여보고자 다양한 취향과 가치관을 가진 여러 사서들이 함께 책을 읽고 추천도서 목록을 정해보기로 했다.

추천도서목록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특히 지역교육청을 매개로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연계될 경우, 두 기관 모두에서 추천도서목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독서진흥행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자료 이용 효율성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으며, 타 추천도서목록과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다.

○ 운영대상 : 초등학생 (저, 중, 고학년) / 청소년

○ 참여기관
-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문화관/교육도서관

○ 운영방향
- 참여하는 모든 사서가 계층별 추천도서 1~2권씩을 직접 읽고 서평 제출
- 편향된 목록 선정을 막기 위해 TF팀은 성별, 연령, 업무 포지션 등을 고려하여 구성
- TF팀 구성원들이 취합도서목록의 도서를 모두 읽고 키워드를 축출하여 장르 및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 참여도서관의 방학특강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획 시 추천도서 목록 활용

○ 추천도서 선정기준
- 충실성 : 내용의 풍부성, 문학적 완성도
- 가독성 : 접근성, 표현의 적절성, 정서적 문화적 공감도
- 진솔성 : 바람직한 삶의 가치와 의미
- 확장성 : 다른 주제나 분야로 관심을 확장할 만한가?
- 다양성 : 목록구성에 있어 분야의 다양성

(*책따세 선정기준 참고)

○ 운영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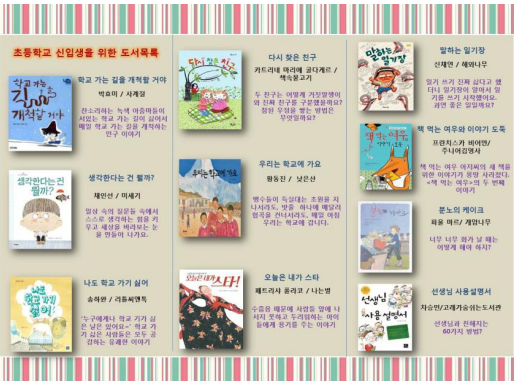
순번	단 계	내 용	비 고
1	추천도서목록 TF팀 구성	연령, 성별, 업무 포지션 등을 고려하여 TF팀 구성	참여기관 사서
2	선정기준 및 방법 수립	다양한 분야의 일관성 있는 목록 구성을 위한 선정기준 및 운영방법 수립	
3	도서추천	참여기관의 모든 사서는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계층별 1~2권 추천 및 서평 제출	
4	추천도서 취합	계층별, 분야별 추천도서 취합	
5	도서선정 1차 협의회	취합 된 목록 중 최종 선정목록 권수 및 분야별 권수 조정	

순번	단 계	내 용	비 고
6	도서선정 2차 협의회	도서 검증(T/F팀 전원이 취합도서를 읽음) 후 선정 회의	
7	도서선정 3차 협의회	서평 및 키워드 재편집 및 최종목록 확정	
8	공공도서관 및 학교 목록 배부	지역 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도서관 및 학교에 목록 배부 및 독후활동 독려	지역 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9	도서 구입	해당 도서 구입	학교, 공공도서관
10	목록 활용 독후활동 프로그램	추천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한 독서진흥행사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학교, 공공도서관

○ 운영평가

- 요즘 추천도서 목록은 너무나도 흔하다. 시즌마다 도서관 및 단체에서 경쟁하듯 만들어내다 보니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위주나 정말 읽어봤는지 의심이 들 만한 책들이 목록에 포함되곤 한다.
- 이번 사업의 목적은 유익하면서 재미있고 공신력 있는 추천도서목록 선정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학교, 학생 세 그룹이 트라이앵글 형태를 이루는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사서들이 목록을 제시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목록을 배포하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예 : 방학 필독도서, 독후활동 과제 등)하고 도서관은 추천도서목록을 들고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서는 물론 목록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시너지 효과는 물론 타 추천도서목록 선정 작업과 차별성을 나타냈다.

○ 추천도서목록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공동프로젝트

가. 도서관 이용안내 콘텐츠 개발

기존의 도서관이용안내 동영상을 찾아보면 도서관 에티켓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분류나 청구기호, 책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는 새 학기마다 도서관 이용법 교육자료에 대한 요청이 쇄도한다. 그러기에 신입생, 신규 사서, 도서관 근무가 처음인 직원을 위한 영상의 필요성을 느낀 사서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학교도서관을 타겟으로 제작했지만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이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다.

○ 사업대상 :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이용자
○ 참여기관 : 강원도교육청 산하 17개 지역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공동기획 및 운영 : 참여기관 사서 17명
○ 운영방향
- KDC 분류를 포함한 청구기호와 책 찾기 방법 안내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쉽게 구성
- 동영상 제작비용은 참여기관 전체가 분할 부담

○ 세부추진일정

세부일정	사업추진 내용	연계기관 및 장소	비고
3.25(화)	도서관 이용안내 동영상 콘텐츠 개발계획(안) 제출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동해
7.17(목)	도서관 이용안내 동영상 T/F팀 협의회 (미디어 팀과 연계 무산으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방향 전환)	강릉교육문화관	T/F팀 7명
7.22(화)~ 8.8(금)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초안 작정	온라인 협의	
8.12(화)	동영상 제작 관련 업무협의 (강원애니고 학생동아리 지원 형식으로 업무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산)	강원애니 고등학교	3명 (교육진흥과 강릉, 동해)

세부일정	사업추진 내용	연계기관 및 장소	비고
9.3(수)	콘텐츠 개발 2차 협의회 (지역청 별 100~200만원 내외의 예산을 갹출하여 외부업체 제작키로 결정)	동해교육지원청	
9.12(목)~ 10.10(금)	업체별 세부견적비교 및 캐릭터 시안 결정 1차 편집영상 모니터 및 평가분석	온라인 협의	
11.20(목)	콘텐츠 개발완료에 따른 3차 협의회 (최종 DVD 배부 및 기관별 홈페이지 탑재)	강원도교육청	

○ 소요예산(18,000,000원)

지역청	예산지원	지역청	예산지원	지역청	예산지원
춘천	1,000천원	태백	1,500천원	철원	1,000천원
원주	1,000천원	홍천	1,000천원	화천	500천원
강릉	1,500천원	횡성	1,000천원	양구	0
속초양양	1,000천원	영월	1,000천원	인제	0
삼척	1,000천원	평창	1,000천원	고성	0
동해	3,000천원	정선	2,500천원	**총액**	**18,000천원**

○ 활용방안

- 강원도교육청 통합교육문화관 / 교육도서관 홈페이지 탑재
- 강원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탑재
- 유튜브 사이트 탑재(https://www.youtube.com/watch?v=8T0bnp4YmqE)
- 1일 독서교실, 찾아가는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등 각종 연수자료

○ 기대효과

- 청구기호의 개념과 도서관 이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자료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어린 연령대의 이용자는 물론 도서관 신규발령자, 자원활동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등 이용대상의 확장
- 17개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정은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관련사진

Ⅲ 맺음말

2~3명의 사서가 일하는 열악한 환경의 도서관에서 매번 참신하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내기는 힘들다. 그렇기에 개별 도서관들의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독서진흥사업의 질을 높이면서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무협력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독서런닝맨의 경우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동해지역은 '창경궁 동무' 강릉지역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지원단은 품앗이 형태로 두 지역의 행사를 지원했으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의 질은 저 재미있고 유익하게 수정되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사서들의 교육청 배치라는 변화의 위기를 통해 학교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요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교사라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참여는 교과연계수업을 가

능하게 하였고, 학생들의 참여로 이어졌다.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체험활동확인서는 생활기록부를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형태의 접근이었다.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어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다시 참여하고 싶어 했으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참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행사의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와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에서 도서관과 사서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3~4명의 그룹을 지어 자료실에서 책을 찾고, 조사하려고 노트를 정리하는 모습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한동안 도서관을 떠났던 청소년들을 저녁마다,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와 자료실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도서관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났다.

협력 사업은 각각의 기관에 맞는 뚜렷한 특징적 역할이 중요하다. 저녁 시간마다 아이들을 다독여 도서관에 데려와 동아리를 진행하고, 교과과정에 없는 연계수업을 이끌어준 선생님들, 수업마다 관련 자료들을 미리 체크해서 요약자료를 만들고, 수십 권의 참고자료를 준비해준 공공도서관, 학교와 도서관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사서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세 그룹의 트라이앵글이 정확한 삼각형을 빚어낼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

구성원들은 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인터넷 카페와 업무용 메신저, 퇴근 후 주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 했으며, 사업 추진 시 공문을 통한 협의회 형식을 빌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 매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는 그 점이 협력 사업을 더 유쾌하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사막도 많고 정글도 있어 멀리 가려면 열악한 환경과 무서운 짐승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길동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아프리카의 속담이다. 사서인력 부족과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예산, 그보다 더 낮은 청소년 이용률 등 도서관의 열악함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것들을 뒤로 미루더라도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는 각각의 기관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의 능력을 어필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현장사례

장 려 상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공공도서관과 지역거점 기업연계를 통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디자인 모형 제시

: 수봉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강 성 준

(인천광역시수봉도서관)

목 차

Ⅰ. 수봉도서관 Designed Service 운영

1.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2. 수봉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
3. 서비스 운영 방법

Ⅱ. 지역거점기업 연계

1. 지역거점기업 연계 사례
2. 도서관과 기업 연계

Ⅲ. 수봉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사례 분석

1. 추진 배경
2. ‘ㄱ ㄴ ㄷ 이야기 학교’
3. ‘다시 만나 책 읽는 행복한 화요일’
4.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Ⅳ. Designed Service 운영을 통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방향

참고문헌

개 요

도서관이란 책, 잡지, 영상매체 등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 평생교육 시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요구할 때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서비스를 해왔고, 이러한 모습은 과거 도서관이 폐가제 시절일 때부터 계속되어 오던 관례처럼 여겨진다.

도서관이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바뀌고 진정한 의미의 참고봉사로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도서관은 전체적인 이용자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서비스는 단순히 이용자에게 재화(정보)를,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만 맞추어 제공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잠재적 이용자까지 예측하는 Designed Service로 확대되었다. 수봉도서관에서는 이러한 Designed Service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으나 공공도서관 단위에서의 한계범위는 명확하여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의 MOU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예산, 인력 등의 원초적인 문제에 걸려 완전한 해결은 어려웠다.

현재의 상황에서 수봉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힘만으로는 Designed Servie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로 눈을 돌렸고 지역 내 경제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지역거점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Design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수봉도서관의 Designed Service의 주대상은 잠재적 이용자 및 지역소외계층이었고, 21세기 서비스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 도서관의 이용자층 확대, 잠재적 이용자 발굴, 도서관 이미지 개선, 지역거점기업의 인식 확대를 꾀하려고 하였다. 점차적으로 21세기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수봉도서관에서 기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Designed Service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들의 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수봉도서관 Designed Service 운영

1.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21세기에 접어들며 우리 사회는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근무 형태의 변화(주4일/5일, 자택 근무) , 주5일제 수업의 도입 등 이러한 현상은 여가 시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수요 및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추어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자료의 보관과 열람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지식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야하는 문화센터로써의 역할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 동아리 활동, 작가 특강, 인문학 교실 등 도서관이라는 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도서관에서는 '홍보'라는 측면도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도서관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이용자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주제 선정과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서관은 찾아와야만 하는 대표적인 수동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수동적인 기관인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예산이나 지형적인 문제로 인하여 도심을 벗어나 외곽이나 고산지대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단순히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찾는 사람만 찾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용자가 되어 도서관을 방

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서관에 우연히 라도 올 수는 없는 것이다.

Browsing 과 Explorer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Explorer는 탐험, 답사의 의미로 Browsing은 실제 목적을 가지고 둘러보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과 연관이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Explorer의 형태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탐색을 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기호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각종 사이트, 웹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려는 요량으로 다양한 배너, 홍보를 하게 되고 이는 홍보, 접근성이라는 측면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Browsing의 경우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고 찾아가기 때문에 정보가 위치하고 있는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향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은 쉽게 지나치게 된다.

도서관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지형적문제로 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Explorer가 아닌 Browsing의 형태를 띄고 이로 인하여 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공간, 신규 인원의 유입이 힘든 그러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현상을 우려한 선진국에서는 아예 도서관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과 건립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1] 프랑크푸르트(Frankfurt)시의 도서관은 주 보행자 중심 거리이자 상업의 중심지인 최대번화가 자일(Zeil)거리에 위치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대 공공도서관을 교육적·문화적 특성을 가진 상업적 중심에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키우는데 일조하였으며 징엔(Singen)시 역시 상업중심지에 도서관을 건립, 뮌헨(Munich), 테트낭(Tettnang)시 역시 동일하게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헤멜(Hameln), 라벤스부르크(Ravensburg)시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역사적인 건물, 백화점 또는 은행 같은 기존 건축물을 도서관으로 개축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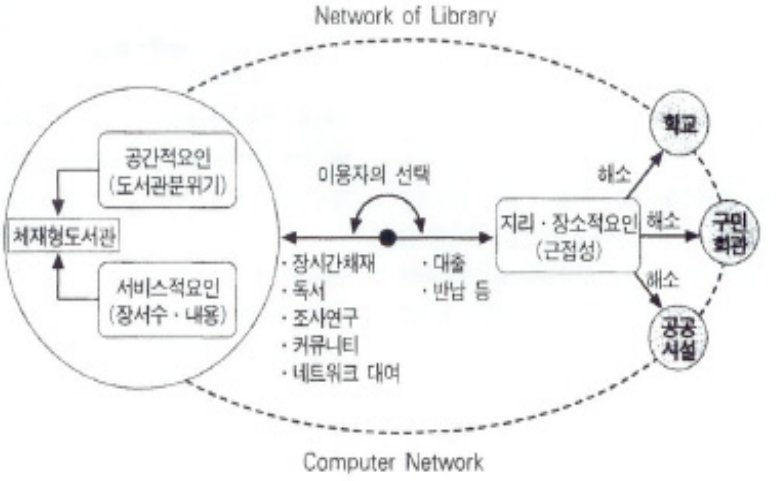
일본의 도심지 공공도서관 이용 행동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도서관 선택이유로는 첫 번째가 접근성, 두 번째가 자료의 충실, 세 번째가 도

1) 한유선,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200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관의 분위기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 역시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도심중심지, 마을 네트워크의 중심부 등에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미국 역시 단순히 도서관을 '책을 빌려 보는 장소'로 국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서 커뮤니티, 네트워크 기능에 중점을 두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많은 분관을 두어 이용자들이 최대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고 Explorer 할 수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1]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시 할 부분은 자료의 구축 및 보존, 열람 공간이 아닌 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이다. 이러한 이용 접근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이러한 이용 접근성 측면에선 매우 부족하며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과 맞물려 도서관은 '공부'하기 위한 장소라는 인식이 더욱 높은 것이 현실이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 2007 이용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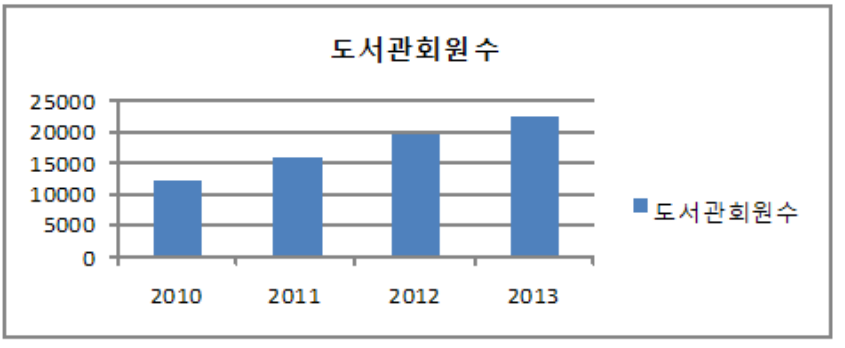
	성인	학생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례수(명)	688	1,472	466	459	547
일이 바빠서	43.3	20.8	27.3	24.0	12.6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	33.0	13.5	7.5	16.3	16.3
집에서 멀다	14.7	38.2	38.4	34.9	40.8
직장, 학교 도서관을 이용	2.5	10.4	12.0	6.8	12.1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1.0	1.5	0.4	1.5	2.4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접근성의 불리함,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이용, 신규 이용자 유치 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물리적인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의 기대치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며 나아가 Explorer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자로 전환 될 수 있는 도서관을 위하여 해결책으로 도서관 Designed Service를 제안하는 바이며 실제 인천 수봉도서관의 사례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한다.

2. 수봉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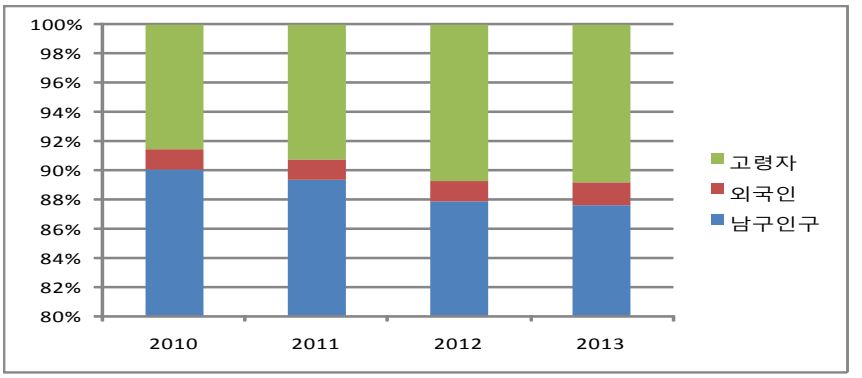
현재 개관 후 6년이 지난 수봉도서관은 지역대표문화기관으로서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한다. 매년 도서관 방문자와 도서관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증가된 이용자들과 의식수준의 함양에 따라 도서관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림 2] 수봉도서관 회원수 변화 추이



주목할 점은 회원수 비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들이 2010년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학생과 20~50대층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상승과 더불어 어르신, 외국인 이용자들도 그만큼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프로그램 및 행사가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지만 이제는 어르신,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은 취약계층(어르신, 외국인)의 이용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증폭된 관심만큼 도서관을 알지 못해서, 또는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 이용자의 수가 그 만큼 더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추론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인천 남구 지역 인구 변화 추이 –그림3–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인천 남구 지역 내 어르신과 외국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도서관 이용자들뿐 아니라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층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그러한 잠재적 이용자들을 위한 홍보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을 위한 Designed Service가 필요한 것이며 수봉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Designed Service를 적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서비스 운영 방법

Designed Service의 주 키워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잠재적 이용자 발굴', '협력기관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대상(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진행되던 독서프로그램에서 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가 기존의 독서프로그램에 '멘토+멘토링' 프로그램, '시설관리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서관의 접근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많은 도서관들은 도서관 홍보,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지역사회) 등 도서관을 찾아 올 수 있게 만드는데 주력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공부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적 이용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변환이다. 찾아와 주고 이용해 주길 바라는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서비스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봉도서관이 착안한 Designed Service가 바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된다. 초창기의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렵고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활용되어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활용되었다.

현재 수봉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주 대상층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과 같이 물리적인 이유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힘든 전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도서 대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서비스, 시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해 사서와 도서관이 직접 찾아가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도서대출, 독서프로그램 등을 접하게 된 '잠재적 이용자'들은 지속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배제하고 점차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고 도서관 이용, 대출, 프로그램 참가 등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변모하고 있다. 앞으로의 Designed Service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취약계층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직접 파고들어 능동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는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대출 및 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주부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지역 커뮤니티(사랑방, 아파트 내 단지)를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과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의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도서관의 인식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및 움직이는 도서관을 보게 된 다른 '잠재적 이용자'층도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러나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현재의 공공도서관 구조에서는 쉽게 운영하기 힘든 제약조건이 많다. 가장 큰 제약조건은 도서관의 운영형태와 더불어 예산 부족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사서들은 기본적으로 자료실 운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료실을 떠날 수 없고, 도서관 밖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거나 참여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역시 도서관의 예산 부족 문제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언제나 필요보다 많이 부족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도서관은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권한도 없다.[2] 도서관의 예산은 크게 '인건비', '자료 구입비', '기타 운영비'로 나뉘게 되고 '인건비'와 '자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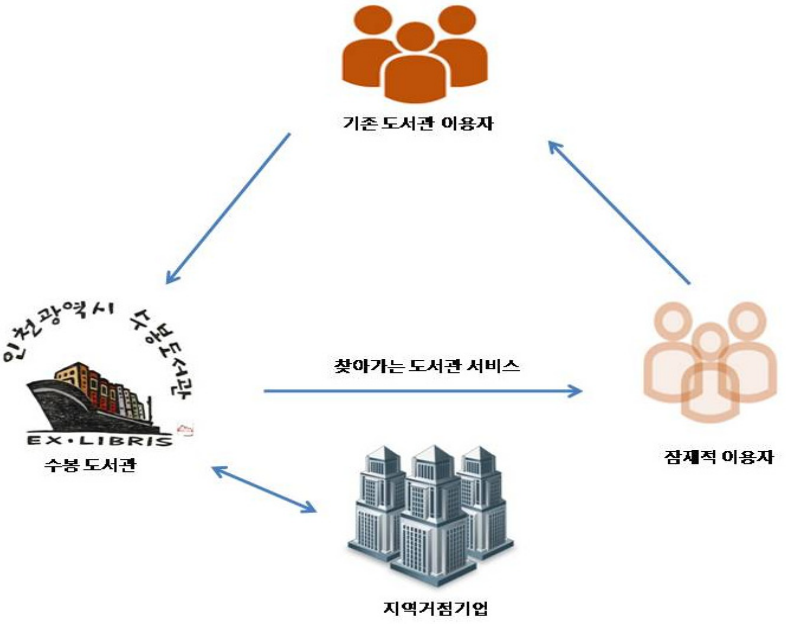
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크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외부로 이동이 가능한 차량(도서 및 장비 탑재도 필요)과 독서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등이 기본으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서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운영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에서도 좋은 줄은 알지만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이다. 이러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거점기업과의 협력'이다. '지역거점기업'은 지역구성원들이 주노동자가 되고 노동자들이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에서 살아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거점기업'은 지역구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기업의 주 고객층 역시 지역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이윤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역에의 환원, 기업이미지에 많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지역구성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지역거점기업'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점차 가속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미지 확보 및 사회 환원의 노력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지역거점기업'들도 지역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지역사회 환원에 힘쓰게 되고 기업들도 기업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층뿐만 아니라 '잠재적 소비자층'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소비자층'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비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2) 송경진, 공공도서관 재원조달 개선방안 연구, 201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그림 4]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접점 확대라는 지역 거점기업의 요구를 활용, 도서관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를 통하여 도서관과 '지역 거점기업'은 Win-Win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혜택은 온전히 지역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Designed Service를 통해 기업과 도서관의 연계 구조를 구성하여 도서관에서는 지역구성원(잠재적 이용자층 포함)들과 직접 접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은 지역 거점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기본 형태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성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물품, 차량, 예산등의 지원을 지역 거점 기업이 제공하고 도서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기업 이미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홍보 모델이 되는 것이다.

필립 코틀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다"면서 "그것은 기업의 성장에 적잖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착한 소비', '공정 무역'등의 키워드로 기

업들은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이익 획득을 넘어서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부,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 근로자 권익 향상 등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위하여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신강균, 2008) 이러한 CSR은 결국 브랜드 이미지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현재 무한 경쟁시대의 시장에서는 제품의 질만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삼을 수 있는게 아닌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의하여 이용자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SR과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홍보, 사회 환원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기업과 도서관 연계 사업은 마케팅, 홍보, 사회 환원 모두를 만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 수봉도서관 Designed Service 개념도

Designed Service	찾아가는 도서관	잠재적 이용자 (취약계층)	지역거점기업 연계
잠재적 이용자 도서관 이용이 불가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능동적 도서관 서비스	어르신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	예산, 인력 지원 도서관-기업 이미지 혁신

Ⅱ 지역거점기업 연계

1. 지역거점기업 연계 사례

1960년 후반에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지역사회의 경제창출, 소비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었으나 지역민 이주의 아픔과 환경오염 및 각종 안전사고 등 지역

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지역기여도가 낮고 사회적 책임 또한 지역민의 요구 수준과 다소 괴리가 있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3] 2000년 대 들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표 기업인 'GS 칼텍스'가 공익재단을 출범하여 사회환원사업을 하며 지역기여도를 높이며 지역구성원들을 위한 사회환원을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거점기업은 위와 같이 지역구성원들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구성원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통하여 함께 공생하는 관계를 가지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의 형태는 크게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직접기부'로 나뉜다.

'재단' 사회공헌은 'GS 칼텍스'와 같이 기업이름을 가진 재단을 출범하여 기업이 후원을 하고 재단에서는 사회활동을 운영하는 형태로 기업에서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사회환원을 동시해 하고 있다.

[그림 6] 기업과 도서관 네트워크

커피&베이커리 북카페 '팬도로시'와 서울대학교 도서관 협약

판교 청소년 수련관 지역기업과 손잡고 착한기업과 공감멘토를 주제로 100인 네트워크 사업 운영

'직접기부'는 특정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기금 제공, 기업 생산품이나 장비제공뿐만 아니라 기업 소속 직원들이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물적/인적 기부의 형태이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과거에는 대기업에서만 진행했으나 최근에

3) 김창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2006,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는 지역의 중소기업, 거점기업에서도 지역구성원들을 위하여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그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 이동 및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은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연구의 중심이 되는 인천시 남구의 산업체 수는 26,398개이며 112,000여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인구가 400,000명 선으로 약 4분의 1일 이상이 지역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4인가족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사업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은데 이는 인천남구의 지역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2. 도서관과 기업 연계

도서관과 같은 특정 공공기관은 각각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관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정체성은 바로 독서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도 도서관 고유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한계를 규정짓기도 하며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독서 동아리 활동, 특강,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 시 강사료,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한정적이고 예산의 규모가 크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 도서관내에서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점차 도서관에서도 북콘서트, 리빙콘서트와 같이 도서관을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기획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도서관의 정체성 및 예산이라는 측면에 부딪히게 된다.

도서관 외부에서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북콘서트나 리빙콘서트는 예산과 더불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 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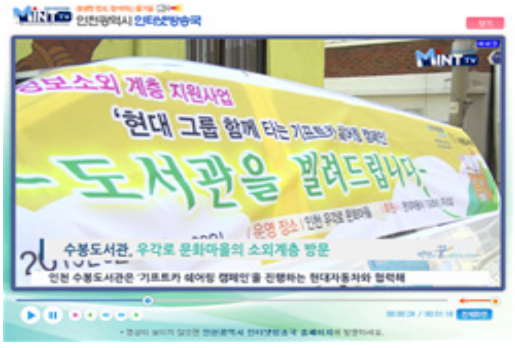
[그림 7] 인천 지역 도서관 외부 행사(리빙콘서트, 북콘서트)

2014. 07. 리빙콘서트

2015. 03. 세계책의 수도 북콘서트

리빙콘서트나 북콘서트 등의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도서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지역공공도서관들이 지역거점기업들과의 연계를 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지역거점기업 역시 도서관과의 연계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림 8]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운영 사진



수봉도서관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 방송 장면

수봉도서관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 현대, 조일산업 연계

수봉도서관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현대그룹과 조일산업은 물적 자원 제공(차량, 도배물품 일체)만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홍보와 브

랜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방송 매체 홍보) 이는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도서대출, 독서프로그램운영, 시설관리(도배 및 전기작업)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기업의 사회 환원(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이상으로 홍보와 기업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Ⅲ 수봉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사례 분석

1. 추진 배경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며 노인 인구의 수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의 교육, 경제, 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와 기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노인교육은 단순 여가활동(노래, 춤 등)에 그쳤으나 평생학습이 권장되며 노인들도 전문적이고 학습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된다.[4]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인층의 프로그램 참여는 저조하게 되고 상승하는 노인층의 학습욕구와는 반대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폭은 저하되었다. 노인들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 장소 등에 변화를 주어 참여율 상승을 기대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수봉도서관은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 수봉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산세가 가파르며 지역주민들의 연령층 및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

4) 박정아, 공공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높아져 도서관에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까지 폭을 넓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본문에 언급한대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로 인하여 운영이나 이용자 참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Designed Service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ㄱ ㄴ ㄷ 이야기 학교', '다시 만나 책 읽는 행복한 화요일',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2. 'ㄱ ㄴ ㄷ 이야기 학교'

[그림 9]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우각로 문화마을

'ㄱ ㄴ ㄷ 이야기 학교'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을 벗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로써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우각로 마을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터를 잡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개발없이 판자촌 등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마을로써 대부분의 거주자는 노인들이 많으며 가파른 산길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우각로 지역에 2011년 10월부터 지역예술가를 중심으로 '우각로 문화마을'을 설립하여 주민, 행정이 함께 마을 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다. 1970·80년대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각로 지역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인천광역시 남구의 문화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림 10] 우각로 문화마을 전경

수봉도서관의 서비스 지역이기도 한 우각로 문화마을의 노인들을 위하여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ㄱ ㄴ ㄷ 이야기 학교'를 운영하였다. 마을에 있는 '그림책 사랑방'에서 평생학습의 수요가 있는 마을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한글독해교육,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도서관의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배제하고 '잠재적 이용자'층이었던 노인을 도서관 이용자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표 2〉 'ㄱ ㄴ ㄷ 이야기학교' 프로그램 참가 실적

구 분	운영 횟수	접수인원	참가인원
2013년	21회 운영	140명	121명
2014년	20회 운영	210명	196명
2015년	10회 운영(상반기)	85명	70명

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노인들은 도서관 방문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여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국에서의 차량지원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ㄱ ㄴ ㄷ 이야기 학교’를 통해 노인들은 삶의 활력과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도서관에서도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에서는 잠재적 이용자층 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국에서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win-win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협력을 통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다른 기관과의 접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된 점이다.

2015년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국과의 네트워크 구성 이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중이며 2013, 2015년에는 남구 평생학습 우수사례로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11] ‘ㄱ ㄴ ㄷ 이야기학교’ 운영 사진

3. ‘다시 만나 책 읽는 행복한 화요일’

‘다시 만나 책 읽는 행복한 화요일’은 2011년 11월부터 지역 내 유관기관인 송암전자도서관과의 연계를 시작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수봉도서관내 자료를 활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도서관이 수혜 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이다.

사업대상으로는 지역거점기업의 기증으로 개관한 ‘인천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빈첸시아의 집(모자공동생활가정)’을 선정하였고 MOU협약을 통해 신체장애와 자폐 등 지적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지원을 목표로 도서관에서는 전문적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 아동들의 학습 및 독서흥미 유발을 북돋았다.

〈표 3〉 ‘다시 만나 책 읽는 행복한 화요일’ 운영 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사업대상	남구장애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빈첸시아의 집	남구장애인복지관
운영기간	2011.04. ~ 10.	2012.04. ~ 10.	2013.02. ~ 10.	2014.09. ~ 11.
프로그램	독서지도사 및 사서와 함께하는 독후활동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 및 독후활동	독서프로그램 및 특강
실 적	29회 202명	26회 257명	32회 282명	10회 85명

2011년~2014년(2013년 제외)동안 '인천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 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전문가와 사서가 중심으로 독서흥미 및 어휘력 검사를 시작으로 아동들의 관심과 집중력을 높이는 독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여 독서, 독후활동을 병행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학습능력 상승, 자발적인 독서습관 습득, 활발한 독후 활동 참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사파견과 예산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함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에서 소리 나는 그림책, 점자도서, 팝업북 등을 지원하여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독서교육과 특강을 운영하여 가정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단순히 장애아동만을 위한 독서 및 도서관교육이 아니라 부모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가정 전체가 독서 및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2] '다시 만나 책 읽는 화요일' 프로그램(남구장애인복지관)

2013년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빈첸시아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빈첸시아의 집'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자립활동을 할 수 있게 주거지 제공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거점기업과 인천시의 후원으로 운영 중이다. 일반가정에 비하여 자녀교육, 학습교육, 독서교육에 관한

정보와 접근성이 떨어지며 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사정상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빈첸시아의 집' 모자를 위하여 전문지도사와 사서가 직접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독후활동과 더불어 참가자 전원에게 도서를 지급하였고 차량을 지원하여 직접 도서관에서 문화체험활동도 참가하였다.

[그림 13] '다시 만나 책 읽는 화요일' 프로그램(빈첸시아의 집)

'다시 만나 책 읽는 행복한 화요일'은 장애인, 결손 가정과 같이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유관기관과 거점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잠재적 이용자들을 위한 능동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2015년 현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수봉도서관 Designed Service의 대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4.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도서관과 사서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운영된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역 내 일반 가정 및 소외계층과의 심층면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4〉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구성

구분	책을 빌려드립니다	선생님을 빌려드립니다	장인을 빌려드립니다
개 요	도서관을 방문할 여건이 안 되는 소외계층에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과 책을 빌려주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취약한 국어, 역사, 사회와 같은 과목에 큰 어려움을 느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를 수용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시설관리를 진행
운영 내용	책(독서교육), 동화구연 책 읽어주기 진행	학습 지원(국,영,수 등) 1:1 멘토링 프로그램	시설 관리(수리 및 보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타 사항	사서 및 자원봉사자 독서지도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멘토-멘티시스템 구축	도서관 시설담당 관계자의 인력 및 기업 물품 지원

첫 번째 '책을 빌려드립니다'는 도서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도서관을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과 책을 함께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독서교육, 소외계층의 수요와 수준에 맞는 도서 추천과 대출, 도서관 내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하여 독서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두 번째 '선생님을 빌려드립니다'는 소외계층 중 다문화 가정과 결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인근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하여 멘토-멘티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세 번째 '장인을 빌려드립니다'는 지역거점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활 여건이 어렵거나 생활시설의 개선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시설개선과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은 특히 지역거점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14]
현대기업과 함께하는
기프트카 쉐어링
프로그램

〈표 5〉 '2015년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상반기 운영 일정

일 시	운영 내용
02/25	✓ 차량 수령 (현대차 기프트카 쉐어링) ✓ 시설 관리용 운영 물품 구비 ✓ 도서 및 프로그램 세팅
02/26 ~ 03/12	✓ 독거노인(홍숙희) 자택 방문(10:00~14:00) – 책 읽어주기, 한글 교육 프로그램 등 진행 – 시설 관리(전기 기구 보수 및 교체, 자택 보수 등)
	✓ 독거노인(조성옥) 자택 방문(14:00~18:00) – 책 읽어주기, 한글 교육 프로그램 등 진행 – 시설 관리(도배 및 청소)
03/12 ~ 04/06	✓ 독거노인(이종림) 자택 방문(10:00~14:00) – 책 읽어주기, 전통 놀이(투호) 등 진행 – 시설 관리(옥상 수리, 전기기구 교체 등)
	✓ 독거노인(박말순) 자택 방문(14:00~18:00) – 책 읽어주기, 전통 놀이(윷놀이) 등 진행 – 시설 관리(도배 및 청소)

우각로 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과 한글독해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전기작업과 도배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관리를 위한 물품은 지역거점기업에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5] '장인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그림 16]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 운영 사진

지역거점기업에서는 차량 지원(인원 및 물품 수송), 물품 지원(시설관리 물품-도배물품, 전기 물품 등), 운영 지원(프로그램 보조)을 통해 도서관 단독으로는 진행이 힘들었던 주택 보수 관리(도배, 전기 등)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가정에게 책과 독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경험한 소외계층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위에 전파를 하였고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알지 못했던 소외계층과 잠재적 이용자들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Ⅳ Designed Service 운영을 통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방향

도서관은 지역대표문화기관으로써 지역의 문화, 교육, 여가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 주민 모두가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의 상황상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 아는 사람만 알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도서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같이 언제든 도서관 이용자가 될 수 있지만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잠재적 이용자층 발굴은 도서관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부분으로 항상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우리들은 도서관의 물리적 제약이나 예산부족을 탓하기 보다는 그간의 수동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모색해야 하겠다.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잠재적

이용자층을 확실한 도서관 이용자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봉도서관에서는 지역거점기업과의 연계,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Designed Service의 운영모델을 시도했으며, 이 모델의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의 인식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는 처음에는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위해 그들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이었으나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소외계층 전체를 위한 서비스로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가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도서관과 사서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과 지역거점 기업의 지원이라는 커다란 두 기둥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수봉도서관의 2015년 찾아가는 서비스 '도서관을 빌려드립니다'를 간단히 요약함으로 Designed Service 운영을 통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결론에 대신 하고자 한다.

구 분	책을 빌려드립니다	선생님을 빌려드립니다	장인을 빌려드립니다
개 요	도서관을 방문할 여건이 안 되는 소외계층에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과 책을 빌려주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취약한 국어, 역사, 사회와 같은 과목에 큰 어려움을 느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를 수용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시설관리를 진행
운 영 내 용	책(독서교육), 동화구연 책 읽어주기 진행	학습 지원(국,영,수 등) 1:1 멘토링 프로그램	시설 관리(수리 및 보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 타 사 항	사서 및 자원봉사자 독서지도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멘토-멘티시스템 구축	도서관 시설담당 관계자의 인력 및 기업 물품 지원

▌참고문헌

김창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2006,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박정아, 공공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송경진, 공공도서관 재원조달 개선방안 연구, 201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유선,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200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현장사례

장 려 상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 사례

: DGIST 학술정보관을 중심으로

김경아 · 손소영

(DGIST 학술정보관)

목 차

Ⅰ. **서 론**

1. 큐레이션의 정의: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다!

Ⅱ. **D-큐레이션 서비스 도입 배경**

1. DGIST 내부 환경의 변화
2. 외부 환경의 변화

Ⅲ. **D-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1. 1단계 구축
2. 2단계 구축

Ⅳ. **D-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1. Media채널별 제작과정 및 콘텐츠 운영
2. 이용 목적별 콘텐츠

Ⅴ. **결론 및 제언 : 콘텐츠 홍보 및 협력 방안**

개 요

DGIST의 학술정보관 개관과 함께 구축, 시작된 "D-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D-큐레이션은 DGIST 학술정보관에서 2014년 학술정보관의 개관과 함께 새롭게 구축 및 오픈한 서비스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아닌 전문가(큐레이터)가 선정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사례로는 국내 도서관 최초이다.

DGIST 구성원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와 학생의 변화된 정보 소비 패턴을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술정보서비스, 주제전문서비스로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디지털(Digital) 학술·문화 콘텐츠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서 등 콘텐츠 큐레이터에 의해 큐레이션 된 콘텐츠는 DGIST 학술정보관 내의 대형 미디어월(MediaWall)과 키오스크(Kiosk) 등의 미디어 장비, 독립된 웹사이트[1], API를 통한 도서관 홈페이지[2]와 내부 학생 및 교직원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채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되고 있다.

1) D-큐레이션 페이지: http://curation.dgist.ac.kr
2) DGIST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dgist.ac.kr

Ⅰ 서 론

1. 큐레이션의 정의: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다!

가. 큐레이션이란?

오랫동안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큐레이터'가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일컬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무수한 정보 중 검증된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골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서비스를 '큐레이션'[3] 서비스라 한다. 디지털 콘텐츠뿐 아니라 이를 신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황에 맞는 그날의 의상 등 스타일링을 제공해주거나, 매달 제철 농산물 꾸러미를 선정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큐레이션'서비스로 일컬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나. 도서관 분야에서의 큐레이션이란?

한편, 도서관계에서는 특정 주제 분야의 책 등 실물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수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북)큐레이션[4]'과 디지털 자원을 수집, 보존, 아카이빙(Archiving)하는 것을 지칭하는 디지털 보존소(리포지터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디지털 큐레이션'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DGIST와 같이 소셜미디어, 뉴스, 웹링크,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및 사진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소셜 큐레이션'이 도서관 서비스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위의 모든 정의를 종합하자면 '큐레이션'이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여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여 제공하고 보존하는 것[5]'으로 통칭할 수 있다.

---

3) 큐레이션(curation):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4) Design Library, Travel Library, Music Library 등을 오픈한 현대카드도서관은 전 세계 그 분야의 유명인을 '큐레이터'로 하여 책, 지도, 음반 등의 다양한 자료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다.

5)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 디지털 자원을 제공, 보존, 유지, 수집, 아카이빙(Archiving)하는 것을 지칭한다. 넓게 보면 현재와 장래에 이용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유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로 해석할 수 있다. - 도서관 연구소 웹진(vol. 32) 도서관 용어해설

Ⅱ D-큐레이션 서비스 도입 배경

1. DGIST 내부 환경의 변화

가. 학위과정 신설 및 학술정보관 개관

2004년 9월 연구 기능으로 처음 출범한 DGIST는 2011년 3월 석·박사 학위과정에 이어 2014년 3월 학부과정이 신설되어 명실공히 교육과 연구가 공존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무학과 단일학부의 학부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술정보관을 비롯한 최첨단 학위과정 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완공되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DGIST 학술정보관은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가는 출판 동향을 반영하여 단행본 단 10만 권만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도서관이자 기숙사와 각 전공 건물에 일반적인 열람실(독서실) 기능을 내어주면서 콘텐츠와 공간,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이 아닌 첨단 정보기술이 집약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융합된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DGIST 학술정보관이 설계된 2010년 전후 개관한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미디어월(MediaWall) 등의 미디어 장비의 도입이 예정되어있었으나 미디어 장비에서 보여 줄 콘텐츠는 기관 홍보영상, 사진 등 외에 별다른 차별화된 계획이 없어 '도서관에 오면 항상 새로운 정보가 넘쳐난다'는 인상을 주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대, 시점이었다. 미디어 장비는 물론 웹에서 가상의 서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D-큐레이션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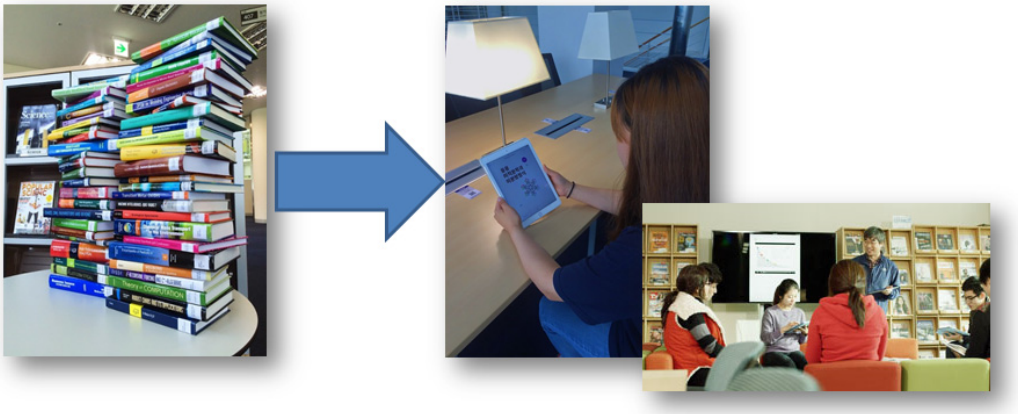
[그림 1] DGIST 연구 및 학위 시설 전경: 연구동과 학사동 사이의 학술정보관

나. 전 과목을 e-Book으로 공부하는 DGIST 학부생들과 도서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DGIST의 기초학부생들은 DGIST의 융복합 철학을 담아 담당 교수들이 직접 집필하고 자체 개발한 이펍(epub) 기반의 융복합 전자교재(e-book)로 제작하여 학습하고 있다. Crossover, Interactivity, Ubiquity, Easy update, 3D-animation 등을 5대 특징[6]으로 하는 주 교재 외에 필요한 부교재나 참고자료 역시 그에 걸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콘텐츠란 전자책이나 저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MOOC 강좌, Youtube 영상,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웹DB나 소셜미디어 어느 것이든 될 수 있다. 이 중 강의에 꼭 필요한 믿을 만한 콘텐츠를 골라 제공해준 것이 D-큐레이션 서비스의 목표 중 하나이다.

6) DGIST 전자교재(e-book)의 5대 특징: Crossover(자유로운 학문 간 교류로 융복합 사고력 제고), Interactivity(학생과 교수의 실시간 상호작용), Ubiquity(교내 인터넷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Easy update(최신 정보에 대한 손쉬운 업데이트), 3D-animation(과학의 시각화)

[그림 2] DGIST의 융복합 철학을 담은 전자교재로 공부하는 DGIST 학부생들



2. 외부 환경의 변화 : 조각나고 개방되고 공유되는 정보와 이용자 행태의 변화

가. 책을 읽지 않는 이용자들

2014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독서량은 꾸준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다양한 뉴스 매체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서관의 관종을 불문, 도서관의 다양한 '이용자 모시기'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는 이용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학 또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이 아니라 책을 보는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되었다. 이용자들은 정말 책을 읽지 않고 있을까?

나. 조각난 정보들: 전 세계 출판 동향의 변화

이용자가 인쇄된 형태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더는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facebook 등의 소셜미디어와 뉴스 채널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정보, 지식, 노하우를 얻고 있으며, 웹툰과 유투브(Youtube) 등의 동영상 채널을 통해 더욱 더 생동감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문이나 저널, 백과사전 등의 참고정보와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조각 나 있던' 정보들은 그 변화가 단행본보다 빨랐다. 신문을 예로, 인쇄 신문은 지하철에서 읽기 쉬운 작은 '타블로이드 (인쇄)신문' 형태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신문'으로,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방대한 정보들 사이에서 헤드라인만 빠르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이미지 중심의 '카드형 뉴스'로, 시계형 스마트 장비의 등장과 함께 더 작은 기기에서 읽을 수 있는 '한줄 뉴스'로 진화하며 그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난 250여 년간 도서관 한 켠을 지켜오던 오랜 전통의 브리태니커는 지난 2012년 인쇄본 출판을 중단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개정될 것을 발표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링크 기능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수정하고 무한한 확장을 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자리를 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 전자책(e-book)이 책의 미래일까?

그 변화가 가장 느린 것 같은 단행본마저 웹툰이나 웹소설 또는 시[7]로 변화를 시도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DGIST 학술정보관에서 2015년 대출 상위권의 자료는 '미생', '송곳'과 같은 웹툰으로 연재되어 인기를 얻어 다시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으로 이들은 단행본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으로 그 형태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인쇄된 책을 단순히 그대로 디지털 변환하여 제공하는 전자책(e-book)이 책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여전히 볼 만한 콘텐츠가 풍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책을 읽기 위해 전용 뷰어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고 읽는 수고로움이 있다. 진득하니 앉아 책을 읽어내려 갈 만한 여유가 없어진 까닭도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용자들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Container)가 변화된 형태로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나아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인쇄되어 엮여진 형태로 보는 것이 편리했던 콘텐츠가 스마트폰과 같은 장비(Device)에서 보기 쉬운 형태로 다시 조각나고 있는 것이다.

---

7) 하상욱의 시는 2013년 대한민국을 그 기발함으로 웃겨주기도, 짧은 글과 제목으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캡쳐로 떠돌던 시(2012, '서울시')는 무료 전자책 출간에 이어, 인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책 뿐 아니라 최근 각종 미디어의 경향을 보면 비정형적인 형태 그리고 점차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있는'것 같다. 위의 책 또는 미디어의 출판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은 더 이상 적어도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던 '책'의 형태만으로 정보를 구하지 않는다. DGIST 학술정보관에서는 책이 점토판, 파피루스부터 종이책, 전자책으로 그 모습을 변화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변화된 책의 모습을 맞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 시기로 판단했다. 웹 상의 무수한 조각난 콘텐츠를 모아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는 D-큐레이션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책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자 연습이다.

라. 정부 3.0과 Open Access, 공개를 요구하는 환경

이용자(연구자)들이 정보전문가들 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자신의 논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Open Access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가 하면, 다양한 연구자 프로필 관리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8]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서 더 이상 좋은 정보는 아니다. Open Access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도서관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해 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논문을 쓴 저자로부터 직접 요청하여 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정보 소비가 도서관에서 구독 또는 구입하여 제공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양질의 무료 자원까지 폭 넓게 확대됨에 따라 사서들도 이 같은 열린 자원들을 공부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D-큐레이션은 이와 같은 연구자의 변환된 정보 소비 경향을 이해하고 Open Access Resource를 빠르게 찾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이다.

Ⅲ D-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학술정보관 개관, 독특한 기초학부 교육과정과 철학 등의 내부 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공개와 공유 환경, 책에서 모바일 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담는

8) researchgate.net, mendeley.com 등

컨테이너의 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DGIST 학술정보관은 2014년 2단계에 거쳐 D-큐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 1단계 구축

가. 구축 시기 : 2014년 3월~6월(3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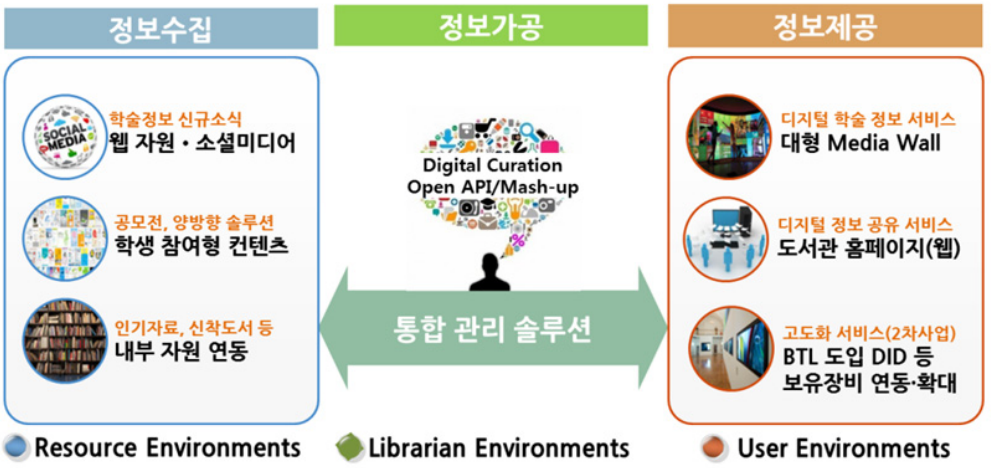
나. 구축 목표

○ 대형 MediaWall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학술자원의 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웹 자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학습 정보 제공
○ 구입 및 구독자원의 홍보를 통한 이용률 및 이용자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디지털 정보 큐레이터로서의 전문 인력(사서) 역량 향상
○ 최첨단 정보기술과 인문학을 접목하여 정보 서비스 효과 극대화

다. 주요 내용

○ DGIST 학술정보관 1층 대형 MediaWall 구축 및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 도서관 홈페에지 내 웹 큐레이션 페이지 제작

[그림 3] D-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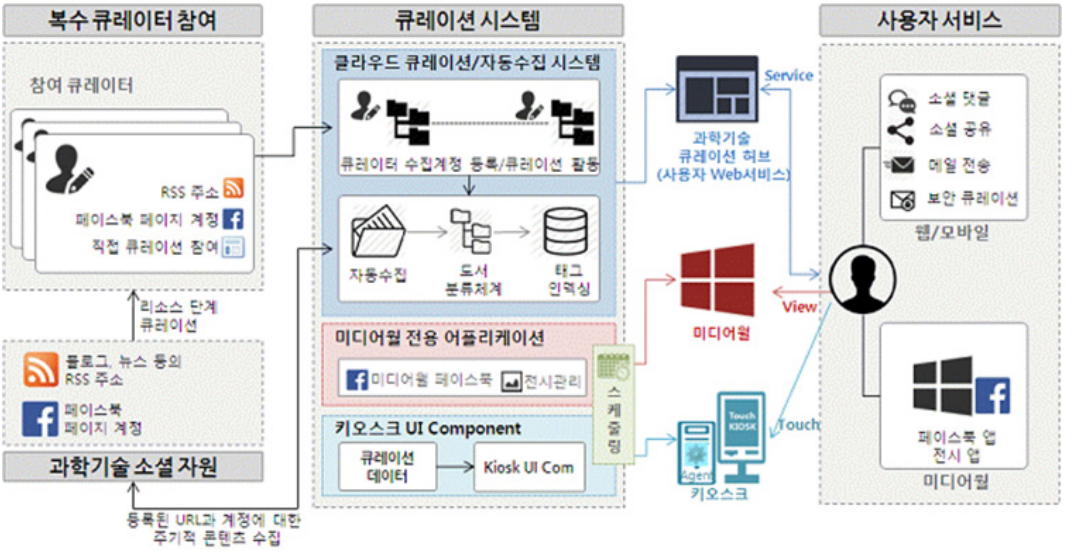
2. 2단계 구축

가. 구축 시기 : 2014년 10월~12월(3개월간)

나. 구축 목표

○ 도서관 최초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으로 새로운 정보서비스 모델 구현
○ 단일 관리자가 아닌 복수의 큐레이터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 독립된 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술정보관 내 핵심 서비스로 구축
○ facebook 페이지, RSS 등록을 통한 믿을 만한 정보의 자동수집 체계 구축
○ 활용도가 낮은 학술정보관 내 미디어장비(전자신문 Kiosk)의 활용
○ 큐레이션 요청, 댓글, 소셜공유 등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강화

[그림 4] D-큐레이션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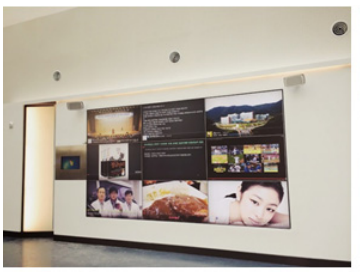


[그림 5] 학술정보관 내 MediaWall 핵심 콘텐츠로서의 D-큐레이션

이용자 휴게 콘텐츠

기관홍보 및 내방객투어

도서관 정문: 가상 서재


9개 대형 모니터로 구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곡선형 구조

Ⅳ D-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1. Media채널별 제작과정 및 콘텐츠 운영

가. 콘텐츠 제작 과정 : 7단계

〈표 1〉 콘텐츠 제작 과정 7단계

주제, 대상 선정	⇨	채널, 리소스 결정	⇨	콘텐츠 추가 및 삭제 (큐레이션)	⇨	제목 및 커버선정, 메타정보 입력	⇨	발행 (API)	⇨	홍보, 확산, 활용	⇨	통계분석, 모니터링

[그림 6] 콘텐츠 제작 과정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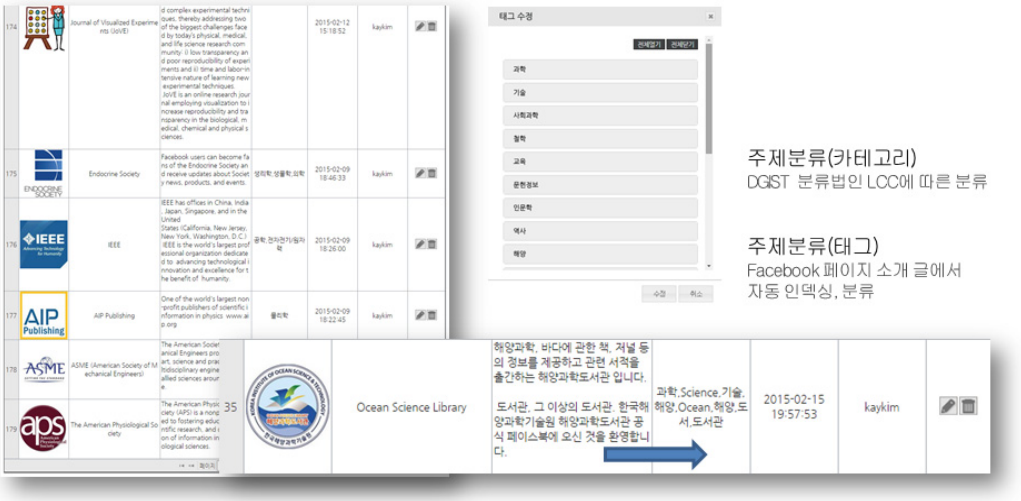
1) 발견 : 주제, 대상 선정

제작할 큐레이션의 주제와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큐레이션의 주제는 이용목적이나 자료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이용목적에 따른 주제로는 독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 (모)기관 홍보 콘텐츠, 도서관 구독 자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Reference 서비스 콘텐츠가 있다. 이용대상을 선정하여 큐레이션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 이용 대상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 직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에 시기적 특성와 사회적 이슈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2) 선택 : 채널, 리소스 결정

콘텐츠 추가에 앞서 주제에 맞는 각각의 리소스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목록,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 동영상 및 사진 등의 미디어 채널, SNS(페이스북, 트위터), RSS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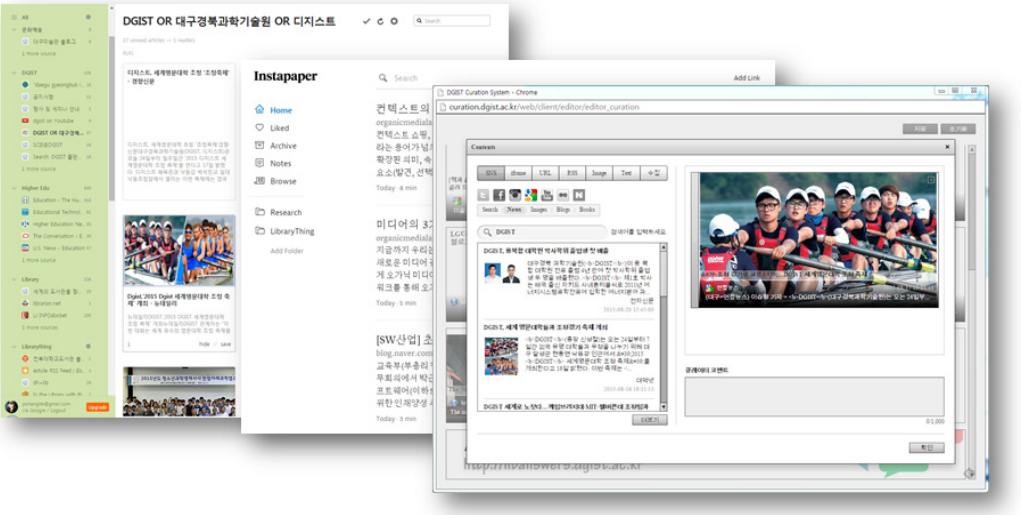
[그림 7]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출판사 및 학술DB의 facebook, RSS를 통한 대상 정보 수집



3) 선택 : 주제에 맞는 콘텐츠 추가 및 삭제

다양한 리소스 채널에서 콘텐츠를 발굴하여 추가 혹은 삭제하는 단계이다. 원하는 주제에 맞게 콘텐츠를 링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림 8] 선정한 콘텐츠를 추가하는 과정



4) 발행 : 제목 및 커버선정, 메타정보 입력

제목과 커버이미지를 선정하고, 분류와 검색을 위한 태그·주제 카테고리와 같은 메타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가능한 한 짧게, 숫자를 포함시켜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제목을 달아주고 있다. 커버이미지는 규격화를 통해 통일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주제에 맞는 header, footer를 제작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나 'Ask a Librarian' 서비스와 같이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준다. 태그에는 검색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세히 달아주며, 카테고리는 큐레이션의 주제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5) 공유 : API 및 소셜미디어 공유

큐레이션을 발행하게 되면 간단한 URL과 QR코드가 생성되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발행된 큐레이션은 단독 웹페이지 외에도 위 메타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입력한 기능 태그를 통해 API로 연동된 도서관홈페이지, 학생/직원포털에서도 볼 수 있다. 각 페이지에는 그 특성에 맞는 콘텐츠 큐레이션만

보여진다. API가 연동되도록 페이지 개수 확대가 가능하므로 향후 LMS/Libguides, 학생커뮤니티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림 9] API를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직원 포털로 표출되는 큐레이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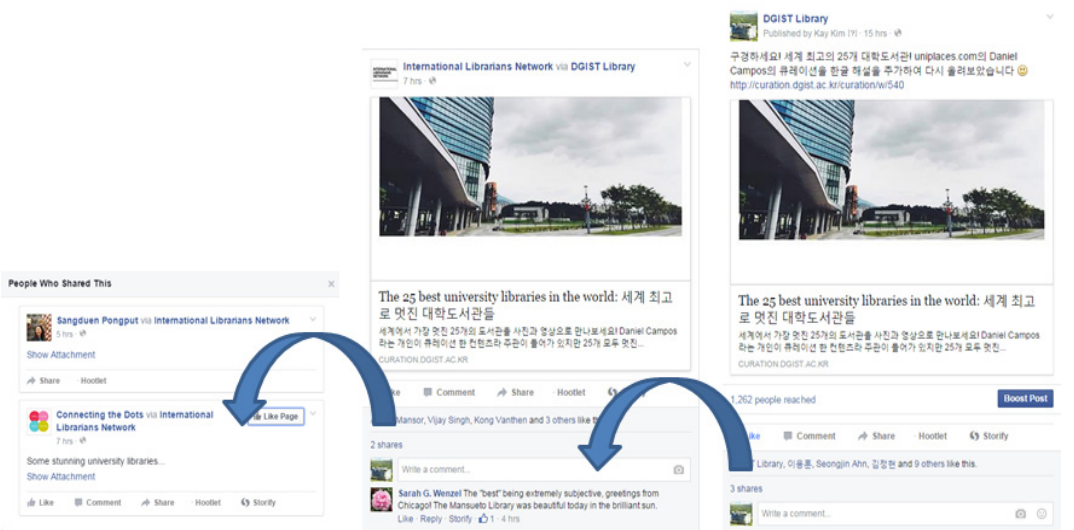
6) 공유 : 홍보, 활용

발행된 큐레이션은 MediaWall, Kiosk 등의 미디어 장비와 도서관과 기관 대표 facebook 등의 소셜미디어, 뉴스레터(월간) 형식, 각종 통보서 등을 통해 이메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배포된 콘텐츠는 다시 DGIST의 facebook 페이지를 좋아하는 다른 facebook 페이지나 이용자들을 통해 재공유 및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행한 '세계의 아름다운 대학도서관 사진'의 경우 갤러리도록(QRcode), 통보서,

보도자료 배포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된 큐레이션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타대학 도서관 및 국내외 도서관 커뮤니티, 주제별 연구자커뮤니티, 기관 페이스북(DGIST)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큐레이션을 홍보하고 확산할 수 있다.

[그림 10] 도서관 전자신문 Kiosk를 큐레이션 보드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모습

[그림 11] facebook을 통한 글로벌 확산 사례



7) 통계

큐레이션 접속 수, SNS 공유 건수(근로장학생의 활용), 댓글, facebook reach 수와 같은 수치화된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반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서비스 개선과 다음 콘텐츠 주제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이용 목적별 콘텐츠

큐레이션은 독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 (모)기관 홍보 콘텐츠, 도서관 구독 자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Reference 서비스 콘텐츠와 같이 이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가. 독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그림 12] 독서활성화를 위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508

[그림 13] Special Collection 코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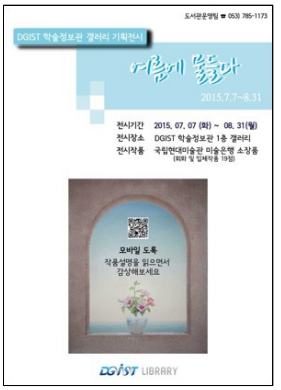
구성원들의 독서율 제고를 위해 매주 1회 '책읽는 DGIST'라는 제목으로 큐레이션 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큐레이션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작성하는 추천도서 목록과 유사하지만 담고 있는 콘텐츠의 채널이 다양하여 paper 형태로 배포되는 추천도서 목록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 탄생된다. 예를 들면, 단순히 도서목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이나 홈페이지 내 소장자료 검색결과로 링크를 걸어주어 이용자와 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고 북트레일러 영상(유튜브), 서평, 신문기사 등에 링크를 걸어주어 책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와 책을 간접적으로 연결해준다. DGIST 학술정보관에서는 매월 2회 'Special Collection' 코너를 운영하여 추천도서를 전시하고 있는데 이때 큐레이션을 제작하여 QR코드를 안내해주는 방법을 통해 큐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큐레이션을 배포한 후에는 같은 주제의 큐레이션을 모아 월 1회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과 큐레이션을 함께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나. 문화 · 예술 콘텐츠

[그림 14] 문화예술 관련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481

[그림 15] DGIST 학술정보관 갤러리 기획전시



온라인 도록

기획전시 오픈식 모습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추어 영화 관람회, 갤러리 기획전시 오픈식 등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큐레이션을 배포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큐레이션에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구와 기관이 속한 지역의 문화소식을 함께 소개하여 구성원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DGIST 학술정보관에서는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갤러리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종이로 제작하는 도록이 아닌 온라인 도록을 제작·배포하여 갤러리 관람 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큐레이션 페이지로 제작한 온라인 도록에서는 각 작품의 이미지와 설명을 함께 볼 수 있고 SNS 공유, 댓글달기 기능이 있어서 문화행사 시 '댓글달기 이벤트'와 같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도록은 행사에 앞서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갤러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큐레이션 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모)기관 홍보를 위한 콘텐츠

[그림 16] (모)기관 홍보를 위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436

현재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안내,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 소개 등이 포함된 큐레이션을 제작하여 학술정보관 투어에 이용하고 있는데 큐레이션은 도서관 자체뿐만 아니라 모기관(DGIST)의 홍보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관의 연구성과와 기관 생산 출판물, 보도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할 경우, 홍보는 물론 자원의 수집·보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경우 매년 입시가 진행되는데 신입생모집요강, 입학수기, 학과소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큐레이션 해주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입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훌륭한 입시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원내 각종 행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다.

라. 도서관 구독 자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그림 17] 도서관 구독 자료 활성화를 위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388

연구자와 학생들의 연구·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큐레이션을 통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술자원을 소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와 Endnote와 같이 연구 및 논문작성에 필요한 Tool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도 각각의 큐레이션 제작 페이지는 훌륭한 안내서가 된다. 이렇게 제작한 큐레이션은 대학원 신입생, 신임연구자 등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e-Journal, e-book 등의 소개와 업데이트 소식을 포함한 각종 이벤트 정보를 모아 제공해줌으로써 도서관 구독자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큐레이션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 Reference 서비스 콘텐츠

1) 주제전문 서비스

[그림 18] 주제전문서비스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374

DGIST 대학원은 2011년 개설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학과가 아닌 신물질과학(M), 정보통신융합공학(I), 로봇공학(R), 에너지시스템공학(E), 뇌인지과학(B), 뉴바이올로지전공(N)의 6개 융복합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술정보관에서는 DGIST MIREBraiN 6개 학과를 각각의 사서가 전담하여 서비스하는 주제전문 서비스의 일환으로 큐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각 분야의 주목할 만한 구독자원 소개와 연구에 유용한 리소스를 모아 큐레이션해줌으로써 연구자들과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학내 프로그램 연계

[그림 19] 학내 프로그램 연계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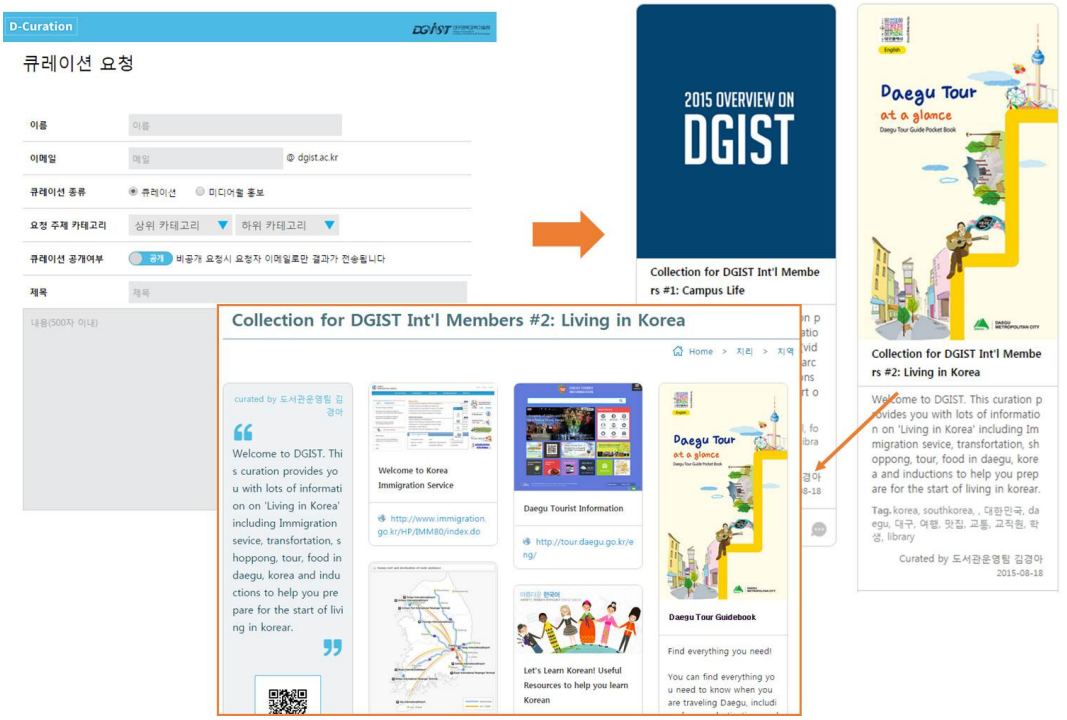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376

학내 학술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콘텐츠 큐레이션은 프로그램 진행 전 홍보를 위한 큐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리소스를 모아놓은 큐레이션, 프

로그램 진행 후 피드백 및 자료 공유를 위한 큐레이션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작할 수 있다. 지난 3월 DGIST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힘찬 코딩'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한 JAVA&Android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이 진행되기 전 교육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코딩을 위한 추천 리소스를 큐레이션하여 서비스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학내 학술행사에 관한 큐레이션을 제작할 경우 행사나 교육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피드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 정책 및 연구지원 서비스

[그림 20] 정책 및 연구지원 서비스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530

개인 혹은 행정부서에서 원하는 큐레이션에 대해 제작을 요청할 수 있는 "큐레이션 요청" 기능은 큐레이션 서비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연구나 업무를 하

면서 필요한 자료 혹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리소스를 직접 알려주거나 사서에게 요청하면 요청자의 선택에 따라 공개나 비공개로 큐레이션을 제작해주는 서비스이다. DGIST 국제협력팀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리소스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제공한 리소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큐레이션을 제작하였다. 기존에도 외국인을 위한 자료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해당 큐레이션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자료형태별 콘텐츠

제작된 큐레이션 콘텐츠는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형태에 따라 단행본 및 멀티미디어(book&DVD), 전자책(e-book), 저널(Journal), 웹DB(Web DB), 웹사이트(Useful Website), 어플리케이션(APP)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단행본 및 멀티미디어(book & DVD)

[그림 21] 단행본 및 멀티미디어자료 소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453

신착자료, 추천도서, 신착 DVD소개 등 주로 DGIST에 소장 중인 단행본과 멀티미디어자료에 대한 정보를 모아 큐레이션하고 있다. 다양한 뉴스 미디어나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이 추천해주는 도서 목록이나 계절 또는 사회적인 이슈 등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으로 '[책읽는 DGIST] 9월 독서의 달 禁書읽기', '[책읽는 DGIST] 재미있는 과학교양도서 70선', '[DGIST 학술정보관 신착자료] 봄날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가 있다.

2) 전자책(e-book)

[그림 22] 전자책 소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455

DGIST에서 구독 중인 전자책은 물론 무료 전자책을 포함하여 국내외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과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책 플랫폼을 소개하는 큐레이션을 제작하였다. 구독 및 구입 전자책의 경우 패키지 단위인 경우 자칫 묻힐 수도 있는 책들을 발굴해내 이용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으로 '[DGIST 학술정보관 신착자료] 국내 전자책(eBook) 이용하기', '교수 학습을 위한 McGrawHill Access Engingeering, e-book library 이용', 'DGIST 구독 전자책(e-Book) 플랫폼 모음'이 있다.

3) 저널(Journal)

[그림 23] 저널 소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298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국내외 매거진, 학술지와 Open Access 가능한 리소스를 소개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큐레이션하고 있다. DGIST 전공 6개 주제 분야별로 Impact Factor 기준 상위 저널 TOP10을 소개하고 저널에 대한 소개와 바로가기 링크 등을 제공하는 등 주제 전문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큐레이션으로 '[책읽는 DGIST] 외국잡지로 영어공부하기', '해외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Flipster', 'DGIST 구독 Science, Cell, Nature 와 그 자매지들을 소개합니다'가 있다.

4) 웹 데이터베이스(Web DB)

[그림 24] 웹 데이터베이스 소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531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도서관에서 소장 혹은 구독하고 있는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학술자원 업데이트 소식, 관련된 이벤트 소식 등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으로 '[Trial Service]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is now Available (학술자원 업데이트 소식, August 2015)',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아무지게 이용하는 법', The Choice for Chemistry Research: SciFinder의 이용'이 있다.

5) 유용한 웹사이트(Useful Website)

[그림 25] 웹사이트 소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483

연구나 학습에 유용한 웹사이트와 그 외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모아 큐레이션하고 있다. 연구효율성 향상과 연구윤리 준수, 다양한 교육 학습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으로 '[여름방학 특집 2탄] 방학동안 못다한 공부하기', 'Let's Learn Korean! Useful Resources to help you learn Korean',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 이해를 위한 리소스10'이 있다.

6) 어플리케이션(APP)

[그림 26] 어플리케이션 소개 큐레이션

http://curation.dgist.ac.kr/curation/w/253

이용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정보 활용 능력(Information Literacy) 교육의 일종으로, 연구나 학습 전 과정에 알아두어야 할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모아 큐레이션 하고 있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주제로 BYOD(Bring Your Own Device)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으로는 '아이패드로 논문읽기', '새학기, 노트필기 어떤 앱으로?'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 콘텐츠 홍보 및 협력 방안(D-큐레이션이 향후 가야할 길)

D-큐레이션 서비스는 2014년 2단계에 걸친 구축과정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 운영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난 콘텐츠의 통계를 접속량, 댓글 및 공유 등 반응량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롭게 제작하여 제공할 콘텐츠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를 제공할 큐레이터의 확장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DGIST 학술정보관은 원 내의 학생 및 연구자, 교수학습지원센터(TLC), 교원 등을 큐레이터로하여 보다 전문적인 과학기술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대외홍보, 국제협력, 입학팀 등을 통해 대외적인 기관 홍보 컨텐츠 제공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적으로 진화된 정보 자원 때문에 도서관과 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예측도 있다. 저작권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래 왔듯이 책과 정보는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 변화된 정보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자원을 수집하여 제공한다는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위기가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일 수 있다. DGIST 학술정보관은 그 시도 중 하나로 앞으로도 D-큐레이션 서비스를 더욱 확장 및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장사례

장 려 상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한 도서관 현장 사례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도서관

김소람 · 김승민

(제천기적의도서관)

목 차

Ⅰ.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사례

1. 도서관에 대한 이해
   가. 어린이사서 교육

2.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 계발
   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언니(BookBuddy)'
   나. 우리들만의 컬렉션을 꾸리는 '주제전문사서'
   다. 뚝딱뚝딱 도서장비, 서가 정리 및 책 보수까지 '도서관 만능 엔터테이너'

3. 도서관 홍보대사 역할 수행 및 청소년 서비스로의 연계
   가. 우리 지역과 도서관을 소개해 줘!
   나. 우리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기자단 & 명예기자단

Ⅱ.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시사점

1. 설문 조사방법
   가.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2 설문조사 결과
   가. 공통 질문
   나. 어린이사서 참여에 관한 질문
   다. 어린이사서 활동에 관한 질문
   라. 어린이사서 활동 후에 관한 질문

3.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시사점

Ⅲ. 마치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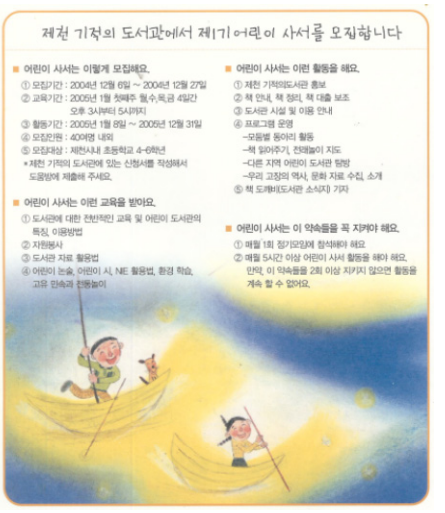
참고문헌

개 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서관의 주인은 도서관장이나 직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장이나 직원은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도서관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즉 어린이 도서관의 주인은 지역의 어린이이다.

[어린이사서 1기 모집공고]

(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2호/2004년)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제1기 어린이 사서를 모집합니다

■ 어린이 사서는 이렇게 모집해요.
① 모집기간 : 2004년 12월 6일 ~ 2004년 12월 27일
② 교육기간 : 2005년 1월 첫째주 월,수,목,금 4일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③ 활동기간 : 2005년 1월 8일 ~ 2005년 12월 31일
④ 모집인원 : 40여명 내외
⑤ 모집대상 : 제천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도움방에 제출해 주세요.

■ 어린이 사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요.
①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어린이 도서관의 특징, 이용방법
② 자원봉사
③ 도서관 자료 활용법
④ 어린이 논술, 어린이 시, NIE 활용법, 환경 학습, 고유 민속과 전통놀이

■ 어린이 사서는 이런 활동을 해요.
① 제천 기적의도서관 홍보
② 책 안내, 책 정리, 책 대출 보조
③ 도서관 시설 및 이용 안내
④ 프로그램 운영
–모둠별 동아리 활동
–책 읽어주기, 전래놀이 지도
–다른 지역 어린이 도서관 탐방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자료 수집, 소개
⑤ 책 도깨비(도서관 소식지) 기자

■ 어린이 사서는 이 약속들을 꼭 지켜야 해요.
① 매월 1회 정기모임에 참석해야 해요.
② 매월 5시간 이상 어린이 사서 활동을 해야 해요. 만약, 이 약속들을 2회 이상 지키지 않으면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요.

제천기적의도서관은 2003년 개관이후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주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도서관 사서 교육을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도서관 운영에도 참여하여 도서관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가를 알게 하고, 스스로가 도서관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사서’를 모집,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관 1년 뒤 2004년 12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1기가 모집, 형성되어 2005년 그 첫 해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22명으로 시작한 1기 어린이사서는 2015년 현재 11기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사서는 대학교육 과정 문헌정보학과에서 받게 되는 전문교육은 아닐지라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도서관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단위로 정기·비정기적인 다양한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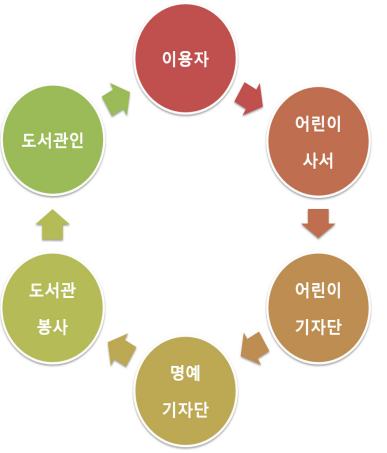
2005년 초창기 어린이사서는 ‘도서관과 친구 되기’ 활동을 주로 하였으나, 10여년의 시간을 보낸 현재에는 어린이전문 사서의 고유 업무부터 도서관 봉사, 프로그램 참여 및 문화프로그램 주제 전시, 도서관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서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으로서의 어린이사서로 성장하였다.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 인원〉

(인원:명)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인원	22	26	19	21	16	17	23	24	20	17	17	222

[어린이사서 순환구조]



어린이사서는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매년 초 모집하여 1년 동안 운영된다. 일정 기간 도서관 사서 교육을 받고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가를 알게 하고 스스로가 도서관의 주인임을 느끼게 한다. 도서관 사서가 직접 어린이사서 교육을 실시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과 도서관 봉사를 위한 정기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은 도서관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탐방 및 후속 프로그램인 어린이기자단 활동으로 이어져 도서관과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된다.

어린이사서의 활동은 봉사 혹은 자기계발의 의미도 있지만 서비스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창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도서관 운영에 다방면으로 참여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주인으로서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사서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라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사례라 할 수 있다.

Ⅰ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사례

1. 도서관에 대한 이해

가. 어린이사서 교육

매년 초 모집·선발된 어린이사서들은 한 달 동안 '도서관, 책, 사서, 도서관 활동'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도서관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고 1년간 어린이사서로 활동할 준비를 한다. 도서관과 책, 사서에 대해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어떤 곳이고 우리 도서관에서 어린이사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사서 활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자 어린이사서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표 1〉 어린이사서 활동 구조도

〈표 2〉 어린이사서 교육 내용

주제	교육 내용	주제	교육 내용
도서관	1. 도서관은 뭐 하는 곳이죠? 2. 도서관은 언제부터 생겨났나요? 3. 도서관의 역사 4. 도서관의 종류와 공공도서관의 역할	사서	1. 사서가 뭐예요? 2. 사서라는 직업은 언제 생겼어요? 3. 사서의 역할이 알고 싶어요? 4. 제천기적의도서관의 어린이사서
책	1. 책은 어떻게 찾을까요? 2. 이건 무슨 책이에요? 3. 도서 자료의 정리 4. 한국십진분류표	도서관 활동	1.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떤 곳이에요? 2. 제천기적의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3. 봉사활동의 의미와 나의 봉사 활동 계획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친 어린이사서는 일반 이용자 어린이들과는 다르게 도서관과 좀 더 친숙한 친구가 된다. 어린이사서들은 도서관 이해를 위한 '사서'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의 의미, 이용법 안내와 더불어 도서관 직원과의 소통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표 3〉 2015년 어린이사서 연간 활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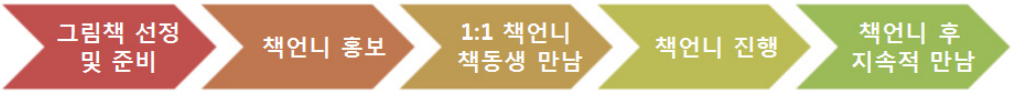
월	1주	3주
2015. 3	제천 기적의 도서관을 알아봐요	나는야 어린이사서
2015. 4	우리가 알던 책?	내가 책이라면?
2015. 5	책에도 자리가 있어	내가 찾는 책은 말이지
2015. 6	도서관 책이에요	꼬투리 서가 만들기
2015. 7	책은 어떻게 읽어요?	여름방학에는 무슨 책을 읽을까?
2015. 8	나는야 책언니	나는야 책언니
2015. 9	도서관 비밀지도	꼬투리 서가 만들기
2015. 10	독서의 계절, 가을	책으로 해봐요
2015. 11	나만의 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두 귀를 쫑긋
2015. 12	도서관이 12살 이래요.	우리가 함께 만든 도서관의 1년

2.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 계발

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언니(BookBuddy)'

○ 목 적 : 언니와 동생이 함께 책을 통해 교감하면서 동생은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고, 언니는 책임감과 친화력을 키우고 책을 고르는 감각을 기를 수 있다.

〈표 4〉 책언니(BookBuddy) 프로그램 진행 과정



[그림 1] 책언니(BookBuddy)

1년에 두 번, 방학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히 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는 여름, 겨울방학동안 5~7세 동생들의 언니, 오빠가 되어 동생과 1:1 짝꿍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언니(BookBuddy)'로 활동한다.

어린이사서들은 방학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재미있게 읽은 책 및 사서선생님이 추천하는 그림책 등을 선정한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 동생에게 읽어 주듯 서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연습을 하며 책언니 활동을 준비한다. 또한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함께 놀 수 있는 책놀이 방법을 찾아 공유하는 등 즐겁고 유익한 책언니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표 5〉 2015년 겨울방학 책언니(BookBuddy) 선정 도서목록(예시)

순	책 제목	출판사	책언니	책동생
1	돼지 공주	킨더랜드	강혜*	김태*
2	올깃쫄깃 찰지고 맛난 떡이야기	미래아이	고태*	함서*
3	게와 원숭이와 냠냠 시루떡	단비어린이	권하*	이정*
4	도도, 싹둑!	사계절	윤종*	조경*
5	쌍둥이는 너무 좋아	키즈엠	이가*	조건*
6	우리집에 괴물이 살아요	시리우스	이민*	고민*
7	이빨빼기 소동	비움과 채움	이슬*	임예*

순	책 제목	출판사	책언니	책동생
8	깜박깜박 도깨비	사계절	이최*	김지*
9	볶자 볶자 콩 볶자	비룡소	장준*	전은*
10	내 코가 부러졌어	푸른숲주니어	조예*	전준*
11	암행어사 호랑이	한솔수북	최승*	이하*
12	나를 찾아온 북극곰	걸음동무	최원*	전은*

방학동안 어린이사서와 5~7세의 동생이 짝꿍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며, 이때 동생에게 선정한 그림책을 읽어준다. 선정한 그림책 말고도 동생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골라 함께 읽기도 하며 무작정 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동생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는 책읽기를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세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앎의 영역을 확장하고 대리만족을 경험하며 감정이입을 통한 내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정미라, 2011). 언니와 동생이 함께 책을 보며 교감하는 과정에서 동생은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간접적인 경험과 감정이입을 통한 내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어린이사서는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친화력을 키우고 동생에게 읽어줄 책을 직접 선정해 다양한 책을 접하며 책을 고르는 감각을 기를 수 있다.

〈표 6〉 책언니(BookBuddy) 활동 소감문(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 15호/2008년)

겨울방학의 소중한 추억, 책언니(BookBuddy)

나는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겨울방학에 책언니(BookBuddy)를 하게 되었다. 첫째 날 슬영이(5)가 어려운 책만 갖고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서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재미있어 했을까? 슬영이는 웃는 얼굴로 집에 갔다. 왠지 상쾌하고 즐거운 첫날이었다.

글_어린이사서4기 정선우(용두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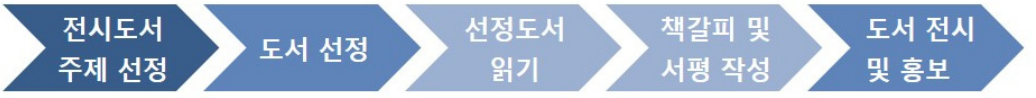
위 〈표 6〉의 글에 나오는, 2008년 슬영이의 책언니였던 어린이사서 4기 선우는 현재 18살의 어엿한 고등학생이다. 그리고 당시 5살이었던 슬영이는 12살이 되어

2014년 어린이사서 10기 활동을 마치고 지금은 어린이기자단 6기로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때 어린이사서 언니, 오빠와 함께했던 '책언니(BookBubby)'의 추억과 경험은 지금의 슬영이에게 책에 흥미를 갖게 하고 도서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선순환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즐겨 찾는 좋은 습관이 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어린이사서의 성장은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더 많은 동생들과 책을 통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책에 대한 도움 뿐 아니라 도서관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언니, 동생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 우리들만의 컬렉션을 꾸리는 '주제전문사서'

○ 목 적 : 어린이사서가 매월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소개하며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고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표 7〉 꼬투리서가 전시 과정



[그림 2] 주제전문사서

제천기적의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어린이사서의 특별한 컬렉션 '꼬투리서가'를 만날 수 있다. 꼬투리서가는 매달 그 달의 주요 행사나 사회적인 이슈, 또는 어린이들의 관심사 등을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된 도서를 전시하여 이용자 모두가 함

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만들어가는 컬렉션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꼬투리서가 전시 도서는 언제나 인기가 많다.

어린이사서의 '주제전문사서' 활동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업무의 한 부분인 '추천도서'를 책 선정부터 전시까지 스스로 해봄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이다. 어린이사서들은 더 많은 책을 만나고, 읽고, 선정·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며 더불어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일반 이용자 어린이들에게는 또래 친구가 추천하는 책을 보며 기존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느낄 수 없었던 친근감을 느끼고 책과 도서관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부모님들에게는 아이에게 '읽히고 싶은 책'과 '읽고 싶은 책'의 차이를 알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통로가 된다.

〈표 8〉 어린이사서 꼬투리서가 추천도서 목록

꼬투리서가 4월 추천도서 "우리가 꿈꾸는 자유"				
순	어린이사서 추천도서	저자	출판사	어린이사서
1	노래하는 볼돼지	김영진	길벗어린이	맹지*
2	책 속의 꿈을 찾아 떠나요	앤 조나스	크레용하우스	류가*
3	달려라 달려, 개야!	필립 디 이스트먼	보물창고	권주*
4	포피케틀	로버트 잉펜	푸른날개	허지*
5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	계림북스쿨	김나*
6	우리가 꿈꾸는 자유	아웅 산 수 치	사파리	김하*
7	아빠랑 캠핑가자!	한태희	웅진주니어	권희*
8	집이 제일 좋지	엘리자베스 베이글리	세상의모든책	박선*
9	상상 이상	이스트반 바여이	내인생의책	김수*
10	이상한 집에서	지 그린트 케슬러	느림보	이준*
11	내 꿈은 엄청 커!	밥 셰어	담푸스	장은*

[그림 3] 어린이사서 11기 꼬투리서가 전시(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 44호/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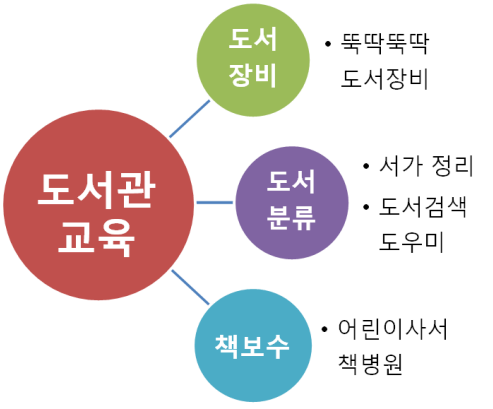
다. 뚝딱뚝딱 도서장비, 서가 정리 및 책 보수까지 '도서관 만능 엔터테이너'

1) 목 적

도서관 서비스의 밑바탕인 장서관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서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도서관'의 의미를 깨닫고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도서관에 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책을 보지만 그 책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지, 망가진 책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어린이는 거의 없다. 어린이사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사서들이 하는 일련의 업무들을 경험해봄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서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활동한다.

〈표 9〉 장서관리 교육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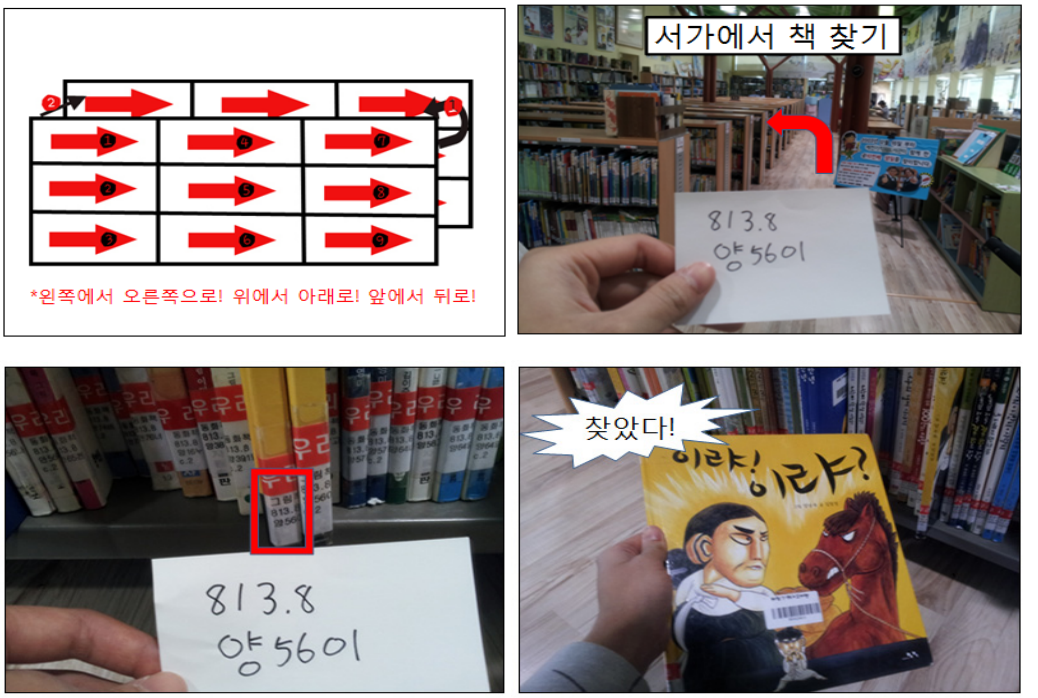
[그림 4] 뚝딱뚝딱 도서장비

어린이사서는 배가 전 도서 장비작업을 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새 책들과 만난다. 도서관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한 권 한 권에 장서인, 측인을 정성스럽게 찍고 감응테이프, 청구기호 등을 붙이며 도서관의 책 한권에 수고와 정성이 깃들어있음을 느낀다. 그와 더불어 '책언니'로 동생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 '주제전문사서'로 꼬투리서가에 전시할 책, '이용자'로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찾아보며 책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어린이사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림 5] '책마다 자리가 있어요!' 서가 정리

어린이사서 교육에서 도서분류법을 배운 어린이사서들은 반납된 책과 제자리에 꽂히지 않은 책들을 정리하며 원하는 책을 쉽게 찾는 요령을 익힌다. 또한 열람서비스의 기본인 정리 업무를 경험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만드는 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긴다. 나아가 '도서 검색 도우미'활동을 통해 열람서비스에 실제로 참여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사서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표 10〉 어린이사서 도서분류법 실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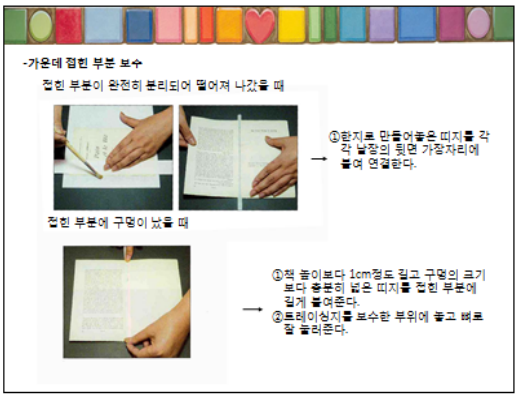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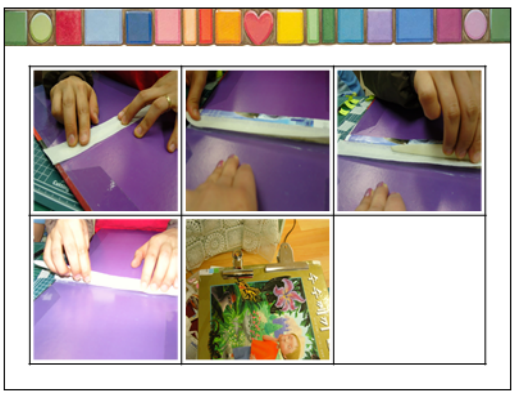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사서 책병원

어린이사서가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망가진 책들을 골라내는 과정도 포함된다. 너무 많이 봐서 너덜너덜한 책, 찢어진 책, 오염된 책 등을 찾아내 보수하는 '어린이사서 책병원'은 어린이사서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어린이사서의 책보수 교육은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책 보수 동아리 '책병원'의 자원활동가가 담당한다.

책의 구조와 형태, 제본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낙서 지우는 법, 찢어진 부분 붙이는 법 등 책 보수에 관한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를 익힌다. 이러한 책 보수 활동은 어린이사서에게 책 한 권씩에 닿는 수많은 손을 생각하고 책의 소중함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계기가 된다.

〈표 11〉 어린이사서 책병원 실습 자료





3. 도서관 홍보대사 역할 수행 및 청소년 서비스로의 연계

가. 우리 지역과 도서관을 소개해 줘!

1) 우리지역 역사문화 탐방

○ 목 적 :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탐방 및 홍보를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긍지를 가지며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표 12〉 우리지역 역사문화 탐방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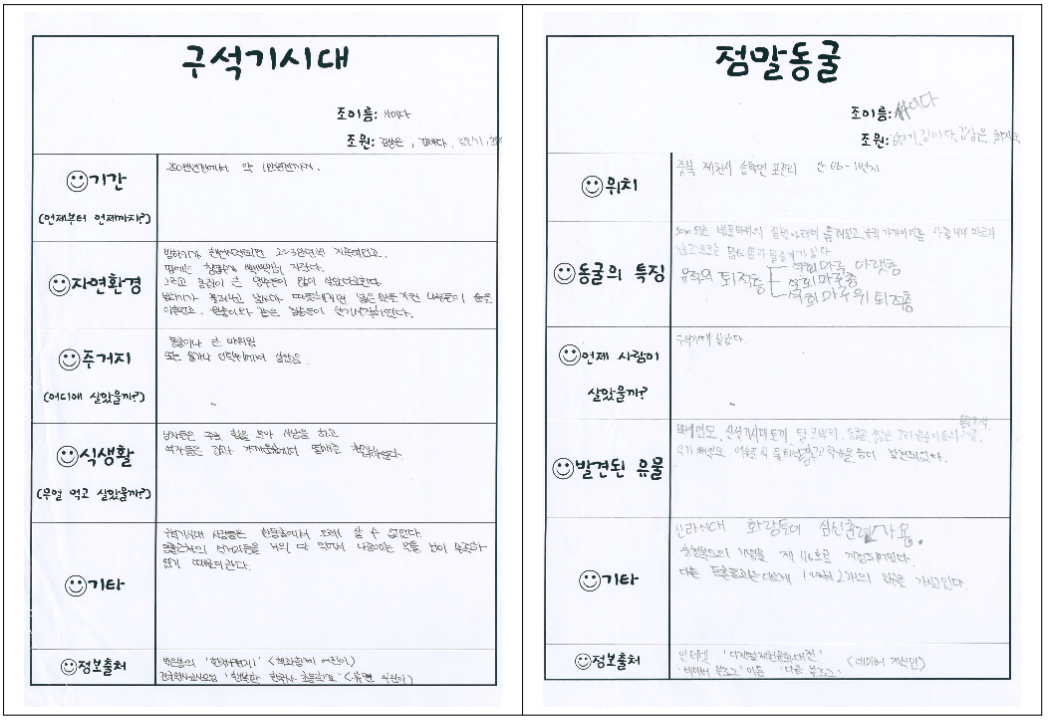
우리지역 사전 조사	역사문화 탐방	탐방자료 정리	소식지 소개

[그림 7] 역사문화 탐방 현장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문화 전통과 역량에 긍지를 갖게 하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신뢰하고, 그들 스스로 장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사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개하기 위한 지역 탐방 활동을 한다. 우리 지역의 역사가 깃든 유명한 명소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까지 직접 찾아가 고장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에 소개한다. 즉, 어린이사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

관의 역할을 제고하는 주역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탐방 전 사전조사 시 어린이사서 교육을 통해 배운 정보검색 방법을 적극 활용하며 이는 어린이사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움과 더불어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알찬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곳임을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표 13〉 점말동굴 탐방 사전조사(옛날에는 동굴에서 살았대요/2013년)



구석기시대

조이름: 서아

조원: 경은, 경혜, 라니, 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250만년전에서 약 1만년전까지.
자연환경	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온난한 기후였다고. 평야는 초원이 펼쳐졌고 사슴, 말, 들소 등이 큰 동물들이 많이 살았었다고. 물고기가 풍부했던 강이나 바다가 있었고 동물들이 이동하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주거지 (어디에 살았을까?)	동굴이나 큰 바위밑 또는 들판 인근에서 살았음.
식생활 (무얼 먹고 살았을까?)	남자들은 주로 활을 쏘아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강이나 개울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기타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한정된 도구로 지혜를 잘 수 있었다. 돌칼, 뼈도구 등 주어진 것을 보고 다 만들어 나갔으며 또한 불이 없었으나 불을 피워 이용하였다.
정보출처	책은 분의 '한국구석기시' <책과함께 ~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석보한 한국사 - 초등학교' <유혜 석한>

점말동굴

조이름: 서아다

조원: 여기, 김바다, 김하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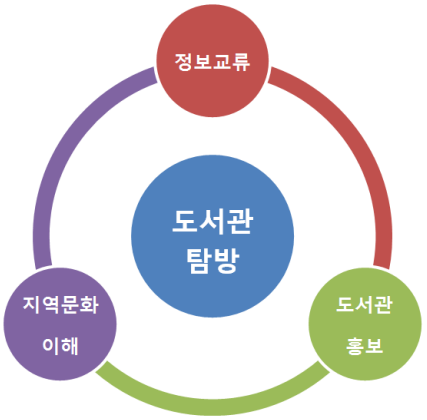
위치	충북 제천시 송학면 포리 산 66-1번지
동굴의 특징	3km 되는 벽들 바위의 절벽 아래에 흙 퍼짐고 온돌 가꾸어 만들 사슴뿔 바늘과 고고학 탐사 물증 기기 있다. 유적의 퇴적층 - 석회 마구 마갯층 / 석회 마구 위 퇴적층
언제 사람이 살았을까?	구석기에 살았다.
발견된 유물	뼈연모, 석기제작도구, 탄 고래기, 동물, 짐승 등 지층 발견 구석기 화석 이용한 식 육 태양 빛과 각 부분을 여러 보면되었다.
기타	신라시대 화강동에 점말동굴 가용. 충청북도의 기원을 제 116호로 지정되었다. 다른 동굴조사 대에게 1개의 유물 가지고 있다.
정보출처	인터넷 '디지털제천문화대전' '박물관' 읽고 '다른 동굴' <네이버 지식인>

2) 도서관 탐방

○ 목 적 :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해 각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 더불어 그들에게 배워 우리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어린이사서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제천기적의도서관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 도서관 탐방 현장

〈표 14〉 도서관 탐방 기대효과



'글로컬'은 글로벌(golbal)과 로컬(local)의 조어로 지역이 곧 세계이며, 세계가 곧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지역 제대로 알기와 더불어 다른 지역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어린이사서는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탐방을 시작하였다.

매년 여름방학에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한 탐방은 먼저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상징이 된 '기적의도서관'이 대상이었다. 순천, 청주, 부평, 금산, 정읍 등 전국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을 다니며 각 지역에 대해 배우고, 그 지역의 환경, 문화와 함께 어울려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견학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 경험하며 도서관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서관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서관 탐방이 계기가 되어 순천기적의도서관 친구들이 제천기적의도서관을 찾아와서 함께 그림책도 읽고, 눈싸움도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 등 각 지역의 도서관과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의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느끼며 우리가 배워 도서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등도 찾아보며 도서관에 역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서관 홍보대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담당하게 되었다.

〈표 15〉 도서관 탐방 활동 소감문(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 25호/2010년)

도서관 탐방을 갔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부평기적의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 책 꽂는 방법이 다양하였다. 책꽂이가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책 수영장도 있다. 도서관 하룻밤 자기 할 때 자는 곳인데 작아서 몇 명밖에 잘 수 없다고 했다. – 어린이사서 김진수(신백초4)

나. 우리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기자단 & 명예기자단

1) 어린이 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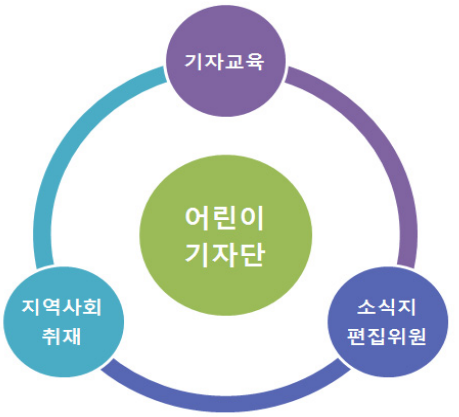
○ 목 적 : 기자교육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기르고 '기자'라는 직업을 경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책도깨비' 편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소식을 널리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9] 어린이 기자단 활동 모습

어린이사서 활동은 연간 단위로 진행되지만 도서관의 주체로서의 어린이들의 활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의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어린이사서 과정을 수료한 초등 5~6학년 어린이는 어린이기자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어린이기자단은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널리즘스쿨의 대학원생의 지도하에

〈표 16〉 어린이기자단 활동 내용



정기적으로 글쓰기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행사나 소개할 만한 장소 등을 취재하고, 지역 인물을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며, 이때 작성된 취재기사는 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에 소개된다. 기자교육을 받고 취재활동을 하는 어린이기자단은 기사문 작성법, 비판적 사고력 향상, 미디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자'라는 직업 체험과 더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책도깨비' 편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소식을 널리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0] 소식지에 실린 어린이기자단 기사(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 35호~38호/2013년)

〈표 17〉 어린이기자단 주요 교육 및 활동 내용

어린이기자단 주요 교육 내용
• 정기 교육 : 취재 요령 및 기사 작성법 쓰기 및 기자활동과 관련된 교육 • 정기 취재 :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취재 활동 • 취재 기사 작성 • 영상 제작 방법

주요 활동 내용
• 제천기적의도서관 홍보 • 도서관 소식지(계간)에 취재 기사문 작성 • 지역 소식, 도서관 소식, 인물 탐방 등 지역과 도서관 소식 수집, 취재, 탐방 및 기사 작성

2) 명예기자단

○ 목 적 : 사회적 이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책도깨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나아가 도서관에서 쌓은 경험·재능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도서관 서비스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림 11] 명예기자단 활동 모습

건전한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길러진다.(변우열, 2013)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서 안타까운 점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주 서비스 대상이 어린이이지만 도서관에서 자란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는 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 자연스레 도서관과 멀어지게 된다. 주변의 다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청소년 대상이 아닌 일반 공공도서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청소년 서비스로까지 확대시킨다는 관점에서 명예기자단의 존재는 그 의미가 크다.

명예기자단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어린이기자단원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어린이기자단의 연장선상에서 '책도깨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그와 동시에 어린이기자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청소년 문학 읽기 및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사회적 이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하며 어린이기자단 후배들의 취재 멘토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표 18〉 명예기자단 활동 내용

〈표 19〉 명예기자단 이채린 활동 소감

나는 어린이사서 9기, 어린이기자단 5기를 마치고 명예기자단에 왔다. 처음에는 사서라는 직업이 궁금해서 신청했지만 그 후 점점 발전해 명예기자단까지 왔다. 명예기자단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토론 후 글을 쓴다. 우리가 쓴 글은 계절마다 나오는 기적의도서관 책도깨비 소식지에 실린다. 명예기자단을 하며 나는 글 솜씨가 많이 늘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 열린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 명예기자단을 하기 전에는 그냥 글 쓰는 것이 좋았으나 기자단을 하며 글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도서관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자주 찾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사서나 어린이기자단에 비해 명예기자단은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학생이라는 특성상 자주 만날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도서관을 좋아하는 나는 명예기자단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싶다. 나는 만약 주변 친구들이 명예기자단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망설이지 않고 적극 추천할 것이다.

– 글_명예기자단 이채린(내토중1)

[그림 12] 소식지에 실린 명예기자단 기사(도서관 소식지 '책도깨비' 31호~32호/2012년)

또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여해 동생들을 이끌고, 도서관에서 자라며 느낀 좋은 경험을 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서 책읽어주기, 과학실험 등 각자의 재능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즉, 주 이용대상인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도서관 서비스의 대표적인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3] 명예기자단이 진행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

Ⅱ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시사점

어린이사서로 활동했던 또는 활동하는 어린이들의 만족도와 어린이사서 활동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방법 및 세부내용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설문 조사방법

가.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1) 조사일자 : 2015년 7월 18일(토)
2) 응 답 자 : 어린이사서 참여자 총 30명
3) 장　　소 : 제천기적의도서관
4) 조사방법 : 서면 설문조사

질문유형	문항내용
1. 공통질문	성별
	어린이사서 기수
	연령
2. 어린이사서 참여에 관한 질문	어린이사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린이사서 참여 전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3. 어린이사서 활동에 관한 질문	어린이사서의 어떤 활동에 참여했습니까?
	어린이사서를 다시 한다면 꼭 해보고 싶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위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어린이사서 활동 후에 관한 질문	어린이사서 참여 후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어린이사서 활동이 독서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사서 활동이 현재의 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향후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어린이사서 활동을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추천 한다면, 이유는?

2. 설문조사 결과

가. 공통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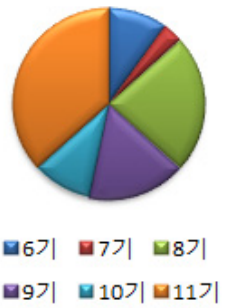
1) 성별

남	12	40%
여	**18**	**60%**
계	30	100%

어린이사서 참여자의 성비는 대체로 여아 7, 남아 3 정도로 이에 비례해 응답자의 60%가 여아이다.

2) 어린이사서 기수

6기	3	10%
7기	1	3%
8기	7	23%
9기	5	17%
10기	3	10%
11기	**11**	**37%**
계	30	100%



설문 참여 기수는 2015년 어린이사서 **11기(37%)**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8기(23%), 9기(17%), 10기(10%)로 순으로 현재 어린이사서, 어린이기자단 및 명예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수 중심으로 참여했다.

3) 연령

11~13세	15	50%
14~16세	15	50%
계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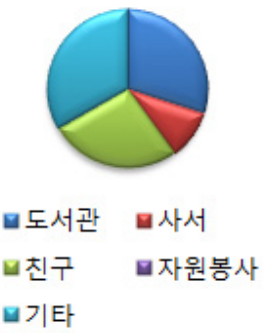
연령은 현재 어린이사서·어린이기자단인 초등학생(50%)과 명예기자단 및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50%)으로 나뉜다.

나. 어린이사서 참여에 관한 질문

1) 어린이사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9	30%
사서에 관심이 있어서	3	10%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서	8	27%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0	0%
기타	**10**	**33%**
계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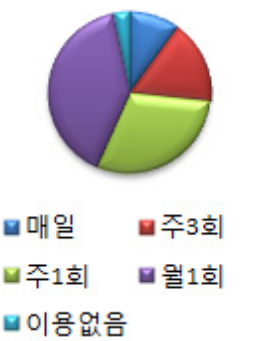
어린이사서 참여 동기는 **기타(33%),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30%),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서(27%)**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동기에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부모님 추천 또는 어린이사서에 참여했던 형제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2) 어린이사서 참여 전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매일	3	10%
주 3회	5	17%
주 1회	9	30%
월 1회	**12**	**40%**
이용 안함	1	3%
계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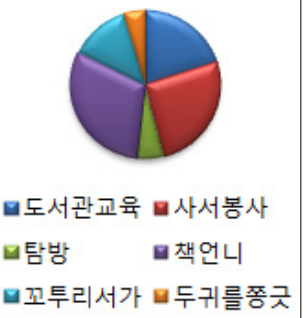
어린이사서 참여 전 도서관 이용은 **월 1회(40%), 주 1회(30%), 주 3회(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했던 어린이들이 어린이사서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어린이사서 활동에 관한 질문

1) 어린이사서의 어떤 활동에 참여 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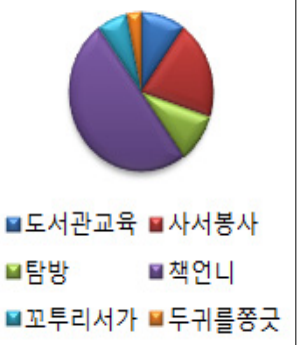
도서관 교육	17	20%
사서봉사	22	26%
탐방	5	6%
책언니	**26**	**30%**
꼬투리서가	11	13%
두 귀를 쫑긋	4	5%
계	85	100%



참여한 활동은 복수응답으로 **책언니(30%), 사서봉사(26%), 도서관 교육(20%)** 순으로 응답했다. 모든 기수의 어린이사서가 도서관 교육, 봉사 등 기본적인 활동에 참여했으나 기억에 남는 활동 위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어린이사서를 다시 한다면 꼭 해보고 싶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도서관 교육	3	10%
사서봉사	6	20%
탐방	3	10%
책언니	**15**	**50%**
꼬투리서가	2	7%
두 귀를 쫑긋	1	3%
계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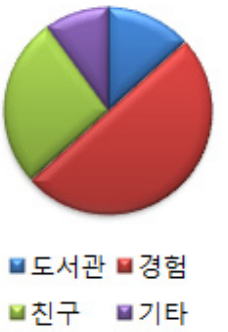
어린이사서를 다시 한다면 꼭 해보고 싶거나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책언니가 전체 응답의 5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사서봉사(20%), 도서관교육(10%), 탐방(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보면 많은 참여자들이 동생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고 동생과 교류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에 더 친숙하게 다가감	4	13%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음	**15**	**50%**
친구와 추억을 만들 수 있음	8	27%
기타	3	10%
계	30	100%

위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50%)**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27%), 도서관에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13%),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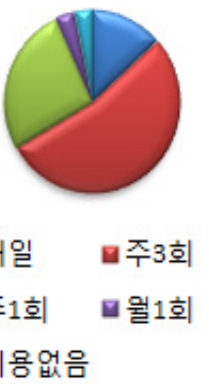


라. 어린이사서 활동 후에 관한 질문

1) 어린이사서 참여 후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매일	4	13%
주 3회	**16**	**53%**
주 1회	8	27%
월 1회	1	10%
이용 안함	1	10%
계	30	100%

어린이사서 참여 후 도서관 이용은 **주 3회(53%), 주 1회(27%), 매일(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사서 참여 전(월 1회(40%), 주 1회(30%), 주 3회(17%))에 비해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되었으며,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어린이사서 활동이 독서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24**	**80%**
아니요	6	20%
계	30	100%

어린이사서 활동이 **독서량 향상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0%**로 대다수의 참여자가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해 독서량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어린이사서 활동이 현재의 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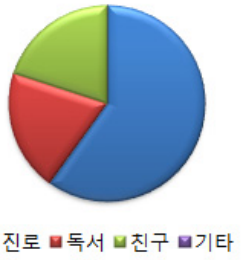
예	**25**	**83%**
아니요	5	17%
계	30	100%

어린이사서 활동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예'가 83%,** '아니오'가 17%로 대다수의 참여자가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1)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진로결정	**18**	**60%**
독서습관형성	6	20%
교우관계	6	20%
기타	0	0%
계	30	100%

어린이사서 활동으로 받은 영향은 구체적으로 **진로결정(60%), 독서 및 도서관 이용습관 형성(20%), 교우관계 형성(20%)** 순이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 이용습관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서관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4) 향후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25	83%
아니오	5	17%
계	30	100%

향후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3%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참여자가 어린이사서 활동이 끝난 후에도 봉사자로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 주체로 활동할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다른 친구들에게 어린이사서 활동을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25	83%
아니오	5	17%
계	30	100%

어린이사서 활동 추천 의향도 4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8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다수의 참여자가 어린이사서 활동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1번 문항의 '기타' 답변에서 형제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사서에 참여하게 된 사례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인식이 실제로 어린이사서 활동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5-1) 어린이사서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

- 같이 봉사를 즐기면 좋겠다.
-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학교가 아닌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책도 읽고 친구들과 경쟁 아닌 관계로 즐길 수 있다.
- 책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다.
- 친구와 함께 어린이사서 후속 프로그램(어린이기자단, 명예기자단)에 참여하고 싶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교우관계 형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변화와 아울러 도서관 이용을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3.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시사점

어린이사서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사서 활동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도서관 이용률에 확연히 차이가 있다.
어린이사서 참여 전 월 1회 방문했다는 응답자가 많은데 비해 참여 후에는 주 3회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을 미루어 볼 때 참여자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 횟수가 늘었으며 이는 곧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지고 도서관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참여자의 독서량 향상과 더불어 진로결정 및 독서습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독서량 향상 여부 및 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참여자가 80~83%로 대다수였으며 그 중에도 진로결정과 독서습관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두드려졌다. 단순히 도서관 이용습관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서관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셋째, 서비스 대상자에서 나아가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선호 및 추천 활동에서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언니'와 '사서봉사'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또한 향후 봉사에 참여 또는 추천할 의향도 83%로 높았다.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창출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상호간의 소통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해 도서관 이용습관 형성, 독서량 향상, 진로결정 등의 개인적인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과 어린이사서 활동을 홍보하고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 창출자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다.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주인으로서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여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라는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마치는 글

어린이 시절의 도서관 활동은 그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으로 구축되어지며, 이러한 경험은 곧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가치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이다. 도서관은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민에 의해 유지, 발전된다고 했다. 어린이사서 1기 혜지 외에도 이미 성인이 된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들은 방학을 활용해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이 활동했던 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또 다른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단순히 어린이 시절 어느 한 해의 짧은 활동이 아니라 이들의 어린이사서 활동은 지속적인 지역 활동으로 연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이용자에서 시작되어 서비스 대상자였던 그들이 어느 덧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창출·제공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도서관과 함께해 온 중요한 친구이며, 도서관의 주인이다. 어린이사서는 학부모, 자원활동가와 더불어 제천기적의도서관 10여년을 이끈 역사이자 하나의 상징이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도서관 곳곳에서 신나는 도서관 활동을 하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들을 만날 수 있다. 도서관 책나라에서 책 정리에 분주한 어린이사서 6기 수빈이와 슬아, 아가방과 이야기방에서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린이사서 7기 진섭이, 하영이, 종호, 그리고 꼬투리 서가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 어린이사서 9기 채린이, 보람이, 서령이는 이제 모두 중학생이 된 어린이사서들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사서 1기 혜지는 제천기적의도서관 10주년 기념식에서 “어린이사서 활동을 하며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어 실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었다.”는 아래 글을 낭독한 바 있다.

〈표 20〉 제천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책마을 책잔치 개막식 축하인사 내용 중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사서 1기 강혜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린이사서를 하며 활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교 2학년, 어엿한 성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 꿈은 유아교사였는데, 이곳에서 그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린이사서 교육을 받고, 서가 정리하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법, 방학동안 동생들 숙제를 도와주는 일 등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서는 '언니가 읽어주는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 오는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수록 유아교사의 꿈은 확고해졌고 책을 읽어주기 위해 책을 고를 때 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공부에 매진하다보니 도서관에 자주 오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서서히 저의 꿈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의도서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오자 많은 아이들이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곤 '아 내가 유아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지?' 하며 다시 저의 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여,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인연이 깊은 제천기적의도서관으로 실습을 나와 직접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 가고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꿈의 고향인 기적의도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글_어린이사서 1기 강혜지(대원대2)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며,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 어린이사서 활동은, 지역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어린 시절의 성장을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해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책을 통한 가치형성에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역할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제천기적의도서관 10년사 편찬위원회. 『제천기적의도서관 10년사』 2013.
정미라.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영유아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 2011.
변우열.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2013.

논 문

『 논 문 』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서의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개념 분석

홍소람 · 강혜라, 장해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지도교수 : 박성우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Ⅱ.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분석

1. ‘공-창조적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2. 무한창조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Ⅲ. 무한창조공간 현황 분석

1. 무한창조공간 분석
   가. 조사개요
   나. 국외 무한창조공간 분석
   다. 국내 무한창조공간 분석
   라. 분석

2.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분석
   가. 분석 대상 및 기준
   나. 분석 내용
   다. 분석 결과

Ⅳ. 코워킹 스페이스로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모델링

1. 개념적 모델링
   가. 무한창조공간의 상시 개방
   나. 열린 작업 공간과 개별적 공간의 연결
   다. 창조 행위의 간접적 지원

2. 역할적 모델링
   가. 프로그램 연계 운영
   나. 제한적 개방
   다. 완전 개방

Ⅴ.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요 약

공공도서관은 자신의 관심사를 탐닉할 수 있는 강한 유대의 만남(high-intensive meeting)의 장이자 뜻하지 못했던 다양성을 경험하는 약한 유대의 만남(low-intensive meeting)의 장으로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창조의 관점에서, 창조를 개인의 소산이나 단순한 '만듦'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주체와 외부 세계가 만나 탄생시키는 상호작용 과정 전체로 인식하는 공-창조성의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강한 유대의 만남과 약한 유대의 만남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공도서관은 '공-창조적 공간'으로서의 관념적 상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드러난 창조 공간으로써의 실체적 상은 '무한상상실' 정책 아래에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도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명확한 차이가 없다. 더불어 무한상상공간의 기조가 되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개념은 전술했듯 단순한 만듦의 수준에서 그치며, 이 또한 '창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수준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의 실체적 상에는 도서관의 본질인 공유와 소통에 초점을 맞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적용시키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공-창조적 개념을 적용시킨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적 모델링은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만인이 공유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작업 공간과, 이 열린 작업 공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기능적 공간이다.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된 무한창조공간은 도서관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서관의 공-창조적 특질을 강화하게 된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창조공간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움으로써 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개념적 모델링을 전제로 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실체적 상, 즉 역할적 모델링은 기능적 공간을 단계적으로 개방하

며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방해 도서관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개념을 접목시키며, 향후 일반인 신청자들을 통해 분기별로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끔 한다. 나아가 공간의 완전 개방을 통해 공간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능동적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무한창조공간은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과 연계되어 이용자 중심의 창조 행위를 강조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 내 무한창조공간'이 아닌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은 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하고 나아가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키워드** : 무한상상공간,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도서관 공간, 무한상상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창조(創造)라는 개념은 비단 개인에게만 중요한 화두는 아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 창조는 개인의 소산이 아니다. 창조는 외부의 다른 것이 주체와 만나 영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서두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창조경제’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창조성 함양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국정과제 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입각한 무한상상실 운영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창의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국민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써의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한국.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1).

2015년 현재 전체 48개 무한상상실 중 13개가 도서관에 위치하여, 개별 유형의 기반시설 중에는 가장 많은 수의 무한상상실을 보유하고 있다(무한상상실 홈페이지, cited 2015.08.15.). 특히 유관협력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무한상상실 사업은 전적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만큼, 도서관이 무한상상실 사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해외 도서관 무한창조공간 사례는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상하고 있는 무한상상실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훨씬 폭넓은 개념이며 매우 다양하게 적용 및 활용되고 있다(노영희 2014, 5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무한상상실의 역할은 ‘과학적 인재 양성’이라는 한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서관은 무한상상실 사업에서 주도적이라기보다 보조적인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3개 도서관의 무한상상실은 모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 초·중·고 연계형 등 4가지 유형 중 스토리텔링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무한상상실은 '창조를 위한 공간'이라는 무한창조공간으로서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창조란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토대로 한다. 도서관의 이념은 어떠한 외부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전제 하에서 상통한다. 창조의 근간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창의성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과 아동 및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성 자극을 도서관의 중요 임무에 포함시킨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에서도 잘 드러난다(IFLA 1994). 따라서 국내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무한상상실의 개념은 현재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약적인 범주보다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창조'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소통시킬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 개념을 철학자 롬바흐가 주장한 '공(共)-창조성'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에서 무한창조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간 개념인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파악하여 도서관의 공-창조적 특질에 더욱 적합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또한 공간 개념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와 국내 도서관의 무한상상실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운영되는 코워킹 스페이스 도면을 통한 공간 사용 분석을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배치 특징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행된 모든 분석을 아울러서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을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적 모델링 및 공간 구축 제안, 실제 무한창조공간의 단계적·장기적 운영을 위한 역할적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 무한상상실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학술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노영희(2014)는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역할모형을 12가지로 분류하여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의 폭을 넓혔다.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2014)는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여 운영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노영희, 강정아, 정은지(2015)는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성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을 메이커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논문에서 제시하는 무한창조공간의 역할모형과 프로그램들의 방향성은 과학기술 및 기기의 발전에 기인한 '제작'에 초점을 맞춘 메이커스페이스의 개념보다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개념에 더욱 밀접하다.[1] 따라서 공유와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의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국내에는 도서관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을 접목시킨 연구는 없었다. 해외의 경우 Bilandzic과 Foth(2013)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주립도서관의 책 없는 도서관 공간인 '더 에지(The Edge)'를 대상으로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운영되는 공간의 이용자 중심 사례 연구로 기술의 발달에 의해 시·공간을 뛰어넘은 이용자 상호간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에 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도서관과 메이커스페이스, 혹은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에서는 그 공간들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 즉 창조와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들이 메이커스페이스나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단순한 언급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서관에 있어서의 창조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국내 무한창조공간 실정에 맞는 역할적 모델링을 중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노영희(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12가지의 역할모형에서는 사회소통공간, 창조자원 공유공간, 전문가멘토링 및 컨설팅 공간, 창조중심 협력공간 등 최소 5개 이상의 역할모형이 창조를 위한 시발점이자 조력공간으로써, 그리고 협업의 공간으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Ⅱ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분석

1. '공-창조적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일반적인 담론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진 공유의 가치는 '공공'이라는 명칭에서부터 등장한다. 즉 도서관은 애초부터 '공공공간(公共空間)'으로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공공공간이란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등장한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그들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데에서 그 시발점을 찾는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공론장의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다(이상헌 2008, 58-59).

그러나 도서관은 그 자체가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이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쌓는 개별적인 평생교육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많이 보여 왔다. 개인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도서관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도서관은 개인의 자발적 지식 획득을 주로 조력해왔다. 즉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인이나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자신의 관심사를 위주로 활동하는 강한 유대의 영역(high-intensive arena)이다. 그러나 강한 유대의 영역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향으로 특징되어,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귀결된다(Aabo and Audunson 2012, 146).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만나는 공간으로써 휴식과 산책 등의 행위를 취할 때 자신의 관심사 외에 다양성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약한 유대의 영역(low-intensive arena)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약한 유대의 만남의 장으로써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나 문화, 흥미를 가진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며 개인적인 공간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 도서관이나 캠퍼스보다도 훨씬 다양성 있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Aabo and Audunson 2012, 146).

즉 도서관은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강한 유대의 공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약한 유대의 공간으로 뜻하지 않은 접촉을 하며 자신의 관심사 이외의 다양한 것들을 접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도서관이 가진 자기 개인의 관

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강한 유대의 공간으로서의 특징과, 생각지도 못했던 것과 만날 수 있는 약한 유대의 공간으로서의 특징, 이 두 가지는 모두 '창조'라는 화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창조성(creativity)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조는 '개인의 소산'이라는 인식이며, 둘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만듦'이란 결국 기존 것 이상의 층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것을 만듦으로써의 창조성에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형태, 사물의 산출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물적 영역의 단순한 확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만듦'의 원조는 신이며,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만든" 사건에서는 "창조자, 계획, 재료, 형태, 공간, 의미와 목적" 등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만듦'은 결코 이미 주어져 있는 차원을 넘지 못하고, 그 근본법칙들과 근본형식들에 매여 있는 것이다(Rombach, 1994: 재인용: 전동진 2007, 445).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동진(2007)은 롬바흐가 만들어낸 '공-창조성(共創造性, Konkreativität)'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다.

> "공-창조성"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롬바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창조적 "생성"이란 어떤 창조적인 개별 주체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재료, 나와 사태(Sache), 인간과 상황, 인간과 자연, 인간과 현실 등 그 "구조의 생성(Strukturgenese)"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응하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전동진 2007, 453-454).

여기서의 공(共)이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을 넘어서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 전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창조적 과정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의지만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그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 자체인 것이다(전동진 2014, 47-48).

도서관은 개인이 내면을 쌓기 위한 정보자원과 만나면서 외부 세계와 접한다. 익숙한 것을 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함께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다양성에 노출될 수 있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간이

다. 그리고 창조성이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과정 전체를 아우른다. 즉, 도서관은 그 자체가 인간의 지적 행위를 함의한 '공-창조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관념적인 상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실체적인 상으로 양분될 수 있다(정준민, 박성우 2004, 270-271). 창조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관념적 상은 '공-창조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창조와 관련된 도서관의 실체적인 상은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현재 도서관은 '무한창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의 실체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한창조공간은 공-창조적 공간이라는 관념적 상을 담기에 그 범위가 좁다. 따라서 공유와 협업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창조적 역할을 더욱 적절하게 실체화시킬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무한창조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우리나라 무한창조공간은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및 핵커스페이스(hackerspace)와 유사한 개념이다.[2] 메이커스페이스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공간을 미국에서 부르는 말로, 핵커스페이스라고도 불린다(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2014, 148).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 운동에서 파생된 공간이다. 기존의 DIY(Do It Yourself) 문화의 발전된 형태로, 특히 3D 프린터 및 오픈소스 SW/HW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취미 생활수준의 향상에 나아가 결과물의 산업화까지 이루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16).

메이커스페이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장비', '커뮤니티', '공간'이다. 메이커스페이스는 혼자서는 구하거나 작업하기 힘든 다양한 장비나 작업들을 함께 수행하며 실제적인 생산물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2)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 정책인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융합교육정책인 STEM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창조적 공간이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융합교육정책은 예술과 인문사회를 포함시킨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으로 정의되고 있어 그 발전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다(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2014). 그러나 무한창조적 행위를 위한 공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커뮤니티는 장비를 배우기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장비를 구축한 공간을 중심으로, 강사와 수강생, 수강생과 수강생 등이 소통하는 개념이다. 즉 제작과 생산의 행위가 메이커스페이스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나타난다(Kelly 2013; Graves 2014; "What's a Makerspaces?" 〈http://spaces.makerspace.com/〉 cited 2015. 08. 22.).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작과 생산의 행위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O'Reilly/DARPA Makerspace Playbook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의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디자인,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 등에서의 문해력(literacy)을 함양할 수 있기를 예상하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해력을 더욱 심도 있게 함양시켜주는 관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해력을 함양한다는 목적은 도서관이 평생교육과 지적 활동의 장으로써 근대 이후로 수행해왔던 핵심 기능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어떤 측면에서 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메이커스페이스였던 것이다(Colegrove 2013, 2).

따라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행위는 결국 도서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부차적 기능이다. 특히 공간적 의미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장비를 구비해두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행위는 단순히 장비로 구현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는 전술했듯 삶의 일부분이며,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유의 과정 전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도서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는 창조적 공간의 개념에는 '공유와 협업'을 더욱 강조하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의 개념이 더욱 적절하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능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협업으로 일하는 공간을 의미한다(이한재 2014, 54).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와 전문가 등이 혼자 일하면서 겪는 외로움이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공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협동작업을 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때로 서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Cohen 2011, 9).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과 커뮤니티를 통해

존속될 수 있다. Cohen(2011)은 경제와 커뮤니티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시나리오를 4가지로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들의 공통점으로 커뮤니티를 꼽으며 이것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협업 체계는 더욱 악화되거나 종래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개념에도 협업(co-working)이 내포되어 있으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본질적으로 더욱 광의의 개념이 되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장비를 통한 생산 행위가 갖는 의미를 포괄하며, 이를 통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공간 개념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도서관이 본래 커뮤니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합쳐져 그 특성이 더욱 강화된다. 책이 없는 도서관을 표방하는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의 'The Edge'는 가벽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개인 공간과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적 공간인 강당, 트여 있는 로비, 장비를 구비해 둔 랩(Lab) 등으로 나뉜다(Bilandzic and Foth 2013, 258-260).

따라서 현재 국내 및 해외의 무한창조공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안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무한창조공간의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Ⅲ 무한창조공간 현황 분석

1. 무한창조공간 분석

가. 조사개요

조사 대상은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도서관 내 메이커스페이스 6개를 선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5년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운영 예정 및 운영되고 있는 무한상상실 13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5년 8월 7일

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 조사, 이메일을 통한 서면 문의 및 전화 문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내 무한창조공간의 프로그램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2) 도서관 내에 이를 위한 공간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3) 도서관 대비 무한창조공간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특히 프로그램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영희(2014)가 제시한 12개의 역할모형을 중복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역할모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노영희가 제시한 역할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도서관 무한상상공간 역할모형(노영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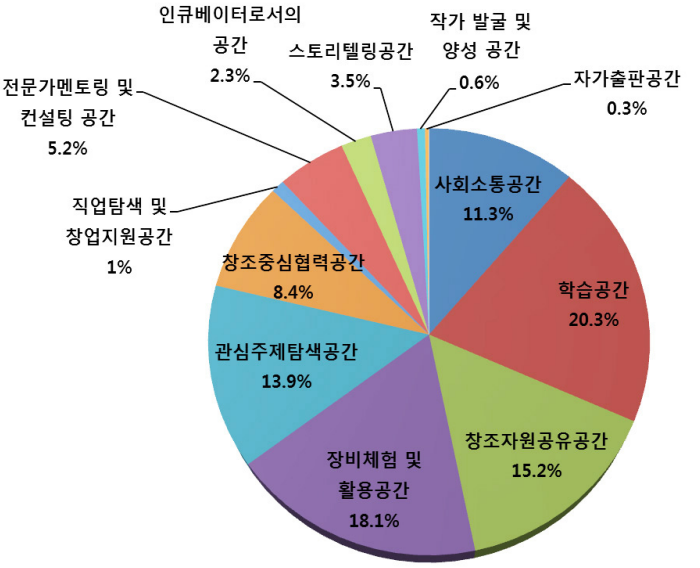
사회소통공간	모든 계층 간 지역사회 소통을 이룩해 낼 수 있는 핵심적 공간	자가출판공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공간
학습공간	비공식적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참여적 학습 공간	인큐베이터로서의 공간	협력적 브레인스토밍과 실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창조자원 공유공간	이용자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전문가멘토링 및 컨설팅 공간	특정 주제 분야의 관심이용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공간
관심주제 탐색공간	평상시 접하는 주제와 다른 주제를 심도 있게 접할 기회 제공	장비체험 및 활용공간	다양한 장비를 제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직업탐색공간 및 창업지원공간	본래의 직업과, 제2의 직장 탐색 공간	창조중심 협력공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주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작가발굴 및 양성공간	지역 내 작가커뮤니티 구축 및 육성 공간	스토리텔링공간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영상매체나 콘텐츠 등을 생산하는 공간

나. 국외 무한창조공간 분석

조사를 위하여 선정된 도서관은 존슨카운티도서관(johnson county library), 미줄라 공공도서관(Missoula Public Library),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Sacramento

Public Library), 페이엣빌 무료 도서관(Fayetteville Free Library), 웨스트포트도서관(The Westport Library), 브루클린 공공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이다.

[그림 1] 국외 도서관 내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먼저 프로그램의 경우, 국외 도서관 내의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프로그램은 도서관 내에 마련한 실제 공간을 중심으로 3D 프린팅이나 프로그래밍, 재봉, 공예 등의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로 장비를 통해서 활동하는 과학 및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나 예술, 공예 등의 프로그램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공간(20.3%)”과 “장비 체험 및 활용공간(18.1%)”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한 모든 도서관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오바마 정부의 융합교육정책인 STEM에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구축하고 있는 장비의 수 또한 매우 다양하고 폭넓었는데, 주로 제작 장치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3D 프린터의 경우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5개 도서관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해외 도서관 6개 중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5개 도서관에서 모두 ‘메이커스페이스’ 만을 위한 공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페이엣빌 무료 도서관의 경우에는 타 도서관에 비하여 약 10배 정도의 면적을 메이커스페이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공간 비율도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페이엣빌 무료 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세 공간으로 분리시켜 3D 프린팅과 컴퓨터 HW/SW 등의 과학기술 관련, 영상촬영 및 스토리텔링 관련, 아동 관련 등으로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했다는 점에서 메이커스페이스의 개념 폭을 훨씬 넓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위치 접근성에 있어서도, 메이커스페이스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모든 도서관이 1층에서 메이커스페이스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지할 만 하다.

〈표 2〉 국외 도서관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분석

도서관명	메이커스페이스 독자적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면적(sqft)	메이커스페이스 /전체면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장소
존슨카운티도서관	전용	400(37㎡)	0.5	makerspace(1층) 예정
미줄라 공공도서관	전용	325(30㎡)	0.8	다목적실(1층)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	전용	480(44㎡)	3.7	아카이드 도서관 1층
페이엇빌 무료 도서관	전용	3000(278㎡)	7.7	3개 공간 제공
웨스트포트도서관	전용	320(29㎡)	0.7	Great Hall 내(1층)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겸용	–	–	중앙도서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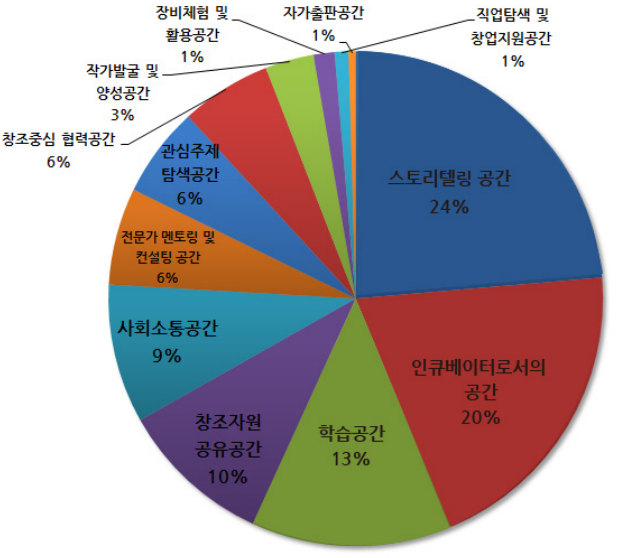
또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간을 상시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메이커스페이스는 주로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 시간 또한 프로그램 관련 시간이나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3] 이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는 장비 대부분이 고가이며 이를 다루는 데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인 디자인 스팟은 3D 프린팅 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수・토요일 등 3일만 개방하고 있다. 웨스트포트도서관의 경우 3D 프린터의 사용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다.

다. 국내 무한창조공간 분석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3년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그 중, 공공도서관은 광진도서관(서울), 목포공공도서관(목포) 2개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2014년도에는 광진도서관(서울), 목포공공도서관(목포)을 비롯하여 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 수성구립범어도서관(대구), 율목도서관(인천), 제천기적의도서관(충북), 청주기적의도서관(충북), 당진도서관(충남)의 8개관에서 무한상상실을 개소하였고, 2015년도 현황으로는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서울),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부산), 달서어린이도서관(대구), 천안시쌍용도서관(충남), 광양시문예도서관사업소(전남)의 5개관에서 추가적으로 개소하였다.

[그림 2] 국내 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분석



국내 도서관의 무한상상실은 전체 무한상상실의 프로그램 중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 도서관과 달리, 국내 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의 기조는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24%)"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각 도서관만의 특색을 더하여 스토리 또는 영상물이나 UCC, 도서같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제적인 측면에

서는 과학, 해양, 지역사회, 어린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 내 주제 특성화와도 연계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스토리텔링 능력 함양으로 창업 및 인재 양성에 조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큐베이터 공간(20%)"으로서의 특성 또한 두드러졌다. 많은 프로그램이 스토리텔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학습공간(13%)"으로서의 역할 또한 동시에 대두되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치 접근성에서는 제천 기적의도서관과 청주 기적의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2층 이상에 무한상상실을 위치해놓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도서관 특성상 상대적인 지대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국내 도서관은 특히 무한상상실 공간을 따로 편성한 경우가 6개관이었다. 주로 도서관 내 기존 다목적실이나 열람실 등을 개조하여 무한상상실을 위한 용도로 개편해 활용하여, 다른 용도로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4] 다른 8개 도서관의 경우에는 문화강좌실이나 소극장, 동아리실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무한상상실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특별한 장비를 마련한 경우는 광진정보도서관의 경우에 한정되었는데, 도서관 공간 유용의 문제 및 현실적 예산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내 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공간 분석

도서관명	무한상상실 독자적 공간	무한상상실 면적(㎡)	무한상상실/ 전체면적(%)	무한상상실 운영장소
광진정보도서관	전용	90.51㎡	1.2	무한상상실(2층)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전용	575㎡	4.6	무한상상실(3층)
수성구립범어도서관	겸용	–	–	문화강좌실(4층) 국제자료실(2층)
율목도서관	겸용	–	–	소극장(2층)
제천기적의도서관	전용	39.6㎡	0.8	무한상상실(1층)
청주기적의도서관	겸용	–	–	동아리실(1층)
당진도서관	겸용	–	–	다목적실(3층)

4) 광진정보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열람실을 개조하여 녹음실, 영상편집실, 소강의실을 신설하였다. 목포공공도서관의 경우 해양과학자료실과 해양과학상상교실 등에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전용 공간을 배치하였다.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의 경우 3층에 있는 강의실을 무한상상실이 운영되는 개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명	무한상상실 독자적 공간	무한상상실 면적(㎡)	무한상상실/ 전체면적(%)	무한상상실 운영장소
목포공공도서관	전용	52.65㎡	0.9	해양과학교실(3층)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	전용	73.77㎡	2.7	무한상상실(3층)
부산광역시중앙도서관	겸용	–	–	시청각실(4층)
달서어린이도서관	겸용	–	–	강의실
천안시쌍용도서관	전용	165㎡	3.4	무한상상실(2층)
광양시문예도서관사업소	겸용	–	–	시청각실(3층)

따라서 국내 도서관 무한상상실의 경우 완전히 독자적인 공간을 배정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며, 상시 개방된다기보다 다용도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무한상상실 현황에서는 도서관의 본래 역할인 사회소통공간 및 창조중심 협력공간, 창조자원 공유공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라. 분석

무한창조공간 분석을 통해 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국내 및 국외 무한창조공간 특성

공통점	차이점	
	해외	국내
• 프로그램 위주의 활동 • 상시 개방하지 않음	• 위치 접근성 강함(1층) • 과학 및 기술 관련 프로그램 • 장비 중심의 시설 구축	• 위치 접근성 약함(2~4층 중심) • 스토리텔링 중심 프로그램 • 장비 구축 어려움

첫째, 해외와 국내 모두 프로그램 위주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창조'라는 주제를 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무한창조공간의 현실적인 구현 형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자율적인 소통

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 발현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이 있다고 해도 상시적으로 개방하지 않는다. 장비나 프로그램의 문제, 혹은 애초 강의실 및 다목적실로 활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공간을 개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성질이 더욱 강해진다. 특히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외와 같은 과학기술 및 장비 위주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애초에 구현하기 어려우며, 스토리텔링 중심의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모호하다.

특히 프로그램 중심성으로 인해, 무한상상실이 상상과 창조를 위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그 결과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1층에 무한상상실을 위치시킴으로써 약한 유대의 만남(low intensive meeting)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와는 달리 국내의 무한상상실은 주로 2~4층에 위치해있어 강한 유대의 만남(high intensive meeting)이 더욱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의 무한상상실이 가지고 있는 기조는 국내 도서관의 현실과 밀접하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분석

가. 분석 대상 및 기준

대상이 되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Symmetry50[5]이 선정한 100개의 코워킹 스페이스 중 상위 20개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목적으로 평면도(floor plan)를 요청하였다. 그중 답장을 통해 평면도를 제공해준 임팩트 허브 오클랜드(Impact Hub Oakland), 이지 스페이스(EZ Space), 워크 프로그레스(Works progress) 등 3개 코워킹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공간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 사적 공간 대여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 분석의 대상으로는 협업(co-working)을 위해 배치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5) 2014년에 만들어져 스타트업과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부기 서비스(bookkeeping service)를 제공하는 업체. (Symmetry50. [online.] [cited 2015.08.22.] <http://www.symmetry50.com/about/>)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복합화 공간이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복합적 역할이 도서관에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세영(2013)의 논문에서 제시된 공공공간의 프로그램 복합화에 따른 특성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을 기반으로 제시된 중점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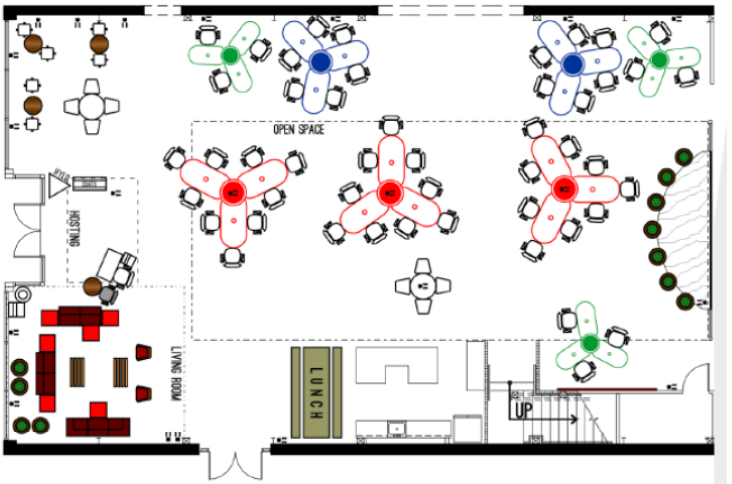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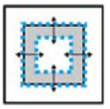
1) 코워킹 스페이스 사용자의 경험은 어떤 특질에 기반을 두는가?
2) 코워킹 스페이스는 여러 공간의 다양한 기능들을 어떤 방법으로 복합화하고 있는가?
3)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공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표 5〉 사용자 중심의 공공공간 분석 기준(김세영 2013, 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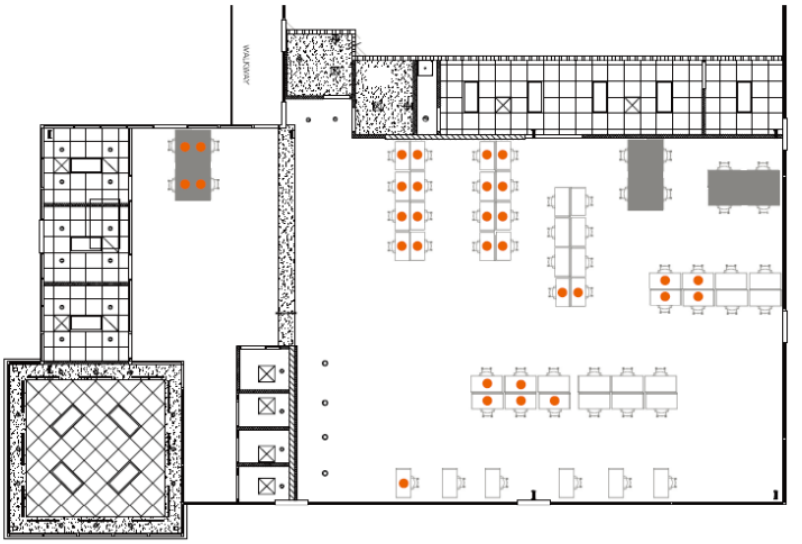
사용자 경험 유형	물리적 경험	•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 • 물리적 공간의 구조와 형태가 사용자의 반응, 행위, 정보에 따라 다양한 결과 도출 • 경험 및 참여 중심의 효과가 극대화
	유희적 경험	• 공간 자체가 주는 정보, 사건 및 이벤트에 의해 사용자의 전개 및 변화 • 전시 및 상업 공간에서 영상, 동작인식 반응 시스템에 의한 움직임의 극대화 효과
	감성적 경험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디지털 아트의 다양한 기술과 미술양식 융합·새로운 경험 창출 • 여러 감각과 매체 복합으로 사용자가 이전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것
프로그램 복합화 기능	분리(A, B)	• 각각의 독립된 공간의 기능이 존재
	통합(A+B)	• 두 개의 분리된 기능을 한 공간으로의 병합
	가변(A or B)	• 공간 내 상황에 따른 공간 통합 및 분리 가능
	연속(A→B→C)	• 복합 프로그램 기능의 연속적 연결 • 단일 흐름에 의한 공간의 유동성, 가변성
	열림(A+B)	• 시각적으로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 의한 통합, 가변, 연속, 침투 기능이 잠재되어 있음
	침투(A〉B or A〈B)	• 공간의 기능 혹은 공간의 배치 규모에 의한 상호 침투에 의한 공간의 기능 변화 가능
공공공간 특성	복합성	• 내부 및 외부, 기능과 기능의 고정된 공간에서 중심을 분산하고 분산 배치된 프로그램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공하는 것
	가변성	• 고정되어진 경계에 대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매개적 역할을 하며 공간의 활용적 측면이 다양하게 제공됨. 커뮤니티 시설로서 상호작용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가능케 함
	개방성	• 모든 사용자에게 물리적,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계획에 유용한 요인으로 작용

나.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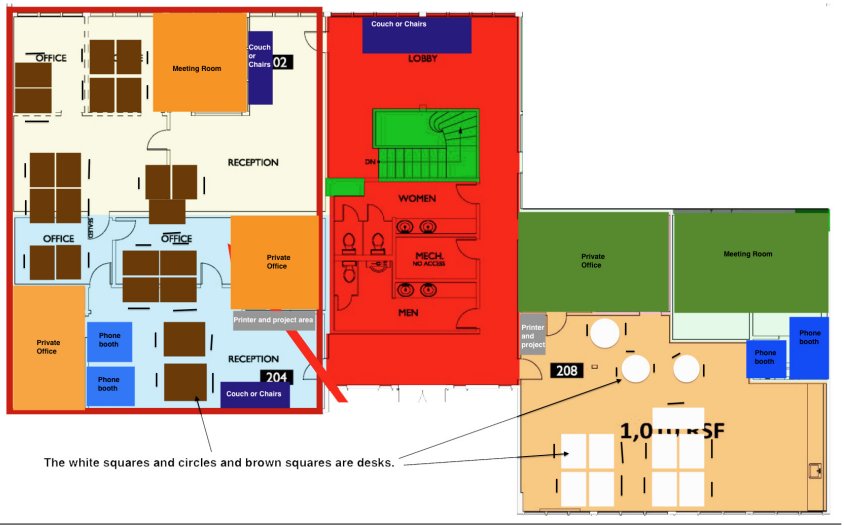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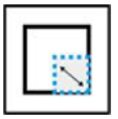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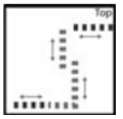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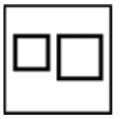
〈표 6〉 임팩트 허브 오클랜드(Impact Hub Oakland) 공간 분석

<table>
<tr><td colspan="3">이름</td><td colspan="5">임팩트 허브 오클랜드(Impact Hub Oakland)</td></tr>
<tr><td colspan="3">개요</td><td colspan="5">•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워킹 스페이스의 지점
• 현재 전 세계에 7,000명 이상의 회원과 5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
• 극장, 연회장, 소규모 회의실 등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 및 대여</td></tr>
<tr><td rowspan="5">공간
분석</td><td rowspan="2">공간</td><td>도면</td><td colspan="5"> 
</td></tr>
<tr><td>특징</td><td colspan="5">• 개인 작업공간, 휴식공간, 접대공간, 식사공간이 공간 구분 없이 하나의 홀에 존재
• 작업공간의 테이블이 개인작업 및 협업이 자유롭게 가능한 형태
• 용도가 자유로운 구조물: 우측 반원형 계단. 휴식 장소 혹은 자유로운 자세의 업무 장소로 활용 가능. 명확히 용도가 규정되어있지 않아 자유로운 전용 가능</td></tr>
<tr><td rowspan="4">분석
내용</td><td>기능</td><td colspan="2">특성</td><td colspan="2">사용자 경험 유형</td></tr>
<tr><td rowspan="3">  </td><td>복합성</td><td>√</td><td>경험유형</td><td>특 징</td></tr>
<tr><td>가변성</td><td>√</td><td rowspan="2">물리적
경험</td><td rowspan="2">• 명확한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아 자유롭게 공간을 전용할 수 있음
• 이용자 의도에 따라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td></tr>
<tr><td>통합</td><td>개방성</td><td>√</td></tr>
</table>

〈표 7〉 이지 스페이스(EZ Space) 공간 분석

<table>
<tr><td colspan="3">이름</td><td colspan="5">이지 스페이스(EZ Space)</td></tr>
<tr><td colspan="3">개요</td><td colspan="5">• 존 마흔과 데본 딕킨슨이 2012년 애리조나에 만든 코워킹 스페이스
• 1인 사업가, 프리랜서, 독립적 전문가들을 위해 만든 공간
• 커피숍, 도서관, 레스토랑 및 기본적 시설을 제공하며 비즈니스를 지원</td></tr>
<tr><td rowspan="6">공간
분석</td><td rowspan="3">공간</td><td>도면</td><td colspan="5">  </td></tr>
<tr><td>특징</td><td colspan="5">• 개인 작업공간 중심으로 주변에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미팅 룸, 폰부스 등) 배치
•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한 구조
• 사적 업무공간(미팅 룸) 등을 유리벽으로 둘러 개방적 느낌을 주고, 가변적인 느낌을 줌</td></tr>
<tr><td rowspan="4">분석
내용</td><td>기능</td><td colspan="2">특성</td><td colspan="2">사용자 경험 유형</td></tr>
<tr><td rowspan="3"> </td><td>복합성</td><td>√</td><td>경험유형</td><td>특 징</td></tr>
<tr><td>가변성</td><td>√</td><td rowspan="2">물리적 경험</td><td rowspan="2">• 업무 기능이라는 이용자 공통의 목적을 기반으로 개별적 행동 수행 가능
• 필요에 따른 기능별 공간 유용(미팅 룸, 개인 작업공간, 폰부스 등)을 통한 경험 수행</td></tr>
<tr><td>가변</td><td>개방성</td><td></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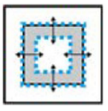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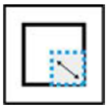
〈표 8〉 워크 프로그레스(Works progress) 공간 분석

<table>
<tr><td colspan="3">이름</td><td colspan="7">워크 프로그레스(Works progress)</td></tr>
<tr><td colspan="3">개요</td><td colspan="7">• 제시 림프와 마니 추아가 2012년 만든 코워킹 스페이스
• 자유롭게 전용 가능한 협업 공간과 개인 오피스 등을 공유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 요리 프로그램과 소수자 및 여성들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개최</td></tr>
<tr><td rowspan="4">공간 분석</td><td rowspan="2">공간</td><td>도면</td><td colspan="7"> 
</td></tr>
<tr><td>특징</td><td colspan="7">• 로비를 중심으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두 곳으로 분할
• 개인 작업을 위한 분리된 전용 사무실(private office)를 코워킹 스페이스 내에 별개로 위치시킴
• 업무 기능 중심의 다른 코워킹 스페이스와 달리 커뮤니티 기능 중심의 프로그램 활성화</td></tr>
<tr><td rowspan="4">분석 내용</td><td colspan="3">기능</td><td colspan="2">특성</td><td colspan="2">사용자 경험 유형</td></tr>
<tr><td rowspan="2">  </td><td rowspan="2">  </td><td rowspan="2">  </td><td>복합성</td><td>√</td><td>경험유형</td><td>특징</td></tr>
<tr><td>가변성</td><td>√</td><td rowspan="2">물리적 경험</td><td rowspan="2">• 개인 업무 따라 공간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경험의 총화</td></tr>
<tr><td>가변</td><td>연결</td><td>분리</td><td>개방성</td><td></td><td rowspan="2">유희적 경험</td><td rowspan="2">• 커뮤니티성이 강조된 프로그램 등에 기반한 경험</td></tr>
</table>

다. 분석 결과

3곳의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분석

기 능			공공공간 특성		사용자 경험 유형	
			복합성	√	물리적 경험	• 사용자 중심의 공간 제공 • 제공되는 이벤트·프로그램은 부차적 요소 • 전체 건물 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자유로운 공간으로 기능
			가변성	√		
통합	가변		개방성	코워킹 스페이스가 전체 시설에서 중앙 홀처럼 기능할 경우		

첫째, 코워킹 스페이스들은 공통적으로 복수의 공간 기능을 통합이나 가변 등을 통해 구현한다. 개인의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보조 공간 기능들이 함께 있는 형태로 비동일적인 공간 기능의 적용을 보여준다. 아예 기능별 구분을 두지 않거나(임팩트 허브 오클랜드) 유리벽 등을 통해 구분해두면서(이지 스페이스)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간이라는 일체감을 제공한다.

둘째, 코워킹 스페이스들은 복합성과 가변성을 가지며, 주로 전체 건물 내에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해있다. 도서관이나 폰 부스, 미팅룸 등의 공간 등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주변에 부차적으로 붙어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특정한 기능이나 이벤트 중심이라기보다, 이용자가 공간을 통해 경험하는 물리적 경험이 중심이 된다. 개방성 또한 코워킹 스페이스 자체가 전체 시설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경우[6]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는 개별적 업무 행위 수행을 위한 회원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성은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6) 임팩트 허브 오클랜드의 경우 1층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위치해있고, 2층에 발코니와 같은 형태로 미팅 룸 등이 위치해있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고, 중심부를 비워두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된 공간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시사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워킹 스페이스는 전체 시설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 약한 유대의 만남과 강한 유대의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도서관 이용자의 핵심적인 활동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배치는 달라야 한다. 현재 분석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형태는 일견 도서관 열람실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서관의 열람실은 공부나 독서 등 극히 제한적인 활동에만 적용되어, 공간의 자율성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구성을 그대로 도서관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코워킹 스페이스는 오히려 또 다른 독서실 열람실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특징, 즉 공간의 기능적 통합 및 가변을 통해 물리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살려, 도서관만의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설계를 새로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Ⅳ 코워킹 스페이스로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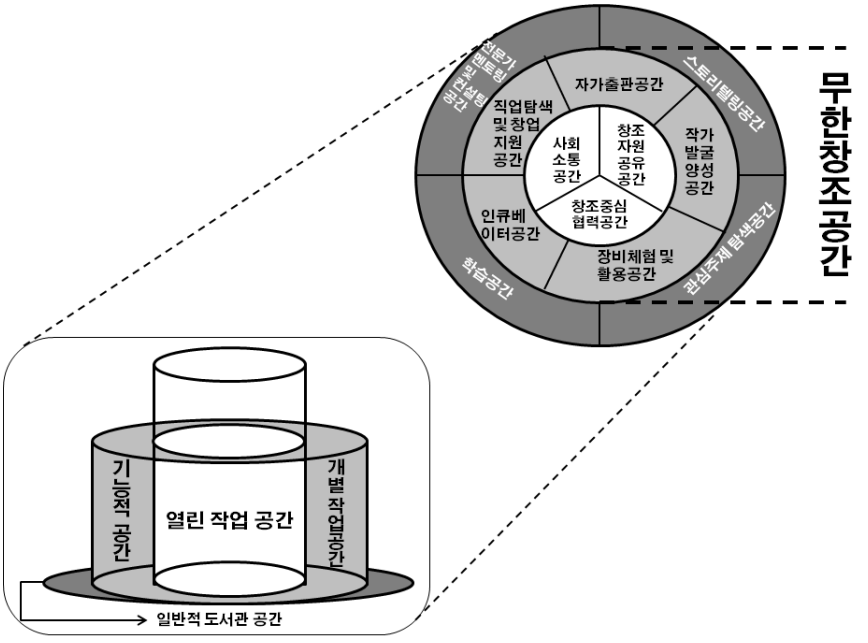
1. 개념적 모델링

기존의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은 창조를 개인의 소산이자 '만듦'의 층위에서 바라보았다. 따라서 무한창조공간의 프로그램은 교육의 관점에서 제작을 후원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서관의 본질이 공유와 소통이며, 지적 창조를 위한 시발점임을 고려했을 때, 무한창조공간은 이용자의 도서관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핵심 공간으로, 모든 도서관 기능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도서관 모든 기능의 발원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코워킹 스페이스는 철저하게 '이용자 본위'적인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코워킹 스페이스 중심적 도서관 공간은 나아가 '도서관 내 무한창조공간'이 아닌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은 만인이 공유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열린 작업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특정한 창조 행위에 몰두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층위인 열린 작업 공간은 이용자들이 협업과 소통, 그리고 개인적 업무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층위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 기능적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층위에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기술과 장비 구축 등 기능적으로 창조 행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작업 공간과 기능적 공간, 이 2개의 층위가 도서관 내의 무한창조공간으로 제공되며, 그 외부의 세 번째 층위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도서관의 역할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질 수 있을 때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림 3]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개념적 모델링이며, 노영희(2014)가 제시한 무한창조공간의 역할모델 12개를 3개 층위에 나누어 도서관 전체에 전사시킨 것이다.

[그림 3] 공공도서관에서의 무한창조공간 개념적 모델링



열린 작업 공간, 즉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다른 모든 공간과 연결되며 그 주변에 이를 지원하는 기능적 공간이 존재하고, 기저에 일반적 도서관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 존재하여 이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가. 무한창조공간의 상시 개방

도서관의 사상을 아우르고 관통하는 코워킹 플레이스로서의 무한창조공간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무한창조공간은 지금과 같이 필요에 의해서만 개방되는 것이 아닌 상시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도서관이 규정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열린 작업 공간과 개별적 공간의 연결

열린 작업 공간과 개별적 공간은 구분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가벽이나 홀딩도어, 유리창 등의 도구는 이러한 공간적 연결을 가능케 만든다. 이미 충분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세분화된 도서관 공간에서 사적 몰입 공간을 이 이상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서실로 악화될 여지가 있으며, 공간을 더욱 복잡화시킨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지인과 자기 관심사를 탐구하기 위한 강한 유대의 만남과 다양성을 접하게 되는 약한 유대의 만남을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필요에 따라 공간 전체를 유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결시켜야 한다.

다. 창조 행위의 간접적 지원

도서관은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무한창조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을 간접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장비 이용, 학습, 관심주제 탐색,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능을 주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청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임의적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무한창조공간 동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후 판단해야 한다.

2. 역할적 모델링

새로운 개념의 무한창조공간이 별다른 준비과정 없이 곧바로 열렸을 경우 열린 작업 공간은 단순한 열람실과 같이 이용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곧바로 무한창조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지역주민들에게 무한창조공간의 목적과 이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단계적 역할 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다. 기준은 기능적 작업 공간의 단계적 공개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은 무한창조공간의 단계별 역할 모델링이다.

〈표 10〉 도서관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 단계별 모델링

	→		
	프로그램 연계 운영 단계	제한적 개방 단계	완전 개방 단계
대상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강사	일반인 중 신청자	일반 이용자
제공	수업 관련 공간	분기별 자유 활동 공간	개방 운영 및 자유로운 전용
내용	도서관 프로그램 상설화	• 공간 활용 결과물 공유 및 토론 • 공간 활용자 간 친목 도모 행사	이용자에 따른 공간 활용 지원
효과	• 도서관 프로그램과 코워킹 스페이스 개념 인식 접목 • 전문가 간 협업 촉진	무한창조공간 역할 인식 확장	도서관의 능동적 이용 활성화

가. 프로그램 연계 운영

코워킹 스페이스는 본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다. 따라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능적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의 전문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들이 될 수 있다. 이들 중 수업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을 대여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맡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 개념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접목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 양성반 등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무한창조공간의 공적 공간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나. 제한적 개방

전문가 대상의 공간 대여를 통해 자발적인 활동이 행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고착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간이 일반적인 학습의 공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간이 종료할 때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공유·전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참여자를 선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단순한 제작이나 창작뿐 아니라 지적 생산물 또한 넓은 의미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은 창작을 도모하기 위해 무한창조공간의 사적 몰입 공간의 대여자들을 대상으로 친목을 도모하도록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생산물은 생산자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발원하게 된다.

다. 완전 개방

프로그램 연계 운영 단계와 제한적 개방 단계를 거쳐 일반 이용자들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일반적인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제작, 혹은 공부에 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수준의 창조 행위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써 도서관은 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 무한창조공간이 독서실이나 일부의 활동 공간으로만 이용되지 않도록 예약제를 받거나, 일주일 및 월별로 제한을 두는 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사서는 공간의 관리자이자 기획자로서,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창조행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장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차원에서 메이커스페이스의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행위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통해 도서관의 외연을 가일층 확장시킬 단초를 얻게 된다.

V 결론 및 한계

도서관에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이 들어선 것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의거한 것이었다. 주체가 된 것이 아닌, 유관기관으로서 협력적 관계에 있는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은 따라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서관이 창조를 위한 공간으로서 가진 가능성은 훨씬 크다. 고로 국내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창조라는 개념이 단순히 제작이나 스토리텔링 등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행위에 그친다고 규정할 경우,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 된다. 하지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 창조는 결코 개인 차원에서 발원할 수 없는 큰 흐름이자 상호작용 그 자체로 규정된다. 공-창조성의 논조에 입각하여 창조의 시원을 소통과 공유로 삼는다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일치한다. 또한 무언가를 제작하는 행위의 목적이 사물 및 현상을 관통하는 문해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임을 고려했을 때 무한창조공간은 결국 본질적으로 도서관 그 자체가 된다.

따라서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에는 기존에 접근하던 장비와 제작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개념이 아닌, 협업과 공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관점이 더욱 적절하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제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의 커뮤니티 구축과 협업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커스페이스의 광의로 해석된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간적으로 중심부에 개인이 자유롭게 개별적 작업 및 협업을 구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에 미팅 룸, 폰 부스, 독립 사무실 등 기능별로 분화된 보조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합칠 때 구분을 두지 않거나 투

명한 유리벽 혹은 가벽을 설치해두는 형태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가변성과 복합성을 높인다.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는 전체 건물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만인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창조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가운데에 만인이 왕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배치시키고, 주변에 개인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의 기능을 포함한 기능적 공간을 배치시킨다. 이 바깥 층위에서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을 전사시켜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공간 배치와 창조행위 지원을 중심으로 한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은 결국 단순한 '도서관 내 무한창조공간'이 아닌,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으로 도서관 전체에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프로그램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프로그램은 이용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창조성 및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므로, 프로그램 분석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도서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으나, 이미 건축되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도서관은 공(公), 공(共), 공(空) 등 세 가지 공을 모두 가진 공간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공간이며, 동시에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고, 무엇으로든지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도서관은 장서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 공간 구성에 힘써왔고, 그 것은 실제로 도서관에 대한 공간적 이미지를 하나로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할 새로운 도서관은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무한창조공간적 도서관'은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도서관은 무한창조공간을 단순한 정책적 협력의 입장이 아닌 개념적·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영.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 계획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013), 22(3): 52-60.

김영환.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STEPI Insight(2015), 164: 1-35.

노영희, 강정아, 정은지.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2015), 46(2): 71-111.

노영희. “도서관 무한창조공간 구축 및 운영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2014), 31(1): 53-76.

무한상상실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5.08.15.] 〈http://www.ideaall.net〉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매뉴얼』. 미래창조과학부. 2014.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2014), 31(2): 143-171

이상헌. “공공영역과 공공디자인 - 공공영역과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건축과사회(2008), 11: 57-65.

이한재. “한국형 코워킹 스페이스 실내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4), 14(2): 54-55.

전동진. “건축가 정기용과 공(共)창조성의 철학.” 존재론연구(2014), 34: 37-63.

전동진. “구조존재론 - 인간과 자연의 공창조성의 철학 -.” 하이데거연구(2007), 15:439-470.

정준민, 박성우. “정보의 유비쿼터스적 해석을 통한 도서관 본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2004), 21(4): 265-279.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국내외 메이커 운동 사례조사 및 국내 메이커 문화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Aabo, Svanhild. and Audunson, Ragnar.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2012), 34: 138-149.

Bilandzic, Mark. and Foth, Marcus. “Libraries as co-working spaces :understanding

user motivations and perceived barriers to social learning." Library Hi Tech(2013), 31(2): 254-273.

Cohen, A. M. "Four scenarios for co-working: sharing workspace offers potential benefits in an uncertain economy." The Futurist(2011), 45(4): 8-10.

Colegrove, T. "Editorial Board Thoughts: Libraries as Makerspace?."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y(2013), 32(1): 2-5.

EZ Spaces Homepage. [online.] [cited 2015.08.22.] 〈http://www.ezspaces.com/about.php〉

Graves, C. "What is a Makerspace?" Knowledge Quest(2014), 42(4): 8-13.

IFLA.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IFLA Hompage. [online.] [cited 2015.08.18.]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unesco-public-library-manifesto-1994〉

IFLA.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IFLA. 1994.

Impact Hub Oakland - About Us. [online.] [cited 2015.08.22.] 〈http://oakland.impacthub.net/coworking-space-oakland-our-story-2/〉

Kelly, A. "Why do we need one of those?: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in creating and promoting makerspaces." In: ALIA National Library & Information Technicians' Symposium 2013 waves of change. pp.1-13.

Symmetry50 - about. [online.] [cited 2015.08.22.] 〈http://www.symmetry50.com/about/〉

What's a Makerspace?. [online.] [cited 2015.08.22.] 〈http://spaces.makerspace.com/〉

Works progress Homepage. [online.] [cited 2015.08.22.] 〈http://www.worksprogressseattle.com/en〉

『 논 문 』

장 려 상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어린이서비스 모델 연구

김예빈 · 김지아 · 박수진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지도교수 : 이혜영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본 론

1.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특징

2. 무한창조공간의 역사 및 발전

3.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가. 선행연구
   나.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국내외 사례 및 현황

4.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수요조사
   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분석
   나. 어린이 대상 인터뷰 분석
   다. 수요조사 결과 분석

5.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모델제안
   가. 운영방안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Ⅲ.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요 약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 6월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의 3가지 유형별로 운영되는 '무한상상실' 시범 운영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무한상상실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경우 그 분야가 스토리텔링 분야에 그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공도서관 무한상상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층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분야의 구체화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활성화 및 이용률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주 이용자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어린이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무한창조공간과 달리 어린이들을 위한 무한창조공간 모델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 향상 및 주도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주 이용자층인 어린이들의 공공도서관으로의 유입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무한 창조공간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어린이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기에 앞서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실질적인 이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그 운영형식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학교 방과 후 교실의 수요가 높음을 파악하였다. 기존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이 단기에 그친다는 것과 달리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과 후 교실에 대한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을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운영형식으로 도입한다면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어린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어린이서비스 모델의 운영형식을 방과 후 교실로 하고, 그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의 체계적인 제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어린이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10대 뉴스 중 하나로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5년도 시행계획을 선정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으로 7개의 추진전략, 20개 정책과제, 9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차 계획의 목표 첫 번째는 모두가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로 국민 행복 구현이다. 두 번째는 학습, 연구, 지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 강국 실현이다.[1] 이는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 발현을 극대화해줄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창의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들의 소통·융합형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표로 2013년에 무한상상실이 구축되었다.

기존 무한상상실의 개념이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국내 사례의 경우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전남목포공공도서관 등이 있으나 이는 스토리텔링 분야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이 제한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서관에서의 무한창조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이용자층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도서관에서의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이 스토리텔링 분야에 그치지 않고 더욱 폭넓은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2]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이용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자

1)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요사업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수립'
2)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자료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창조공간 서비스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무한창조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창의성 발현 및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무한창조공간을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주 이용자 계층인 어린이들의 공공도서관 유입을 높이고 나아가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이용자층을 어린이로 제한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어린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 6월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의 3가지 유형별로 운영되는 '무한상상실' 시범 운영을 공모하였으며 과학관과 도서관, 박물관, 대학, 우체국,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5개 기관을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 국내 공공도서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무한상상실의 경우 그 분야가 스토리텔링에 그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을 특정 이용자 계층으로 제한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해 나아가 전 이용자 계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계층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이용자 계층을 어린이로 제한하고 이에 적절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창조공간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모델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모델을 제안하여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에 적합한 모델제안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수요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4~13세 어린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 110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실시하였고, 110장 모두를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인식 및 운영 방식 선호도, 자녀의 프로그램 이용 경험 및 보완할 점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현재 무한상상실이 운영되고 있는 광진정보도서관 이용자 중 9~11세 어린이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자마다 약 20~30분 실시하였으며, 광진정보도서관의 무한상상실 유경험자(5명)와 무경험자(3명)로 나누어 그 질문을 달리하였다. 무한상상실 유경험자의 경우 무한상상실 및 방과 후 교실에 관한 인식과 무한상상실이 방과 후 교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으며, 무경험자의 경우 도서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무한상상실의 스토리텔링형, 실험·공방형, 아이디어클럽형의 세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Ⅱ 본 론

1.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특징

무한창조공간은 미국에서는 'Makerspace'라고 하며, Hackspace 혹은 Hackerspaces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주로 UK Maker Faire, Hackspace, Hacklab, Makerspace, Creative Space, Makerspaces라고 부른다.[3] 이는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강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식 공유와 공동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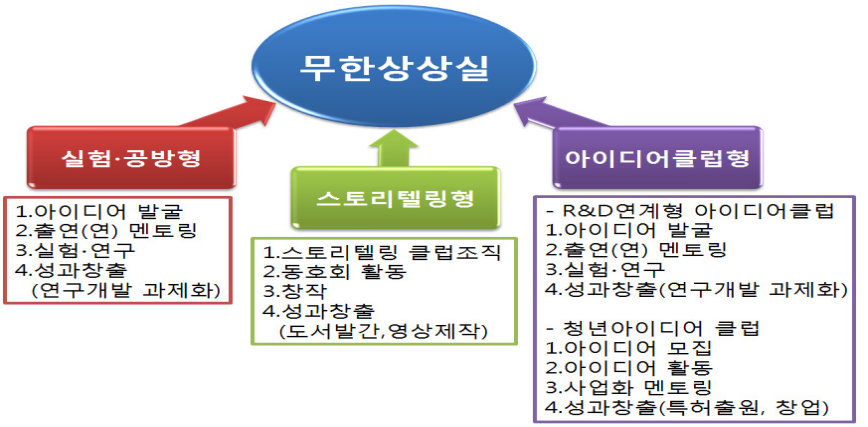
3) 안인자 외.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2, 143-171. 2014.

이며 개방된 공동 연구실이다.[4] 메이커스페이스는 'making a thing'을 시각화함으로써 '상상할 수 있으며,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5] 국내에서는 '무한상상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무한상상실은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모 기관으로 하여 설치되는 창의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시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6]

다시 말해서, 무한창조공간이란 이용자가 무한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끼리 서로의 아이디어나 제작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창조의 발전을 이루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정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무한창조공간인 무한상상실은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의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클럽형'은 'R&D연계형 아이디어클럽'과 '청년아이디어 클럽'으로 구성된다.[7]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내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의 유형



참고 : 무한상상실(www.ideaall.net) '프로그램소개'

4) www.wikipedia.org [2015.08.15]
5) 안인자 외.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2, 143-171. 2014.
6) www.ideaall.net [2015.08.15]
7) www.ideaall.net [2015.08.15]

2. 무한창조공간의 역사 및 발전

무한창조공간의 뿌리가 되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출현 배경은 '웹 문화'와 'DIY (Do It Yourself) 문화'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웹 문화와 DIY 문화의 결합은 가상의 공간을 넘어서 물리적 제조 및 기술 공유를 하고자 하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메이커 문화는 메이커 운동뿐만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 즉,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을 통해서 더욱 확산하였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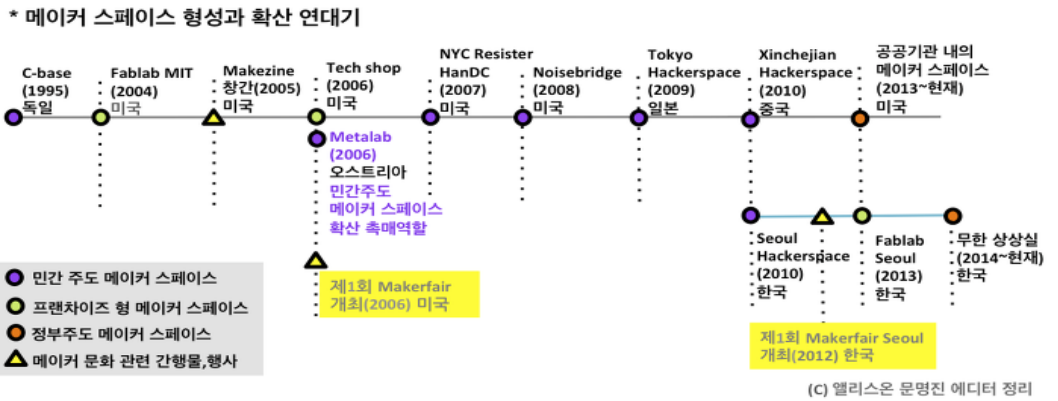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메이커스페이스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독일의 Chaos Computer Club (CCC)에서 C-base가 생성되었다.[9)] 이는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제작을 도모하는 최초의 민간 주도 독립 해커스페이스이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초기에는 비영리적인 민간주도형 메이커스페이스를 중점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후 정부나 산업자본의 영향을 받는 정부주도형 메이커스페이스가 나타났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제3차 산업혁명으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향후 4년 동안 미국 학교 1,000곳에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와 같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를 개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각 주의 주립도서관에서는 정부주도 메이커스페이스가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있다.[10)]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해커스페이스 서울이 2010년 최초로 개소되었고 국내 메이크 잡지 'MAKE : KOREA'가 출간되었으며 2012년, 제1회 메이크 페어가 개최되어 국내 메이커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기술창업 지원 비영리 법인인 타이드인스티튜트와 SK의 지원으로 프랜차이즈형 메이커스페이스인 '팹랩 서울'이 설립되었다. 또한 언메이크랩(Unmake Lab)과 릴리쿰(Reliquum) 등 제작실험집단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메이커스페이스가 등장하였다. 국내 비영리적 민간주도 메이커스페이스의 빠른 확산과 함께 창조경제에 따른 정부주도 메이커스페이스의 육성계획이 발표되어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 디지털 제작 관련

8) http://www.aliceon.net/ [2015.08.15]
9)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3&nScate=1&nIdx=24462&cpage=1&nType=1 [2015.08.20]
10) http://www.aliceon.net/ [2015.08.15]

공간 및 이벤트성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11] 메이커스페이스의 형성과 확산 연대기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메이커스페이스 형성과 확산연대기



출처 : http://www.aliceon.net/

3.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가. 선행연구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보 제공의 중심인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도서관에 무한창조공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도현[12]은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터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3D 프린팅 기술을 문화, 예술, 교육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모든 이들에게 매력적인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13]는 무한창조공간의 도입을 위한 개념 정립, 도입의 당위성, 기존공간의 역할 등에 대해 재정의하고 공공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에서 운영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하고자

11) http://www.aliceon.net/ [2015.08.15]
12) 정도현. 3D 프린팅 기술과 도서관 교육. 국회도서관, 51, 7, 14-23. 2014.
13) 안인자 외.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2, 143-171. 2014.

하였다. 노영희, 강정아, 정은지[14]는 공공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에서 시행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창의성 증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제작활동 과정에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정립과 도입의 필요성, 기존 사례에 대한 연구만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과 달리 대상을 명시하여, 그 대상을 위한 무한창조공간의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체계적인 참여도 증진 서비스를 겸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국내외 사례 및 현황

해외 무한창조공간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 만들기, 생일 파티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등 국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부 주관의 무한상상실이 크게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대체로 스토리텔링형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해외 무한창조공간 사례

해외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무한창조공간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알아보았다.

14) 노영희 외.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 2, 71-111. 2015.

1-1) MakerKids

MakerKids는 캐나다 토론토 Roncesvalles 마을에 있는 워크숍 공간으로, 아이들이 실제 도구와 재료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쌓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아이들은 전자, 목공, 재봉, 수공예, 요리, 프로그래밍, 3D 프린팅, 땜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제작에 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십 대 멘토들은 학교 봉사 시간에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5]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도의 기술 메이킹을 하는 방법과 어린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방법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훈련된 스태프가 운영을 도우며 '교육자의 밤'을 따로 갖기도 한다.[16]

1-2) 웨스트포트 도서관(The Westport Library)

웨스트포트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의성 계발의 목적을 위해 2012년 7월에 설립되었다.[17] 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전하고 창조적인 환경 설계, 여학생 로봇 공학 클럽, Robotics Thinkershops 프로그램 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18]

2) 국내 무한창조공간 사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한창조공간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한창조공간을 운영 중인 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 국내 무한창조공간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정사업본부 등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하여 전국 단위의 무한상상실 공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19] 2013년 8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과천과학관에 무한상상실을 개소한 것을 기점으로 현재 총 58개(거점 19개소, 소규모 39개소)의 무한상상실이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중이다.[20]

---

15) Christina Benton. Makerspaces; Supporting an Entrepreneurial System. 2013 Co-Learning Plan Series. 2013.
16) http://www.makerkids.com/ [2015.08.15]
17) 안인자 외.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2, 143-171. 2014.
18) http://westportlibrary.org/ [2015.08.15]
19) www.ideaall.net [2015.08.15]
2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699046609404016&DCD=A00504&OutLnkChk=Y/ [2015.08.15]

2-1)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체험교실을 열고 있다. 여기서는 3D 프린터의 개념과 활용분야, 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익혀서 직접 펜던트나 반지를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진행된다. 또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는 '발명과학교실'을 마련한다. '발명과학교실'에서는 발명기법과 과학이론 수업을 통해 아이디어의 힘을 키우고 주제별 과학발명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21]

2-2) 광진정보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무한상상실은 2013년 8월 31일 고~고(古~Go) 스토리 창작소라는 사업명으로 문을 열었다. 도서관 3열람실의 용도를 변경하여 녹음실, 영상편집실, 소강의실을 신설하였고, '스토리텔러 아카데미', '나도 스토리텔러-지역사회 스토리 발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광진도서관에서는 'My Little Story'라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진행하였다. 주제도서와 연계된 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iPad를 활용한 스토리창작 및 공작체험을 할 수 있다.[22]

2-3)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무한상상실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양의 입체블록들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보는 '어린이 상상공작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초중고 연계형으로 자유 학기제 대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중 1학년의 상상'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클럽형인 '초등생의 상상' 프로그램은 3D 펜을 이용한 입체그림을 그리기, 초소형 컴퓨터를 이용한 아두이노 조립으로 구성되어 있다.[23]

---

21) http://www.sciencetimes.co.kr/ [2015.08.15]
22) www.gwangjinlib.seoul.kr [2015.08.15]
23) www.jdc-jam.com/doc/sub2/sub2601.jsp [2015.08.15]

[그림 3] '초등생의 상상 - 3D 펜을 이용한 입체화가'에 참여한 어린이

출처 : http://www.sciencetimes.co.kr/

4.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수요조사

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4세부터 13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110명이었으며,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가 68명(62%), 경기도가 38명(35%), 기타가 4명(3%)이었다. 응답자의 자녀 나이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7세가 31명(24%), 8~10세가 48명(38%), 11~13세가 41명(32%), 기타 8명(6%)으로 총 128명이었다. 각 질문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내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3%(80명)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4~1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도서관 이용 시, 도서 대출·반납 이외에도 도서관 내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 이전에 무한창조공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87명)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1%(23명)는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에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보았느냐는 질문에 도서관이 10명(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무한창조공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듣게 된 경로 응답 현황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비율(%)
지인 (아는 사람)	6	22
TV,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	5	19
인터넷	6	22
교육기관	0	0
도서관	**10**	**37**
기타	0	0
합계	27	100

(복수 응답 가능)

귀하의 자녀가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84명)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4%(26명)는 '있다'에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 중 대다수가 무한창조공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이용해 본 경험 또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도서관을 통하여 들어 본 것으로 보아 무한창조공간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자녀가 어떠한 기관의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무한창조공간을 도서관(48%)을 통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 자녀가 어떠한 기관의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교육기관	2	4
도서관	**23**	**48**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7	15
과학관	8	17
박물관	6	12
미술관	2	4
기타	0	0
합계	48	100

(복수 응답 가능)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0명(38%), 만족이 13명(50%), 보통이 3명(12%)이었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자녀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점이 좋았냐는 질문에서는 창의성 향상이 20명(47%)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은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자녀의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했거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시간대가 13명(35%)으로 가장 높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자녀의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이용 시 좋았던 점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창의성 향상	**20**	**47**
관련 학습이나 과목에 대한 흥미 및 관심 향상	11	26
새로운 또래 형성	3	7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7	16
성격 및 행동 개선에의 도움	1	2
기타	1	2
합계	43	100

(복수 응답 가능)

〈표 4〉 자녀의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했거나 보완해야할 점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비용	0	0
프로그램의 다양성	10	27
다양한 시간대	**13**	**35**
강사진	5	13
시설	1	3
거주지와의 거리	4	11
이용 방법	1	3
기타	3	8
합계	37	100

(복수 응답 가능)

자녀가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가 66명(62.3%)으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자녀의 무한창조공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들어본 적이 없어서	**66**	**62.3**
관심이 없어서	7	6.6
이용 방법을 몰라서	15	14.2
시간이 없어서	9	8.5
거리가 멀어서	8	7.5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0	0
기타	1	0.9
합계	106	100

(복수 응답 가능)

무한창조공간을 어린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자녀가 이용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9%(109명)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을 체계화한다면 그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한창조공간을 운영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방과 후 교실이 57명(28%)으로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부록 참고)

〈표 6〉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의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도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캠프	32	11
이벤트	14	8
방과 후 교실	**57**	**28**
놀이방	30	16
직업체험	50	26
경진대회	20	11
기타	0	0
합계	203	100

(복수 응답 가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적합한 이용시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69%)에 응답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7〉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7〉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적합한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1시간 미만	5	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77**	**69**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0	18
3시간 이상 하루 미만	0	0
하루 이상 ex) 1박 2일	9	8
합계	111	100

(복수 응답 가능)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을 1회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절한 비용을 묻는 항목에서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유료)이 47명(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세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 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8〉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적합한 비용에 대한 응답 (1회 기준)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무료	31	26
유료 1만 원 미만	**34**	**29**
유료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47	40
유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4	3
유료 10만 원 이상	2	2
합계	118	100

(복수 응답 가능)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의 프로그램 교육담당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94명(7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교육담당자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교육담당자로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해당 분야 전문가	**94**	**75**
주제 분야 사서	12	10
학부모	3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	12
기타	1	1
합계	125	100

(복수 응답 가능)

마지막으로 기타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많은 홍보의 필요성과 장비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관한 응답이 있었다. 또한, 현재 무한창조공간의 이용에서 만족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나. 어린이 대상 인터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모가 참여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운영방식을 결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4~1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표 6〉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도의 응답 결과에서 방과 후 교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한창조공간 및 방과 후 교실의 참여계기를 인터뷰하였고, 그 결과 인터뷰 대상자 모두 참여계기를 부모님의 제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 선호도의 결과를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운영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무한창조공간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무한창조공간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로 나누어 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 20~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무한창조공간 유경험자는 현재 광진정보도서관의 무한상상실을 이용 중인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총 5명을 인터뷰하였으며, 무경험자는 광진정보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을 이용 중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9세 2명, 11세 1명, 총 3명을 인터뷰하였다.

1) 무한창조공간(광진정보도서관 무한상상실) 유경험자

1.1) 무한창조공간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의견

인터뷰 대상 어린이들 모두 광진정보도서관의 무한상상실을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무한상상실이 무언가를 학습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무한창조공간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무한상상실이 방과 후 교실보다 더 흥미로웠으며 무한상상실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괜찮았어요. 영화 예고편 촬영을 했을 때는 제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토메타는 제가 잘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간은 길었는데 재미있어서 딱히 긴지 몰랐어요. 엄마가 얘기해 주셔서 듣고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윤○○, 10세, 여]

"무한상상실이 방과 후 교실보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재미있어서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이○○, 11세, 남]

"무한상상실에서 아두이노랑 영화 예고편 만들기를 했어요. 재미있었고 신기했어요. 학교에서 해볼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가 해보겠느냐고 하셔서 하게 됐어요. 방과 후 교실에서 바이올린 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한 번보다는 두세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보다 무한상상실이 더 재밌었어요. 무한상상실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김○○, 11세, 남]

1.2) 무한창조공간을 방과 후 교실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어린이들은 방과 후 교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지만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은 단기적이라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한상상실을 방과 후 교실처럼 일정 기간 지속해서 참여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무한상상실은 너무 짧아요. 일주일도 안 돼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하는 건 계속 오래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도서관에서 무한상상실을 짧게 안 하고 학교 방과 후 교실처럼 계속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10세, 여]

"친구들이랑 친해지기에는 방과 후 교실이 오래 하는 거라서 더 좋아요. 무한상상실도 방과 후 교실처럼 오래 하면 친구들이랑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10세, 남]

2) 무한창조공간(광진정보도서관 무한상상실) 무경험자

2.1) 도서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터뷰 대상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 빈도를 물어본 결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어린이들은 방과 후 교실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의 경우 학습의 일부분인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흥미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방과 후 교실을 도서관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도서관에 와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로 피아노랑 컴퓨터, 주말 축구, 바이올린 해봤어요. 주말 축구가 제일 재미있어요. 도서관에서 주말 축구를 하면 도서관에 오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 9세, 남]

> “방과 후 교실에서 독서캠프를 했어요. 엄마가 해보겠느냐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보겠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캠프는 좀 심심해서 도서관에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 9세, 남]

> “도서관에 자주 와요. 두세 번 정도 오는데 무한상상실이 있는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은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것만 하는데 방과 후 교실을 도서관에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김○○, 11세, 여]

다. 수요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무한창조공간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들어본 적이 없고 이용방법을 몰라서라고 하였다. 이는 무한창조공간의 홍보가 부족함을 말한다. 또한, 무한창조공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폭넓은 시간대를 보완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체계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간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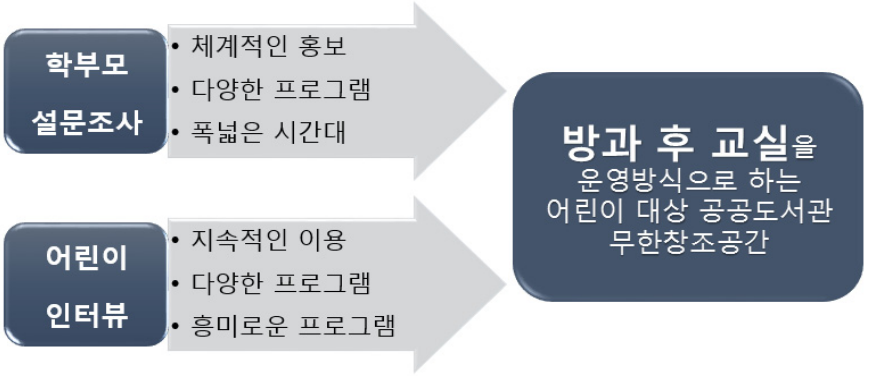
무한창조공간의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무한창조공간이 방과 후 교실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린이 인터뷰 결과에서 어

린이들은 무한창조공간 및 방과 후 교실의 참여계기가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은 무한창조공간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에 따라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이 방과 후 교실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 인터뷰에서는 무한창조공간이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할 때 시간보다는 프로그램의 흥미나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기에 그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참여를 원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적절한 시간 및 기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 대상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으며 1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인 어린이들의 경우 광진정보도서관의 무한상상실 및 어린이 열람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였고, 나이대가 9~11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재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프로그램 및 시간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린이들의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인식 및 지속적인 참여의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 4]를 통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본 논문의 모델 제안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림 4] 수요조사 결과 분석



5.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모델제안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을 알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방과 후 교실을 기본 운영방식으로 하는 체계화된 구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모색해본다. 방과 후 교실의 정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24]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과 후 교실을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이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가. 운영방안

1)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4세부터 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4세부터 7세의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8세 이상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학부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2) 프로그램 교육 담당자

〈표 9〉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교육 담당자로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교육 담당자의 범위를 상위 3개의 항목인 해당 분야 전문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주제 분야 사서로 제한한다. 스토리텔링형, 실험·공방형, 아이디어클럽형 세 가지의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담당자를 달리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어린이들의 이야기 및 시나리오의 구성을 배우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의 교육담당자는 주제 분야 사서로 한다. 3D프린터, 아두이노, 오토메타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험·공방형 프

24) http://encykorea.aks.ac.kr/ [2015.08.20]

로그램의 교육담당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또한, 함께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클럽형 프로그램의 교육담당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 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육담당자를 선발할 때는 관련 분야 전공자를 우대한다. 각 교육담당자에 따른 역할 및 교육의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교육담당자에 따른 역할 및 교육

	주제 분야 사서 (스토리텔링형 교육담당)	해당 분야 전문가 (실험・공방형 교육담당)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아이디어클럽형 교육담당)
역할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이를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전문적인 용어 및 기술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어린이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기 전에 각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서관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제 분야 사서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프로그램 지도를 위하여 그 분야 전문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경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법을 교육받도록 한다.		

3) 시설 및 장비

3-1) 시설

공공도서관 내의 어린이만을 위한 무한창조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 세 가지 형식을 모두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한창조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형식의 특성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3-2) 장비

기존 무한창조공간에서 사용 중인 장비들을 참고하여 각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장비들을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형태별 장비

스토리텔링형	실험・공방형	아이디어클럽형
– 레이저빔 – 영상 제작 및 편집 도구 – 각종 문구류 – 관련 서적 및 영상자료	– 3D 프린터 – 오토메타 및 아두이노 관련 장비 – 목공 툴 키트 – 각종 문구류 – 관련 서적 및 영상자료	– 마블런 구슬 놀이, 몰펀 주니어 500 등 각종 교구 – 컴퓨터 및 태블릿 PC – 안드로이드 앱 개발 키트 – 각종 문구류 – 관련 서적 및 영상자료

4) 이용 방법

4-1) 비용

〈표 8〉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적합한 비용에 대한 응답(1회 기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료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결과를 반영하여 비용을 책정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를 달리한다. 프로그램의 기간은 3개월(24회)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비용은 장비의 이용 및 재료비를 포함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은 3만 원, 실험・공방형 프로그램은 24만 원으로 한다. 아이디어클럽형에서 4~7세, 8~10세의 프로그램은 3만 원으로 하며, 11~13세의 경우 24만 원으로 책정한다.

4-2) 시간 및 기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모델은 방과 후 교실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무한창조공간의 참여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했으면 한다는 어린이들의 인터뷰 응답 결과에 따라 화・목반과 수・금반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시간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무한창조공간 이용시간을 학기 중에는 두 번, 방학에는 네 번으로 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무한창조공간 이용 가능 요일은 국립중앙도서관 휴관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12〉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운영시간 (학기 중)

나이	화 · 목 교실	수 · 금 교실
4~7세	14:00~16:00	
	17:00~19:00	
8~10세	14:00~16:00	
	17:00~19:00	
11~13세	15:00~17:00	
	18:00~20:00	

〈표 13〉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운영시간 (방학)

나이	화 · 목 교실	수 · 금 교실
4~7세 8~10세 11~13세	09:00~11:00	
	12:00~14:00	
	16:00~18:00	
	18:00~20:00	

4-3) 참가 신청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도서관 방문 신청을 주된 방법으로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우편 신청, 전화 신청, 단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체 신청은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미리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학 중에 가능하도록 하며, 대표 신청자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프로그램을 수강한 단체는 수업 마지막 날에 보고서와 소감문을 제출해야 한다.

5) 홍보

〈표 5〉 자녀의 무한창조공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14.2%로 무한창조공간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의 홍보를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성 홍보로 체계화함으로써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홍보 방안

	단순 홍보	이벤트성 홍보
방법	– 도서관 내외 홍보물 부착 – 무한창조공간 홍보영상 제작 – 도서관 홈페이지 –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	– 친구 동반 시 할인혜택 제공 – 이전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할인 – 두 개 이상 프로그램 동시 수강 시 할인 – 10인 이상의 단체 신청 시 커스텀 프로그램 제공 – 단체 신청자에 한해 컨퍼런스룸 제공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 후 교실의 운영방식 아래 체계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실의 특징을 무한창조공간에 도입하여 기존 무한창조공간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은 방과 후 교실의 형태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형태는 스토리텔링형, 실험·공방형, 아이디어 클럽형 세 가지로 나누고 4~7세, 8~10세, 11~13세의 나이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나이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나이대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스토리텔링형의 경우 4~7세는 어린이 동화 교실, 8~10세는 어린이 만화 교실, 11~13세는 어린이 영화 교실을 운영한다. 실험·공방형은 4~7세는 오토메타 장난감 만들기, 8~10세는 3D프린터를 이용한 로봇 만들기 기초, 11~13세는 아두이노 기술을 이용한 로봇 만들기 심화교실로 진행한다. 아이디어클럽형의 4~7세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상상놀이교실로 각종 교구를 활용하여 조립 및 제작을 통하여 창의력과 사회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0세 프로그램은 브레인스토밍 교실 기초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다른 주제의 두뇌훈련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기초적인 접근을 해본다. 11~13세 프로그램은 브레인스토밍 교실 심화로 운영되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본격적인 제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 교실의 목적은 토론을 통하여 작업하고 공유, 협력하면서 협동심을 키우고 주도적인 아이디어 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나이	프로그램형태	프로그램명	내 용
4~7세	스토리텔링형	어린이 동화 교실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동화를 듣고 직접 동화책을 제작해본다. 동화의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줄거리를 구상한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종이에 만들어낸 이야기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동화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전시회를 한다.
	실험·공방형	장난감 만들기 교실	오토메타의 원리 및 관련 지식을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종이, 나무 등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오토메타 장난감을 만든다.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아이디어클럽형	친구들과 함께하는 상상놀이교실	마블런 구슬 놀이, 몰펀 주니어 500과 같은 각종 교구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결과물을 만든다. 이를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창의력을 높인다.

나이	프로그램형태	프로그램명	내 용
8~10세	스토리텔링형	어린이 만화 교실	이야기 구성 방식 및 만화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직접 스토리를 구상하여 만화를 만든다.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전시회를 가진다.
	실험·공방형	로봇 만들기 교실 기초	3D 프린터와 로봇의 원리 및 관련 지식을 배운다. 자신의 개성이 담긴 로봇을 설계한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로봇의 부품을 만들고 이를 창의적으로 조립하여 결과물을 완성한다. 자신이 만든 로봇의 원리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아이디어클럽형	브레인스토밍 교실 기초	매주 다른 주제로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이를테면 태블릿 PC를 활용한 두뇌훈련 프로그램 체험, 레고 조립, 종이접기, 마인드맵과 같은 활동을 해본다. 이를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창의력을 높인다.
11~13세	스토리텔링형	어린이 영화 교실	시나리오 구성 방식 및 영화 제작 과정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운다. 이를 통해 직접 영화를 촬영·편집하여 결과물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영화를 상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실험·공방형	로봇 만들기 교실 심화	로봇과 아두이노의 원리 및 관련 지식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개성이 담긴 로봇을 설계한다. 아두이노 기술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자신의 결과물의 원리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아이디어클럽형	브레인스토밍 교실 심화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이를테면 아두이노를 통한 소프트웨어 제작, 게임 프로그래밍,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같은 활동을 해본다. 이를 통해 과학적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또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기른다.

Ⅲ 결 론

국내의 무한창조공간은 현재 여러 기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 분야가 스토리텔링 분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정 이용자층을 위한 무한창조공간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여 어린이들의 공공도서관으로의 유입을 높인다면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활성화 및 이용률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이용대상자를 어린이로 제한하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어린이 인터뷰를 통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어린이서비스 모델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학부모 설문조사 및 어린이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시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방과 후 교실의 지속적인 참여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이 필요함을 말하며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어린이서비스 모델의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함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실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무한창조공간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이를 주 2회씩 3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리텔링형, 실험·공방형, 아이디어클럽형 세 분야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으며, 세 분야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육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담당자들의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교육담당자들의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자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체계화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이용자층 확대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에서의 무한창조공간의 발전 및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광진정보도서관. www.gwangjinlib.seoul.kr

노영희 외.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 2, 71-111. 2015.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요사업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수립'

무한상상실. www.ideaall.net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자료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박영숙, "[메이커운동]메이커월드, 미래 STEM교육, 창조경제 모두는 창업을 위한 것, 미래의 학교는 모두 창업센타가 된다. 유엔미래포럼 박영숙(7)", 인데일리, 2014.07.26.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 M1003&nScate=1&nIdx=24462&cpage=1&nType=1 [2015.08.15.]

안인자 외.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2, 143-171. 2014.

앨리스온. http://www.aliceon.net/

이승헌, "금천구청 ・국립현대미술관에 '무한상상실' 오픈", 이데일리, 2015.06.2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699046609404016&DCD=A00504&OutLnkChk=Y/ [2015.08.15.]

정도현. 3D 프린팅 기술과 도서관 교육. 국회도서관, 51, 7, 14-23. 2014.

제주항공우주박물관. www.jdc-jam.com/doc/sub2/sub2601.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Christina Benton. Makerspaces; Supporting an Entrepreneurial System. 2013 Co-Learning Plan Series. 2013.

MakerKids. http://www.makerkids.com/

The Science Times. http://www.sciencetimes.co.kr/

The Westport Library. http://westportlibrary.org/

Wikipedia. www.wikipedia.org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선진화 논문 공모전을 위한 것이며,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응답자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해 주신다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이 설문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10 월요일

본 설문은 무한창조공간(국내의 무한상상실)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문 응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무한창조공간의 간단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한창조공간]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공간을 말한다.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강의, 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식 공유와 공동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도구 및 전자 부품, 오디오 장비 등을 제공하는 개방된 공동 연구실이다. 주로 학교, 공공도서관, 대학캠퍼스, 교육센터 등에 위치할 수 있다.

무한창조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예로는 3D 프린팅 교육, e-book 제작, 천문교실, 과학교실, 진로체험, 컴퓨터 관련 교육, 로봇제작 등이 있습니다.

1. 귀하의 자녀 나이는? (복수 응답 가능)
   ① 4~7세 ② 8~10세 ③ 11~13세 ④ 기타 ( )

2. 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특별시 (구) ② 경기도 (시) ③ 기타 ( )

3. 도서관 내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ex. 교육, 음악・미술, 과학, 놀이 및 오락 관련 프로그램)
① 있다 ② 없다

4. 본 설문 이전에 무한창조공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지인 (아는 사람) ② TV,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 ③ 인터넷 ④ 교육기관
⑤ 도서관 ⑥ 기타 ( )

5. 귀하의 자녀가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5-1번 문항으로) ② 없다 (5-2번 문항으로)

5-1) 5번 문항의 "① 있다"에 응답한 응답자만 해당
▣ 귀하의 자녀는 어떠한 기관의 무한창조공간을 이용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교육기관 ② 도서관 ③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④ 과학관 ⑤ 박물관
⑥ 미술관 ⑦ 기타 ( )
▣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귀하의 자녀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창의성 향상 ② 관련 학습이나 과목에 대한 흥미 및 관심 향상
③ 새로운 또래 형성 ④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⑤ 성격 및 행동 개선에의 도움
⑥ 기타 ( )
▣ 귀하의 자녀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불편했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비용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③ 다양한 시간대 ④ 강사진 ⑤ 시설
⑥ 거주지와의 거리 ⑦ 이용 방법 ⑧ 기타 ( )

5-2) 5번 문항의 "② 없다"에 응답한 응답자만 해당
▣ 무한창조공간 이용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들어본 적이 없어서 ② 관심이 없어서 ③ 이용방법을 몰라서 ④ 시간이 없어서
⑤ 거리가 멀어서 ⑥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⑦ 기타 ( )

6. 어린이를 위한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을 자녀가 이용하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이유 :)

7.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한창조공간을 운영한다면 어떠한 형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캠프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1박 이상의 기간 동안 무한창조공간을 이용)
② 이벤트 (생일과 같은 기념일에 맞는 주제를 바탕으로 무한창조공간을 이용)
③ 방과 후 교실 (단기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 요리, 장난감 제작, 로봇 및 발명품 제작, 과학실험, 도서 및 비디오 제작 등 – 프로그램에 참여)
④ 놀이방 (무한창조공간을 통해 놀이 및 오락 프로그램 제공)
⑤ 직업체험 (특정 직업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 및 도구 제공)
⑥ 경진대회 (무한창조공간에서 제작한 제작물을 출품하여 우수작 선정)
⑦ 기타 ( )

8.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적합한 이용시간에 체크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하루미만 ⑤ 하루 이상(ex. 1박 2일)

9. 어린이 대상 무한창조공간 프로그램의 적합한 비용(1회 기준)에 체크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① 무료
② 유료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10. 무한창조공간의 프로그램 교육담당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해당 분야 전문가 ② 주제 분야 사서 ③ 학부모 ④ 대학생 및 대학원생
⑤ 기타 ( )

11. 기타 무한창조공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써 주세요.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어린이 인터뷰 질문지]

	무한창조공간 유경험자	무한창조공간 무경험자
참여계기	– 무한상상실을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있나요? –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참여하나요? 참여 안 한다면 왜 참여 하지 않나요? – 방과 후 교실의 참여 계기는 무엇인가요?	–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있나요? –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참여하나요? 참여 안 한다면 왜 참여 하지 않나요? – 방과 후 교실의 참여 계기는 무엇인가요?
무한창조공간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인식	– 무한상상실에서 언제, 무엇을 해보았나요? – 그 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 그 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싫거나 지루했나요? – 방과 후 교실이랑 무한상상실이랑 어떤 것이 더 재미있나요? 왜?	– 방과 후 교실을 할 때 어떤 점이 좋았나요? – 방과 후 교실을 할 때 싫거나 지루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도서관 이용 및 방과 후 교실의 도서관 도입에 대한 인식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나요? – 도서관에서 주로 무엇을 이용하나요? – 도서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왜?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나요? – 도서관에서 주로 무엇을 이용하나요? – 도서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왜?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논 문』

장 려 상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해외 의학도서관 CHI 서비스 사례를 통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발전방안 연구

박희원 · 이은서 · 고하림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지도교수 : 오의경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2. 선행연구

Ⅲ. 해외 의학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1. 미국의 현황 – NLM과 MLA를 중심으로
2. 일본의 현황 –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가. 병세에 대해 알고 싶음
   나. 투병기에 대해 조사하고 싶음
   다. 환자회(환우회)에 대해 알고 싶음

Ⅳ. 우리나라 의학도서관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1. 의학도서관
2. 국립의과학지식센터
3. 비공식단체 현황 – 환우회

Ⅴ.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안

1. 이용대상 및 서비스 소개
2. 서비스 내용
   가. 의약정보 통합제공
   나. 도서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다.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라. 의학 관련 커뮤니티 개설
   마. 전염병, 유행병의 실시간 정보 제공

Ⅵ. 결 론

참고문헌

요 약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체계적인 소비자건강정보에 대한 국내 서비스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미국의 'Medline Plus'와 'MLA', 일본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의 해외사례에 따르면,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는 주로 질병, 의약품 정보 제공, 환우회 또는 건강 관련 사이트 링크 제공, 의학용어사전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일반인을 위한 건강정보서비스의 운영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의약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도출하여 검색 시간을 절약한다.

둘째, 도서관,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곳을 선택하게 한다.

셋째, 수술과정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술환자들이 수술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넷째, 의학전문인이 개입한 의학 관련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환자 간의 밀도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전염병, 유행병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의 도서관이 대출/반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면, 현재의 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보를 찾고, 가공하여 전달하는 곳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도서관의 정보 접근 및 유통의 변화가 있었고, 대표적인 주제전문서비스인 의학정보서비스도 새로운 정보환경을 맞이하였다.

의학도서관은 주로 의사, 간호사, 의대생 등 의료계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왔다. 최근 연구에서 노영희 (2014)는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증가 및 노령인구의 증가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증가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된 사망원인이 급성질환에서 성인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변화했음을 밝힌 정재민 (2015)의 연구와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관한 관심은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또한 병에 대한 우려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사람들의 생활습관에 변화를 일으켰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은 과거보다 더 증가했고 웹상에 퍼진 검증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위험성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확한 의학정보를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최근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일례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2015년 5월 20일 대한민국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MERS) 포털'이라는 우수한 웹 사이트를 만들어 관련 지식과 대응지침, 발생현황, 관련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초 발병일로부터 3주나 지난 시점에서 개설되었기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초기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인 김성수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홍콩독감, 에볼라, 사스 등의 기타 전염병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결핍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불안감을 이용한 괴담을 초래한다. 반면, 미국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일반 대중과 의료진, 보건당국을 위한 최신 의학 정보와 지침이 포함된 정기 자료를 작성했다. 그리고 확진자가 머물렀던 동선과 진료받은 병원, 치료 경과를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초기 진압과 동시에 사회적인 안정감을 가져왔다.

메르스 포털과 같은 검증된 기관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자연스럽게 의료정보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를 충족시키고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의학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여 일반인에게 유용한 의학정보서비스의 내용과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 의학정보서비스는 주축 역할을 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사서협력네트워크가 갖춰진 한국의학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의학도서관, 병원도서관, 연구소 도서관, 제약회사 자료실 등 162개관이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의과학지식센터를 포함한 대부분 기관의 서비스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례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주된 서비스인 MEDLIS (Medical Digital Library Information System)만 하더라도 1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목록 및 원문복사 등의 학술 전문 서비스가 제공될 뿐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의료관련 정보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의학정보 제공 사례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서비스 사례와 비교하여 소비자건강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학도서관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를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센터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의학도서관 서비스와 더불어,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로는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를 찾을 수 있었던, 미국의 'Medline Plus'와 'MLA', 일본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를 선정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해외 의학도서관사례를 통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해외기관은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NLM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미국의학도서관협회(MLA : Medical Library Association), 일본의학도서관협회(JMLA : The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からだとこころの情報センター)를 두었고, 국내기관으로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소속의 병원도서관 44개를 두었다. 실제 대상 도서관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비영리 환자단체인 환자단체연합회 등의 기관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에서의 '환우회' 검색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1〉 주요 조사대상 기관(단체)명 및 URL

국 가	기관 및 단체명	URL
한 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http://library.nih.go.kr/ncmiklib/
	한국의학도서관협회	http://www.kmla.or.kr/
미 국	국립의학도서관	http://www.nlm.nih.gov/
	미국의학도서관협회	http://www.mlanet.org/
일 본	일본의학도서관협회	http://jmla.umin.jp/index.html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	http://plaza.umin.ac.jp/~jmla/life/index.html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장은 ① 서론, ② 이론적 배경, ③ 해외 의학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④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⑤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안, 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본 내용이 포함된 1장을 제외한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지는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의 정의와 중요성을 기술하였고, 'Health e-Links'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또한 소비자건강정보, 의학도서관 관련 논문을 선행논문으로 제시하여 본 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 의학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과 일본에 있는 선진 해외의학도서관 서비스 중 'Medline Plus'와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에 중점을 두었다. 본 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초점을 두었으며, 우리나라의 현황에 맞는 관련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속한 155개 기관 중 조건을 갖춘 병원도서관 가운데 일반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환우회의 현황을 통해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결과와 '질병체험이야기'에 수록된 인터뷰를 통해 현황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안을 통해 핵심 사명을 되짚음으로써 서비스 대상을 강조하였고 해외 선진국가의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여, (1) 의약정보 통합제공, (2) 병원정보 제공, (3)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4) 의학 관련 커뮤니티 개설 (5) 전염병, 유행병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진, 총 다섯 가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소비자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에 대해 Patrick K (1995)는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치료, 공중 보건

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언급했으며, 소비자의 대상을 정의함으로써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노영희 & 오상희(2011)는 소비자건강정보를 “환자나 그의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들로부터 요청되는 건강 및 의학 주제에 관련된 정보”라고 정의했다. 이는 질병의 증상, 진단, 치료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예방의학, 건강의 결정요인, 그리고 건강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건강정보는 대상을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정보인 병의 증상, 진단, 치료, 예방, 질병 등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영희(2013)는 점차 소비자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그에 관한 건강사이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와 관련된 참고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제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CHI 참고서비스, CHI 교육 등의 여러 종류의 정보제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Pernotto et al.,(2003)는 공공도서관이 CHI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탐색 정보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정보원을 구축한 ‘Health e-Links’를 사례로 들었다. ‘Health e-Links’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건강과학센터(Louisiana State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의 도서관 서비스로,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정보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둔다. 건강관련 사이트, 건강관리법, 임상시험 등의 메뉴와 함께 어린이, 여성, 노인의 건강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지 약 2년 만에 이용률이 월평균 125건에서 약 3,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정보를 향한 소비자의 요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소비자건강정보 서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소비자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관련 연구와 의학도서관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연구에서 노영희 (2013)는 CHI 서비스를 의료정보환류 과정에 포함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관련정보를 찾도록 했다. 공공도서관, 의학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정보 관련 기관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켰으며, 그 사례의 모형을 분석하여 성과 및 기대효과를 측정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일반인이 건강정보를 찾는 첫 번째 접근점이 된다는 맥락에서 의학도서관과 협력 시 의학사서로부터 CHI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사서들의 협력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영희 (2014)는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의 사서 간의 건강정보원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비교를 연구하여 건강/의학 관련 서비스 제공현황과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2010년 도서관연감'에 등재된 748개의 기관 중,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29개관에서 설문에 응답한 56명의 사서(43.4%)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도서관 중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114개관에서 질문에 응답한 55명의 사서(48.3%)가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23%, 의학도서관의 75%가 건강/의학 관련 참고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련 질문을 받지 않는다가 67.86%, 의학도서관에서는 27.78%로 나왔다. 그리고 1회~3회가 공공도서관에서는 25%, 의학도서관에서는 29.6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노동조 & 김정아 (2010)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소속의 대학 및 병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29개 의과대학 도서관을 선정하여 각 사이트의 메뉴구성 및 콘텐츠를 비교분석하였다. 자관 Pubmed, 원문복사/상호대차, 정보검색, 논문작성지원, SDI서비스 등의 15가지로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비율과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고찰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윤희윤 (2014)은 국가도서관의 체계를 주요선진국과 비교하여 정립하면서 국가수준급 주제별 도서관을 함께 분석하였고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NLM), 영국의 국립보건도서관(NLH), 독일국립의학도서관(ZB MED), 일본의 국제의학정보센터(IMIC)를 중심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와 비교하였다. 연구시점에서 아직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설립되지 않았기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그 기준으로 삼아 한계점을 밝혔으며, 국가 차원에서 의학 및 관련분야의 국내외 지식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대표 의학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선행논문을 통해 국가의학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가 강조되며, 의학 정보 분야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연구는 접근성 측면에서 의학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건강/의학 참고정보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해외 의학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의학과 도서관이라는 두 분야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국립의학도서관(NLM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독일국립의학도서관(ZB MED : Deutsche Zentralbibliothek für Medizin)을 두어 국가 차원에서의 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본은 비록 국립의학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본의학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Medline Plus'와, 미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전자건강정보 서비스, 일본의학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하는 '몸과 마음의 정신센터'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1. 미국의 현황 - NLM과 MLA를 중심으로

미국은 국립의학도서관인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과 미국의학도서관협회인 MLA(Medical Library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의학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NLM은 1836년에 설립된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으로 의학과 건강정보에 관한 연구, 개발, 교육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정희

(2006)는 NLM에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8개의 지역의학도서관, 140개의 Resource Libraries(주로 의과대학), 그리고 4,700여 개의 Primary Access Libraries (주로 병원)로 이루어졌다 했으며, 현재 미국을 넘어 약 6,000개의 도서관을 담당하는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하였다. 또한 NLM은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으로서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의학학술정보에 대한 국가적 대표성 기능을 하는 의학정보의 보고 역할을 한다. 둘째, 의학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출판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의학학술분야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다. 넷째, 정보기술개발 및 교육을 제공한다. 다섯번째, 정보의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반인의 정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Pubmed나 Medline과 더불어, Mesh와 같은 의학주제명사전을 통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의학용어의 생소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NLM에서는 Medline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edline Plus'를 제공한다. 'Medline plus'는 주 이용자 층 자체가 일반인이며 서비스 또한 일반인 대상으로 특화되었기에 소비자건강정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DB이다. NLM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체적으로 Pubmed, Medline 등의 DB를 운영한다. NLM 홈페이지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의학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접근성이 높은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학문헌 검색(Search biomedical literature), 의학용어 찾기(Find medical terminologies), 의학사전(Use a medical dictionary), 무료로 제공되는 full text 논문 검색(Find free full-text articles) 등을 두어, 의학정보에 대한 일반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NLM과 더불어 미국의학도서관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MLA'는, 공공 의학도서관의 증가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유서 깊은 협회이다. 'MLA'는 소비자건강정보 전문화 사서교육(CHIS)과 경력 개발, 의학사서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프로그램 등의 교육에 관련된 회원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한다. 'ML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비자건강정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Find, Read, Learn) NLM 메인페이지[1)]

첫 번째는 'MLA Top Health Websites'이다. 환자를 포함한 일반인을 위해 질병관련 웹 사이트별로 후원, 신뢰도,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보를 모아 지역별로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유방암, 당뇨병, 눈 질환, 심장 질환, HIV/AIDS 등의 질환에 대한 정보를 총집합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암에 대해서는 'MLA patient library'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에 위치한 관련된 기관 중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센터 및 도서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What did my doctor say?'다. 의사, 간호사 등이 사용하는 전문 의료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가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매사추세츠 보건 과학 도서관 네트워크의 도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의 세 가지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Find and Evaluate Health Information'이다. 웹상에서 보다 쉽고

1) <http://www.nlm.nih.gov/>

정확하게 의학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검색 엔진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정보를 여과하는 방법, 원하는 콘텐츠가 있는 신뢰도 있는 사이트를 선별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그 외에도 'MLA'에서는 노인을 위한 건강정보, 의학도서관 검색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MLA'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메뉴(FOR HEALTH CONSUMERS)[2)]

2) <http://www.mlanet.org/for-healthconsumers>

2. 일본의 현황 -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1950년대 후반 일본 도서관계는 국립국회도서관(NDL : National Diet Library)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의학 서비스 부문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게이오대학의 의학도서관이 서비스를 학외에 오픈하고 NLM과 제휴하여 MEDLINE DB에 국내 문헌을 입력하였으나 그 기능은 하나의 사립대학도서관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윤희윤, 2014).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의학전문도서관 없이 의학 서비스는 의학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학, 기관 내 독립적인 서비스로만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의학도서관계에서는 미국의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과 같은 국가 수준의 의학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었다(박정희, 2006).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4년 ‘국립생명과학정보센터 (가칭) 추진 준비 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발족의 배경으로는 일본의 어느 주체도 자국 의학정보와 서비스를 총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적용되었고, 특히 환자가족이나 국민에게 의료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윤희윤, 2014). 이후로 킨키병원도서관협의회 등 협의를 맺은 5개 단체 킨키병원도서관협의회, 일본간호도서관협회, 일본농학도서관협의회, 일본 병원 라이브러리 협회, 일본약학도서관협의회와 함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를 통한 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활동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자, 2000년 새 위원회가 출범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医学図書館, 2012).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국립생명과학정보센터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며 그 기관을 대신하여 일본의학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가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NPO 법인[3]인 일본의학도서관협회는 1927년에 창립된 ‘관립의과대학부속도서관협회’에서 비롯된 단체다. 2015년 7월 회원기관 목록 기준에 따라 정회원 A, B에 속한 148개관의 의학도서관이 활동하고 있다.[4]

---

3)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조직이라고도 한다. NPO는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진 말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조직을 가리킨다.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4) 정회원 A에는 대학・학부 도서관 98개관, 정회원 B에는 병원, 연구소 등의 도서관 48개관이 포함되었다.

일본의학도서관협회는 의학사서 양성 및 다른 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의학계 도서관 설립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일환이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からだとこころの情報センター)'이며 이는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의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의학계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찾는 환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님으로써 일반인 이용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의 각 메뉴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 2〉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메뉴 구성[5)]

원 문	번 역
病気について知りたい	병세에 대해 알고 싶음
薬について調べたい	약에 대해 조사하고 싶음
病院について調べたい	병원에 대해 조사하고 싶음
患者会について知りたい	환자회(환우회)에 대해 알고 싶음
医学用語, 相談, 各学会の市民向け情報など	의학용어, 상담, 시민대상의 각 학회 정보
添付文書, 臨床試験, 新薬, 安全性など	첨부문서(약품 구입시 함께 있는 문서), 임상시험, 신약, 안정성 등
専門病院, 地域の病院など	전문병원, 지역 병원 등
患者団体情報など	환자단체정보 등
闘病記について調べたい	투병기에 대해 조사하고 싶음
食品について知りたい	식품에 대해 알고 싶음
文献入手法	문헌입수법
情報の探し方	정보를 찾는 법
闘病記文庫, 患者・家族の運営するサイトなど	투병기록문, 환자, 가족 운영 사이트 등
安全性情報, 表示・規格, 食中毒の防止など	안전성정보, 표시, 규격, 식중독 방지 등
文献の調べ方, 原文の閲覧・入手など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 원문의 열람・입수 등
サイト検索のコツ	사이트 검색 조언
編集方針・選択基準	편집 방침, 선택 기준
お問い合わせ	문의
当サイトのリンク先選択基準など	본 사이트에서의 링크 선택 기준 등
当サイトに関する意見・質問はこちらから	본 사이트에 관한 의견·질문은 이쪽으로

5) <http://plaza.umin.ac.jp/~jmla/life/index.html>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는 병세, 약, 병원, 환자회(환우회), 의학용어, 전문병원, 투병기, 식품, 문헌입수법 등에 관한 10개 하위메뉴와, 사이트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4개의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초점을 전문적인 의료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에 맞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건강정보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스를 사례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가. 병세에 대해 알고 싶음

‘병세에 대해 알고 싶음’은 의학계의 표준교과서라 불리는 서적인 The Merck Manual을 통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정의, 진단, 예방법, 치료법을 제공한다. 의료관계자 전용과 일반인 전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Life Science Dictionary Project[6]’와 ‘Medline Plus’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각종 질병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의료상담’이라는 란을 두어 호흡기, 순환기 질환, 소화기 질환, 내분비 질환, 뇌신경 질환, 피부 질환, 코 인후 질환, 성형, 치과 질환, 소아 질환, 정신・신경 질환에 대해 각 학회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Q&A, 일반 시민용 가이드, 응급 홈페이지 정보를 서비스한다.

나. 투병기에 대해 조사하고 싶음

‘투병기에 대해 조사하고 싶음’은 환자와 주변인들에게 다양한 병에 대한 투병기를 제공한다. 다만,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주가 된 만큼 7개조[7]를 통해 객관적으로 읽기를 권하고 있으며 직접 정보를 전달 및 제공하는 대신에 도서관 목록이나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한다. 그 과정에서 도쿄도립중앙도서

6) <http://lsd.pharm.kyoto-u.ac.jp/cgi-bin/lsdproj/ejlookup04.pl>

7) 1. 환자가 100명이면 투병생활도 100가지이다(患者さんが１００人いれば１００通りの闘病生活があります).
2. 치료법은 계속 발전함으로 투병기에 등장하는 특정 치료법에만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治療法は日々進歩しているので，闘病記中の特定の治療法にあまり目をうばわれ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3. 투병기가 쓰인 시기와 지역의 특수성에 주의한다(闘病記が書かれた時期や住んでいる地域の特殊性に注意すること).
4. 동일한 병의 투병기를 복수로 읽어 비교한다(同じ病氣の闘病記をできるだけ何冊か讀み比べるとよいでしょう).
5. 필자가 유명한지는 상관하지 않는다(筆者が有名人か否かにこだわらないこと).
6. 주치의의 시점에 서서 객관적으로 읽어볼 필요도 있다(主治医になったつもりで客觀的に讀んでみる必要も).
7. 종교와 건강식품이 엮인 PR책은 주의해야한다(宗教，健康食品がらみのＰＲ本には要注意).

관, 돗토리현립도서관, 히로시마시립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과 일본 전국 도서관의 실시간 대출 상황을 제공하는 카리루(カーリル), NPO 법인 건강과 병의 이야기, LifePalette 등의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건강정보서가프로젝트(健康情報棚プロジェクト)'가 수집한 일본의 투병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투병기 라이브러리(闘病記ライブラリー)'를 통해, 병명에 따른 700여 권의 책을 분류하여 저자, 목차, ISBN, 발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홈페이지 내 설명의 지속적인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환자회(환우회)에 대해 알고 싶음

'환자회(환우회)에 대해 알고 싶음'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질병이나, 치료, 사회생활, 고민 등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곳이다. 규모와 활동 방식 등에서 다양한 면모를 띄고 있으며, SNS나 웹 사이트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기 항목에서는 병명이나 지역별로 일본 내의 환자모임을 찾을 수 있는 웹 사이트 목록과 도서관에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환자위원회가 발행하는 책자의 소장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망라성과 신뢰성 부문에서 한계점을 밝히면서 Google 검색과 일본인터넷의료협의회가 제공한 '인터넷 의료 정보의 이용 안내서'를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의학도서관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1. 의학도서관

2014년 이전까지 미국, 독일, 등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국립의학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현,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특정 주제 분야인 의학을 대상으로 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대학 및 병원 등의 의학도서관이 협회를 의존하였다. 결과적으로 '2014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명단'을 기준으로 대학도서관 54개관, 병원도서관 88개관, 연구소 도서관 13개관을 포함한 총 155개의 의학도서관이 회원에 기재되었으며, 그 안에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또한 포함되었다.

의학도서관은 임상의학, 간호학, 병리학, 생물학 등 특수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그 대상은 의학도서관 혹은 의학 관계자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회장인사말을 통해, 의학사서의 서비스 대상을 환자, 일반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조 & 김정아 (2010)에 따르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내에 속한 29개의 의과대학 도서관은 독립된 웹 사이트를 통해 원문복사/상호대차, 참고정보원, 자관 Pubmed 등을 주된 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일부 기관은 모바일서비스와 논문작성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정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의학 관련 서비스는 각 기관에 속한 직원 및 학생 등에 한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출입 및 자료열람만 가능할 뿐, 일반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예로 경희의료원의학도서실이나 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의 경우, 회원서비스를 통해 사이트 탐색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모기관의 특성상, 환자와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병원 소속의 의학도서관 역시 일반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또는 접근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었다. 〈표 3〉을 보면 그 결과가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병원도서관으로 구분된 88개관 중에서도 데드링크, 홈페이지 미 제작, 로그인 제한 등의 이유로 운영규정을 찾을 수 없었던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4개관의 웹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3〉 운영규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소속 병원도서관 이용자 대상 분석[8)]

기관 명칭	직원	대학(원)생	병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한의협 회원증 소지자	타도서관 열람증 소지자	일반 이용자
가천대길병원학습정보센터	O	O	O	–	O	X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의학정보실	O	O	O	O	–	X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도서실	O	O	O	O	–	X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의학도서실	O	–	O	O	–	X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의학도서실	O	–	O	O	–	X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도서실	O	O	O	O	–	X
강남성심병원도서실	O	–	–	–	–	X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학도서실	O	–	O	O	O	X
강동성심병원의학도서실	O	–	–	–	–	X
강릉아산병원의학정보실	O	–	O	O	–	X
강북삼성병원의학정보실	O	O	–	O	O	X
건국대학교병원의학도서실(중원도서관 규정)	O	O	O	–	O	X
관동대학교의과대학명지병원도서관	O	O	–	–	–	X
국립서울병원의학도서관	O	–	–	–	–	X
국립암센터도서실	O	–	–	–	–	X
국립중앙의료원의학정보실	O	–	–	O	–	X
국립재활원도서실	O	O	O	–	–	X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의학도서실	O	–	O	O	–	X
김원묵기념봉생병원도서실	O	–	–	O	–	X
대구파티마병원도서실	O	–	O	O	O	X
대진의료재단분당재생병원의학도서실	O	–	O	O	–	X
동탄성심병원의학도서실	O	–	–	–	–	X
메리놀병원의학도서실	O	O	–	O	–	X
부산위생병원도서실	O	–	–	O	–	X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학자료정보센터	O	O	O	O	–	X
삼성창원병원의학정보실	O	O	–	–	–	X

8) 참고: 2014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명단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현황-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2014, 1-3

기관 명칭	직원	대학(원)생	병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한의협 회원증 소지자	타도서관 열람증 소지자	일반 이용자
서울의료원의학도서실	O	O	O	–	–	X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의학정보팀	O	O	–	–	–	X
세종병원도서실(혜원의료재단)	O	O	–	O	–	X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의학도서실	O	O	O	O	–	X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의학도서관	O	O	O	O	–	X
순천향대학교천안의학도서실	O	O	O	O	–	X
용인정신병원의학도서실	O	–	–	–	–	X
울산대학교병원의학도서실	O	O	O	O	–	X
을지병원도서실	O	O	O	O	–	X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의학도서실	O	O	O	O	–	X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의학도서실	O	O	O	O	–	X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도서실	O	O	O	O	–	X
포항성모병원의학도서실	O	–	O	O	–	X
한국원자력의학원도서실	O	–	–	O	–	X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학도서실	O	–	–	–	–	X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학학술정보실	O	O	O	–	–	X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학도서실	O	O	O	O	–	X

분석한 결과 직원은 44개관(100%), 대학(원)생은 24개관(54.55%), 병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26개관(59.09%), 한의협 회원증 소지자는 28개관(63.64%), 타도서관 열람증 소지자는 5개 기관(11.36%), 일반 이용자는 0개관(0%)으로 나타났다. 기입되지 않은 정보나 도서관의 실제 규정으로 인해, 통계와 실제 데이터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인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인, 직원(100%), 한의협 회원증 소지자(63.64%), 병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59.09%)의 수치를 통해 자관의 성격에 맞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이 도출되었고, 44개관의 운영지침에서 소비자건강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대한민국 의·과학 분야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목적을 지니며, 국내외 의·과학 지식 정보자원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이용대상은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이용증 혹은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9]'를 획득하였다. 이 부분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시회 '한센병 역사전 - 나의 친구 파랑새' 개최는 우리가 흔히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러왔던 한센병[10]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치료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관련지식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전시회는 유물 및 기록 자료를 기반으로 패널, 동영상, 체험 등 관람자가 한센병과 그 역사를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적 성격이 아닌, 일반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는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시회나 견학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는 발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의료인, 연구자와 같은 전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장 자료와 전자자원을 통해 분석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장 자료는 크게 단행본, 보고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신착자료로 나누어져 있고 주제, 저자, 출판년도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분류 중 주제는 'Enzymology Methods(효소학 체계성), Science Chromatographic(과학 색층 분석법), Britannica(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영문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제 분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로, 소장 자료 역시 대부분 학술용어, 전문 용어로 되어있기에 일반인의 수준에서 자료를 참

9)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이 인정되어 받는 마크이다.
10) 나병(학술적 표현)은 사회적 표현으로는 한센병, 관습적 표현으로는 문둥병으로 불렸다.

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두 번째, 전자자원은 크게 E-journals, E-Books, WebDB로 이루어져 있다. WebDB는 의학, 생물학, 보건학, 약학, 유전학 등의 의·과학 분야에 관한 국외 사이트로 목록이 구성되었으며, 간단한 내용 소개를 통해 DB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DB가 영문으로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자료를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E-Journals와 E-Books는 아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림 3] 오른쪽부터 단행본, 보고서, 비도서 분류표[11)]

11) <http://library.nih.go.kr/ncmiklib/>

3. 비공식단체 현황 - 환우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25,000가구 및 63,583명(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인구의 83.6%인 41,118명이 인터넷 이용자였으며, 2006년 이후로 9.1%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인터넷 건강관련 사이트는 2000년 9월의 3,416개 이후로 현재에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종혁 et al., 2008).

건강정보와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향한 소비자의 요구는 소비자 주권의식과 의료정보의 활성화를 유도해, 의사가 주도했던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점차 환자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김용, 2014). 또한 모바일 SNS의 확산에 따라, 건강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여, 건강정보의 획득이 의료전문가가 아닌 SNS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송태민 et al., 2012)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흐름에 맞춰 등장한 것이 환우회이다.

베체트 환우회에서는 환우회를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교육・결연・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환우들 스스로 모인 자조회”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웹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병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길 원했으며, 의사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병의 회복 및 마음의 위안을 주요 목적으로 두었다.

이중 대표적인 비영리 환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의 7개 단체로 이루어져 투병지원사업, 정책개선사업, 환자의 권리행사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암시민연대의 경우, 환자샤우팅카페 등의 활동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생각을 표현할 길을 열어주었으며,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종합상담실과 자유게시판을 함께 두어 정보공유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의 노태호 교수는 “환우회 사이트에서 전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정보 중에는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많다”며, “인기

수술법 및 신약에 대한 효과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의 몇몇 환우회는 자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잘못된 정보와 불확실한 치료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웹 사이트 '질병체험이야기'는 언어학과 의학을 적용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인 강창우는 "질병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이른바 '카더라'가 인터넷 등에 만연하는 상황에서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의 인터뷰와 감수를 걸친 1분 30초 분량의 영상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2015년 현재 당뇨병, 유방암, 위암, 우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매 등의 6가지 병의 증상에 대한 실제 환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드러눕고 싶어져서, '아, 이 약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생각했지요.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먹었어야 되는데, 어지러우니까 안 먹어 버리고 1년을 중단을 했어요. 그 때 초기에 약을 계속 좀 먹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자가진단 해서 안 먹은 게 더 역효과가 났죠. 그런데 친구가 당뇨하고 갑상선 하고 두 가지로 입원하는 거 보고 거기에 놀라서 다시 약을 먹게 된 거에요. 그 때부터는 계속 먹었어요.[12)]

위 사례는 '질병체험이야기'에서 제공된 당뇨병 진단을 받은 65세 여성 환자의 사례다. 자가진단으로 약을 먹지 않았다가 일어난 부작용을 통해, 병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짧은 진료시간 등으로 인해, 의료진으로부터 밀도 있는 질병 정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김용, 2014), 환우회와 같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환우회에서 얻을 수 있는 민간요법, 비과학적, 주관적인 방법에 대한 제지는 잘 이루어

12) <http://www.healthstory4u.co.kr/>

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환우회'를 검색했을 경우, 네이버 카페 78개 중 53(67.95%)개가, 다음 카페 156개 중 71(45.51%)개가 비활성화 되어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때 비활성화의 기준은 조사일인 8월 26일을 기준으로, 조사일로부터 최신 글의 작성일까지의 간격이 1년 이상이거나, 회원이 1명인 경우, 카페명과 게시된 글의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로 두었다. 체계적인 틀을 갖춘 웹 사이트 형식의 환우회와는 달리, 카페 형식의 환우회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부작용으로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이거나 주관적인 정보, 민간요법, 상업적인 의도가 담긴 정보 퍼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V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안

1. 이용대상 및 서비스 소개

그동안 의학도서관은 의학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인 상호대차, 연구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해왔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또한 아직까지는 서비스 제공이 미미하기에 평가하기 이른 바가 있으나, 모든 이용자를 포함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들의 핵심가치[13]와는 다르게,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전문인을 위한 서비스에 치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국가대표 의학도서관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 의학도서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주제서비스와 더불어,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여 제

13)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핵심가치 :
보존 - 우리는 의과학 정보를 수집, 가공, 통합, 보존하여 후대에 전한다.
공유 - 우리가 보유한 지식자원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창조 - 우리는 의과학 정보의 선순환을 통해 신지식 창조에 기여한다.
감동 - 우리는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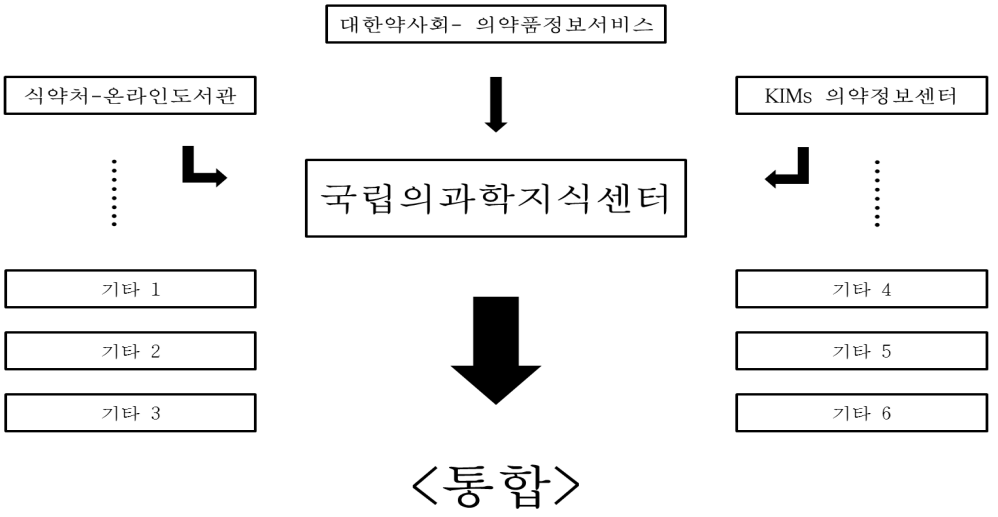
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선 사례들을 참고하여 크게 (1) 의약정보 통합제공, (2) 병원정보 제공, (3)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4) 의학 관련 커뮤니티 개설, (5) 전염병, 유행병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나눈, 총 다섯 가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비스 내용

가. 의약정보 통합제공

의약정보 통합제공은 한국의 '의약정보 제공 서비스'에, 'Medline plus'의 의약정보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MLA'의 'Top Health Website'의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다. 한국에서 의약정보 제공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도서관, 주식회사KIMS에서 운영하는 KIMS 의약정보센터, 대한약사회에서 제공하는 의약품정보 서비스 등의 여러 기관에서, 중심기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미국의 'Top Health Website'의 서비스를 차용하고, 거기에 'Medline plus'의 의약정보 검색기능을 추가하였다. 'Top Health Website'는 한 페이지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여러 웹 사이트를 집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반영해 의과학지식센터와 여러 의약정보 사이트를 연결하여, 소비자들이 한 번의 의약정보 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의약정보 사이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검색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여러 검색 결과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의학정보를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의과학지식센터 의약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모델



나. 도서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도서관,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우리 동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찾기[그림 5]'와 'Medline plus'의 'Find a Library[그림 6]'를 결합한 서비스다. 두 서비스의 공통점은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도서관,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사이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된다는 점이다. 위의 두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도서관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중에서 건강/의학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거나 관련 장서가 많은 도서관들의 정보를 우선 수집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의 위치, 전화번호, 사이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건강/의료 주제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우리 동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찾기'에서의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분류 전반에 해당하는 1, 2, 3차의 의료기관 정보와 진료과(科)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절

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취지이다.

그 외에 일본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각 질병 및 치료에 따른 검색 기능을 넣는다면 이용자들은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뿐만이 아닌 조사하고자 하는 질병에 관한 우수한 기관 정보 또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

보건복지부 '우리 동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찾기' 목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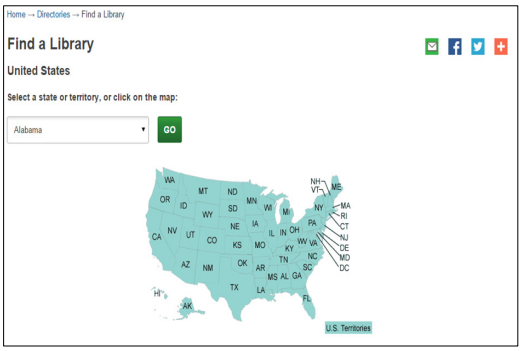
우리동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목록

총 3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주소	의료기관명	연락처	응급실 연락처	구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91-121	세종병원	1599-6677	3401-117~9	종합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26번지	본드림병원	032-1588-7111		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0-9	21세기병원	1577-7521		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6-2	휴앤유병원	032-202-0114		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9-2	루카스병원	032-310-0100		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577-2	베스티안부천병원	032-612-7575	032-611-9933	병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7번지 14호 297-3	부천우리병원	032-672-4100	032-672-2400	병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35	한우리요양병원	032-682-6283		병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59	예손병원	032-681-4114		병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230-17	부천중앙병원	032-681-2333	032-6726-119	병원

[그림 6]

Find a Library[1)]



다.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은 미국의 'Medline plus'를 차용한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역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용성이 높은 자료는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심지어, 국가지정기관인 의학연구정보센터(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에서도 형식적인 비디오 자료만을 제공한다. 의학연구정보센터에는 2006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나 전시식의 자료들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 현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Medline plus'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Medline plus'의 정보들은 약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으며 수술과정을 보여주는 수술정보, 인간의 해부도, 순환계 정보, 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건강정보, NIH와 연동한 노인을 위한 시니어 건강정보 등을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두륜 (2005)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대상자가 치료를 해줄 의사에게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그 설명이 형식적이었다고 답한 경우가 60.4%나

되었다. 비록 수술 전에 서면 혹은 대면으로 의사의 설명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받게 될 수술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을 비디오 형태로 제공한다면, 원활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라. 의학 관련 커뮤니티 개설

의학 관련 커뮤니티 개설은 일본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의 일부분을 차용한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웹상에 퍼진 환우회는 불충분한 의료정보와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의 제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우회마다 CHI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 및 예산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의 '환자회(환우회)에 대해 알고 싶음'을 참고하여, 의학기관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검증된 환우회 목록을 제공하고, 사이트 내에 의학전문가가 개입하는 커뮤니티를 개설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의사 혹은 의학사서와의 소통을 통해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배제함으로써 환자간의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마. 전염병, 유행병의 실시간 정보 제공

'전염병, 유행병의 실시간 정보 제공'은 1장에 언급되었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메르스(MERS) 포털의 사례를 기반으로 둔 서비스이다. 한국은 메르스로 인해 커다란 혼란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와 괴담을 막는데 여력을 다해야 했다. 핫라인 번호 개설이 늦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다시 일어날 시 이를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미리 갖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염병이나 유행병이 발생할시 전염경로, 확진자, 대책본부, 핫라인 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의심 징후, 예방법, 치료법, 진료, 약 등의 검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면 국민의 신뢰감을 얻음과 동시에 국가대표 의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Ⅵ 결 론

최근 도서관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학도서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평균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도적으로 의학정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각광받은 분야는 웰빙과 건강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정보서비스는 의학도서관의 주된 서비스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 맞닿는 정보인 병의 증상, 진단, 치료, 예방, 질병 등에 비중을 둔 소비자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를 중심으로 해외 현황 및 관련 서비스 내용을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과 미국의학도서관협회(MLA : Medical Library Association), 일본의학도서관협회(JMLA : The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からだとこころの情報センター)'를 선진사례로 선정하여 한국의 CHI 서비스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CHI 서비스는 NLM에서 제공하는 'Medline Plus'와 'MLA'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된다. 특히 'Medline Plus'에서 제공되는 의약품 관련 처방,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관한 약품 관련 정보를 담은 '주제별 의약품 건강정보 알림' 서비스와 수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료영상 제공, 'MLA'의 지역별 질병관련 센터 및 도서관 추천 서비스 등이 주목할 만하며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의학정보에 대한 요구를 해소해준다. 이와 흡사하게 일본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는 병세, 약, 병원, 환자회(환우회), 의학용어, 전문병원, 투병기, 식품, 문헌입수법 등에 관한 10개 하위메뉴를 둠으로써 일반인 이용자에 초점을 둔다. 다소 특이한 점은 전문가에 의해 검증받은 환우회 목록을 올림으로써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 수용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속한 88개 병원도서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CHI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운영규정을 통해 이용대상이 명확히 표기되었던 44개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원을 이용대상으로 표기한 기관이 44개관(100%)인 것에 반해, 일반 이용자를 이용대상으로 표기한 기관은 0개관(0%)

에 불과했다. 기입되지 않은 정보나 도서관의 실제 규정으로 인해 통계와 실제 데이터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전시회,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으나, 부족한 CHI 관련 콘텐츠로 인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건강정보 서비스와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인터넷 발달과 맞물려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정보를 취사선택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환우회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 검색에서 도출된, 네이버 카페 78개 중 53(67.95%)개, 다음 카페 156개 중 71(45.51%)개가 비활성화되었다는 결과와 환우회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비과학적이거나 주관적인 정보, 민간요법, 상업적인 의도가 담긴 정보는,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의약정보 제공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KIMS 의약정보센터, 대한약사회 등 중심기관이 없이 여러 기관에서 자체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정보를 찾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약학인 만큼, 'Top Health Website'와 'Medline Plus'의 의약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한 '의약정보 통합제공'서비스는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한 번의 의약정보 검색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둘째, 의료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서관, 병원 등의 기관은 우리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Medline plus'의 'Find a Library'와 보건복지부의 '우리 동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찾기'를 결합한 '도서관, 의료기관 정보 제공'서비스를 수립한다면 CHI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은 건강/의학 분야에 대한 장서특성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정보와 진료과(科)의 전문성을 고려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세부적으로 각 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웹 사이트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건강/의료 관련 주제 및 기관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술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일으킴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의사에게 수술 혹은 진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면 환자의 두려움은 더욱 커질 뿐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은 소비자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업로드 되는 ‘Medline plus’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차용하여 수술 과정, 인간의 해부도, 순환계 정보, 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환자들이 더 쉽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사람들은 점차 삶과 직결되는 건강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불충분한 의료정보와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 웹상에 늘어나고 있는 환우회가 잘못된 의료정보의 확산지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일본의 ‘몸과 마음의 정보센터’는 환우회와 공존을 도모하여 의학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검증된 환우회 목록을 제공하였다. 본 절과 더불어 의학전문가가 개입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출처를 책임지게 한다면 의료기관과 환우회는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의 본질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건강과 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있다. 전염병 및 유행병에 관한 공식 포털 사이트는 소비지건강정보 서비스의 취지와 통하는 바가 있다. 웹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 기관의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통계정보 수집을 통해 더욱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Patrick K, K. S. (1995). *Consumer health information white paper. [draft] [s.l.]: Consumer health informatics subgroup, health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workgroup, committee on applications and technology, U.S.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Pernotto, D. A., Watson, M. M., Jones, D. A., &Gammill, K. M. (2003). Health e-links: A pilot program for delivering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EHI) to consumers in rural areas through a partnership with louisiana public librarie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7(2), 13.

김용. (2014). 한국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노동조, 김정아. (2010). 의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45-56.

노영희. (2013a). CHI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65-291.

노영희. (2013b). 소비자건강정보(CHI) 참고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345-376.

노영희. (2014). 건강정보원 평가기준에 대한 공공도서관 및 의학도서관 사서간 인식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107-129.

노영희, 오상희. (2011). 문헌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공공도서관 소비자건강정보(CHI) 서비스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47-77.

박정희. (2006). *국가의학전자도서관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박종혁, 이진석, 장혜정, 김윤. (2008).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예방의학회지, 41*(4), 241-248.

송태민, 이연희, 박대순, 진달래, 류시원, 안지영. (2012). *2012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희윤. (2014). 국가도서관 체계의 전략적 정립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정재민. (2015). *건강 상태, 관심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인식 및 구매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医学図書館. (2012). 委員会報告. , 59(1) 2-4.

国立ライフサイエンス情報センター（仮称）推進準備委員会. (2012). 最終報告. 医学図書館, 59(1), 2-4.

현두륜. (2005). 수술동의서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대한의사협회지, 48*(9), 881-885.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3)

2015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2015년 11월 6일 인쇄
2015년 11월 13일 발행

발행인 임 원 선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 소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02)590-0779
팩 스 (02)590-0502
인 쇄 (주)계문사 (Tel. 02-725-5216)

ISBN 979-11-5687-192-7 94020
ISBN 978-89-7383-223-1 (세트)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5030045)